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

/ 2017. 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숭실대학교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2016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주 관 기 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정 무 성 (숭실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최 상 미 (숭실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임 유 진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연 구 원 : 이 혜 인 (숭실대학교 석사)
연 구 원 : 문 성 식 (숭실대학교 석사수료)
연구보조원 : 정 순 희 (숭실대학교 석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내용	5
3. 연구 범위	6
4. 연구 수행체계	8
제2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개요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연혁	10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내용	13
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체계	19
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실적	23
제3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체계 및 분석방법	
1. 평가지표 설정의 기본방향	29
2. 2016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체계의 설정	36
제4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현황 분석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 및 집행률	46
2.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 및 추이 분석	48
3.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사용자 면접 분석	87
제5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 분석	
1. 연구 방법	93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 분석 결과	95
3. 전문가집단 심층면접 분석	113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27
2. 제언	134
참고문헌	140
부록	141

표목차

〈표 2-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대상 기준	14
〈표 2-2〉 (통합)문화이용권 재원별 예산현황(2005년~2016년)	17
〈표 2-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주요기관의 역할	20
〈표 3-1〉 2014년,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	30
〈표 3-2〉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지표 체계(2015년)	31
〈표 3-3〉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2015년)	33
〈표 3-4〉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사항	34
〈표 3-5〉 통합재정사업평가 평가지표(2016년 기준)	35
〈표 3-6〉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평가지표(2013년 기준)	35
〈표 3-7〉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평가지표	37
〈표 3-8〉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평가지표 및 세부 문항	42
〈표 4-1〉 도시/농산어촌별 이용액 현황(2016년)	51
〈표 4-2〉 2015년 대비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월별 이용액의 증감	54
〈표 4-3〉 2015년 대비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역별 이용액의 증감	61
〈표 4-4〉 계절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83
〈표 4-5〉 계절에 따른 생애주기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85
〈표 4-6〉 미소진율 현황(2011년~2016년)	87
〈표 4-7〉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사유 전화면접 분석	89
〈표 5-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조사 설계	93
〈표 5-2〉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조사문항	94
〈표 5-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응답자 특성	95
〈표 5-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기간에 따른 인지경로	96
〈표 5-5〉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	97
〈표 5-6〉 거주 지역별 이용자 만족도	98
〈표 5-7〉 연령별 이용자 만족도	99
〈표 5-8〉 가구소득수준별 이용자 만족도	100
〈표 5-9〉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참여횟수	101
〈표 5-10〉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	103
〈표 5-11〉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이의 문화향유 추가지불여부 및 금액	104

〈표 5-12〉 향후 1년간 문화향유 추가 지불의향 및 금액 -----	105
〈표 5-1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	105
〈표 5-14〉 거주 지역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	107
〈표 5-15〉 연령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	109
〈표 5-16〉 가구소득수준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	110
〈표 5-17〉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의 어려움(다중응답) -----	111
〈표 5-18〉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주요 개념에 관한 논의 내용 -----	114
〈표 5-19〉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효과성 및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 내용 ----	117
〈표 5-20〉 홍보 및 신청과 발급에 대한 주요논점 -----	120
〈표 6-1〉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2014년) -----	137

그림목차

[그림 2-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도	19
[그림 2-2]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추이(2005년~2016년)	23
[그림 2-3]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인원(2006년~2016년)	24
[그림 2-4]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만족도 변화	25
[그림 2-5]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변화추이	25
[그림 2-6]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변화	26
[그림 2-7] 지역별 문화행사 관람을	26
[그림 3-1] 통합재정사업평가	33
[그림 4-1] 연령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49
[그림 4-2]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50
[그림 4-3]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52
[그림 4-4] 생애주기별 월별 이용액 현황(2014년)	56
[그림 4-5] 생애주기별 월별 이용액 현황(2015년)	57
[그림 4-6]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현황(2016년)	58
[그림 4-7]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59
[그림 4-8]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4년)	62
[그림 4-9]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5년)	63
[그림 4-10]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6년)	64
[그림 4-11]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4년)	66
[그림 4-12]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5년)	66
[그림 4-13]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6년)	67
[그림 4-14] 2016년 도시/농산어촌의 월별 이용액	68
[그림 4-15] 2016년 도시/농산어촌의 월별 이용액 비율	69
[그림 4-16] 2016년 도시지역 생애주기별 월 이용액	70
[그림 4-17] 2016년 농산어촌지역 생애주기별 월 이용액	71
[그림 4-18] 지역 특성에 따른 장르별 이용 현황	72
[그림 4-19] 2016년 도시지역 생애주기별 장르 이용액	74
[그림 4-20] 2016년 농산어촌지역 생애주기별 장르 이용액	74
[그림 4-21] 2016년 도시지역 월별 장르 이용액	75

[그림 4-22] 2016년 농산어촌지역 월별 장르 이용액 -----	76
[그림 4-23] 장르별 월별 이용액 현황(2014년) -----	78
[그림 4-24] 장르별 월별 이용액 현황(2015년) -----	79
[그림 4-25] 장르별 월별 이용액 현황(2016년) -----	80
[그림 4-26] 장르별 월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	81
[그림 4-27] 계절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	84
[그림 4-28] 계절에 따른 생애주기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	86
[그림 5-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인지경로 -----	96
[그림 5-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 -----	98
[그림 5-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향후 이용 의향 -----	103
[그림 5-4]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후 변화정도 -----	106
[그림 5-5]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이유 -----	112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방향
- 연구범위
- 연구수행체계

1. 연구배경 및 목적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대표적 문화복지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 스포츠 · 여행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삶의 질 고양을 도모하는 바우처(voucher) 방식의 문화복지사업임
-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상황으로 문화예술 활동 향유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구입 지원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프로스포츠관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예산이 책정된 이래 실시되어 옴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시범 사업 실시 이후 최근까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 이용권 제도를 운영해 옴. 이후 문화, 여행, 스포츠 이용권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은 이용대상자의 중복, 문화이용권의 홍보 부족과 중복, 정보제공의 미흡, 선택권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전달체계 상의 문제가 지적되면서(김성권, 2013), 2014년 분리되어 운영되어오던 스포츠, 여행, 문화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운영되기 시작함
 - －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하나의 이용권을 발급하고, 연간 개인당 5만 원 범위에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예산 또한 2010년 약 50억에서 2015년 426억으로 빠르게 증가해 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옴
 - － 첫째,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 등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제한된 대상들에게 문화급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 － 둘째,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 정서적 역량강화, 나아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 －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넘어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편적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 넷째, 이용자의 선택 범위를 문화예술 및 여가 프로그램(문화, 체육스포츠, 여행 등)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
- 다섯째,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여가생활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 여섯째, 전달체계 통합을 통해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점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은 여전히 예산의 한계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연간 개인당 5만원의 급여가 문화예술향유를 촉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도서구입과 영화 관람에 집중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에의 기여가 제한적이며,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이용권 사용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함
- 이에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연구’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6년에 추진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동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 사업의 목적에 근거하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을 명확히 함
- 둘째, 2014년,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통합재정평가 평가지표, 2014년, 2015년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지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내용, 특성,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이전의 평가지표에서 수정·보완된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 개발·제안함
- 셋째,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이용자 수, 계절별, 거주 지역별, 장르별, 이용액 및 비율 현황을 분석함
- 넷째,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분석함
- 다섯째,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향유, 사회적 자본 형성, 삶의 만족도, 행복, 우울감 감소 등의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함과 동시에, 추가적 문화예술 향유 비용 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함
- 여섯째, 향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들의 소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도출을

- 위해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미소진 이유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실시함
- 일곱째, 문제점,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함

2. 연구 내용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연구는 2014년, 2015년에 수행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첫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지표를 개발·제안하고, 둘째,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과 경향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셋째, 만족도를 비롯한 성과 측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둬
- － 첫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모델 개발 및 제안. 중단 비교를 위해 2014, 2015년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되, 사업의 변화(가구 지급에서 개인 지급으로의 변화 등)와 환경의 변화(기획재정부 통합재정평가 실시 등) 등을 고려한 성과평가 지표 제안
 - － 둘째,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과 경향 분석을 통해 계절별, 장르별, 거주 지역별 이용액 및 이용률 등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진단함
 - － 셋째,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분석함
 - － 넷째, 만족도 외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이용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정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성과를 파악함. 더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과 함께 문화예술향유에 추가적으로 소비된 비용 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함
 - － 다섯째,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함. 이를 통해 미소진 이유를 파악하고 향후 소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함
 - － 여섯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성과,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추가적 함의를 이끌어냄

3. 연구 범위

1) 대상적 범위

-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함

2) 시간적 범위

- ☐ 성과 분석의 경우, 2016년에 추진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함
- ☐ 현황 분석의 경우, 2014년, 2015년, 2016년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최근 3년 간 추이를 분석함

3) 내용적 범위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선행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 바우처 방식의 문화복지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의의, 전개과정, 내용, 특징, 그 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

(2)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행태 분석

-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이용률; 계절별, 거주 지역별, 장르별 이용건수와 이용액; 연령대, 장애유무별 등 이용자 특성별 이용건수와 이용액 등을 분석함으로써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의 이용권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개선 및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함의를 제시함

(3)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평가지표 개발 · 제안

-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었는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함
- ☐ 평가지표 체계는 2014, 2015년 평가지표의 큰 구성인 계획단계-집행단계-성과단계를 유지함. 그러나 통합재정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문예진흥사업평가 등의

평가지표와 사업의 내용, 특성, 운영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안함

(4)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이유 분석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이용자 대상으로 미소진 이유, 이용자 측면에서 원하는 소진을 위한 방안 조사 및 분석
- 이를 통해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5)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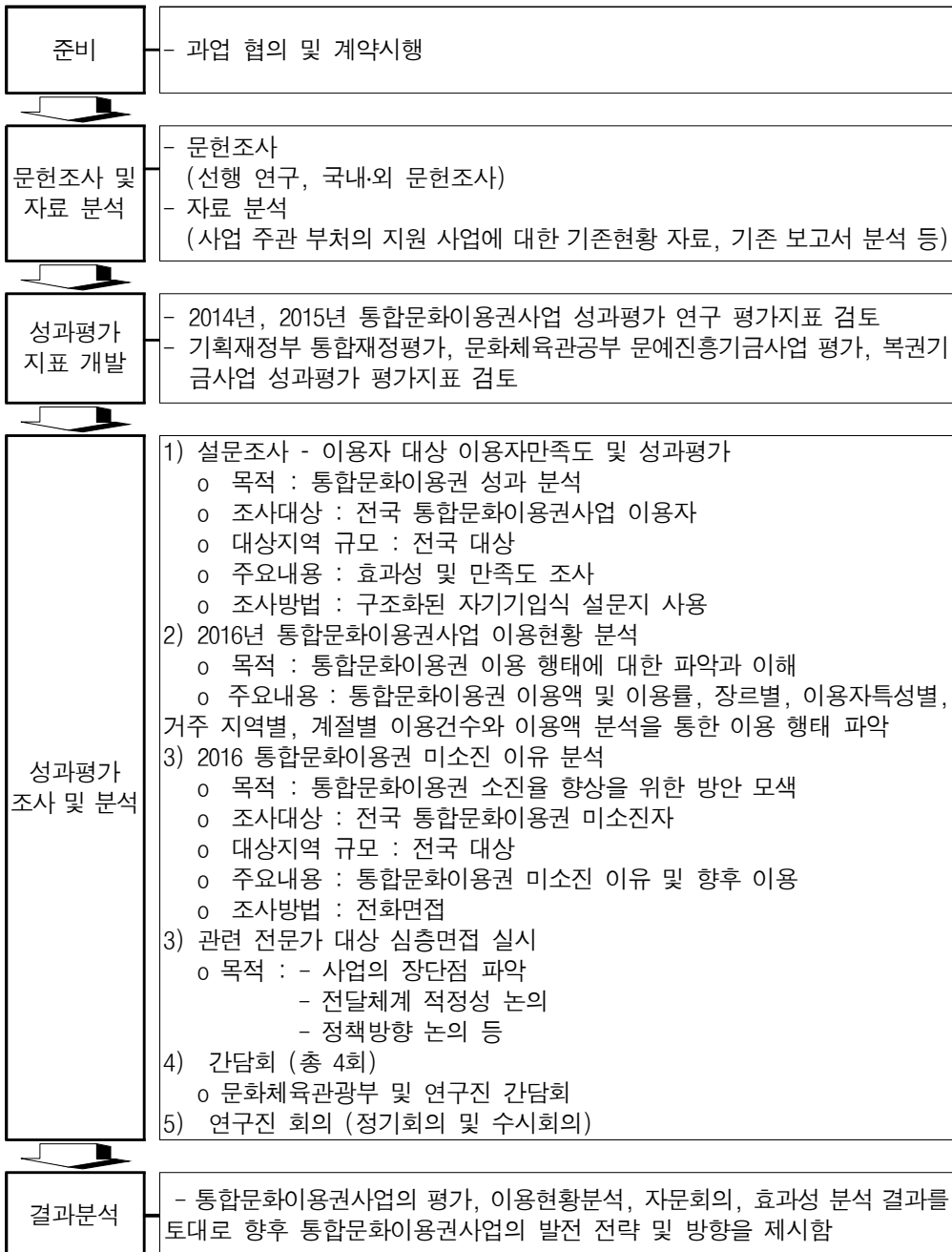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만족도 외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이용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심리 정서적·사회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성과 분석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외에도, 주관처 사업 담당자 등의 실무자, 문화복지 전문인력,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성과를 파악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여 향후 사업 발전전략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

(6)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발전전략 및 방향 제시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 이용현황 및 행태 분석, 이용자 만족도 분석, 효과성 분석, 자문회의 결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발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함
-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자에 대한 전화면접,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향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함

4. 연구 수행체계

□ 위에서 제시한 연구방향과 범위에 따른 연구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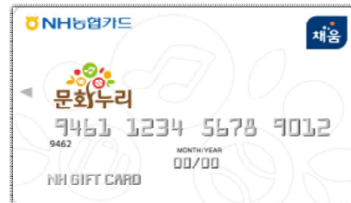
제2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개요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연혁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내용
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체계
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실적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연혁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대상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틀 안에서 전개 되는 바우처 성격의 사업임



□ 연도별 주요 세부내용

연도	주요 세부내용
2005	-국고(복권기금) 4억을 투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 시작
2006	-문화바우처(이용권) 사업 시작 (전국으로 확대) -홈페이지 포인트제(3000 포인트-3만원상당)→ 2007년 ~ 20010년 5000포인트(5만원상당)
2011	- 카드발급 방식 개편(카드결제), 예산 규모 대폭 확대, 지방비 매칭(7:3)시작
2012	-후기명식 카드 발급(주민 센터 발급가능), 실시간 카드 발급 -기획사업 4개 유형(모셔오는 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지역별 고유프로그램, 문화 카드 플러스 서비스 신규도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운영, 여행이용권(2012년 까지 한국관광공사사업), 스포츠관람이용권사업(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201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개시(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 사업을 통합) -동일 세대 내 카드 합산 기능 및 개인 비용 충전기능 신설 -청소년 추가 발급 연령을 10~19세에서 6~19세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이용제고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음
2015	-연도 중반 발생한 메르스로 인한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감소에 따라 추경 105억 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2016	-체육, 관광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되어 사업 진행 -기획사업 폐지

자료: 연도별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후 주요내용 표로 재구성

□ 일반적인 정책분석틀인 대상, 급여, 재원 및 전달체계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	카드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우선돌봄)차상위 계층										
	기획 사업						경제적 저소득층, 사회적 소외계층 지리적 소외계층, 기타 소외계층					
급여	형태	홈페이지 포인트					개별카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통합카드		
		가구제					가구제+가구원(청소년최대5명)				가구원 개별	
	수준	3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재원		국고(복권기금)										
						지방비	지방비 매칭(7:3)					
										관광기금	문예 기금	
										체육기금		
전달 체계	전담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여행바우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관람바우처)										
	발급						온라인 및 지자체 발급					
	지역	지역주관처(지역문화재단)										

- 2004년 복권기금의 4억 원을 배정받아 이듬해인 2005년에 문화이용권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06년에 26억 원으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 2005년 주요 대상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공연관람 중심이었으나 2006년에 들어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변경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포인트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06년에는 연간 3천 포인트(3만원 상당), 2007년부터 연간 5천 포인트(5만원 상당)로 지원액이 상승함
- 2011년부터 홈페이지 포인트제에서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변경 후 예산 규모 등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자발적인 향유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기획 사업이 병행됨
- 지자체의 예산분담(국고와 지방비 7:3매칭)이 시작되면서,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사업의 전달 기관으로 역할
 - 객석기부제와 나눔티켓 제도 도입
- 2014년부터는 기존에 각각 다른 기관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수혜자의 이용 편의성 및 이용권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체제로 운영함(3개 이용권을 통합한 하나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 이용권이 통합되면서 수혜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운영체제가 일원화되면서 사업 운영에서도 안정화를 가져옴
- 2014년 선착순 발급에서 2015년 신청자 전원 발급으로 규모·대상 확대
- 2016년부터 체육, 관광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되어 사업이 진행됨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내용

1) 목적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생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행복’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품격 있는 ‘문화국가’를 지향
- 문화 소외계층에게 예술의 창조성을 통해 창의성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소양(감성, 이해력)을 높여 문화욕구를 향상시키고 장차 문화예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 문화역량 강화¹⁾

2) 법적근거

-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사업
 -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사업임(2014년도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기본권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법정 사업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문화나눔 홈페이지 2016.12.검색)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4에 의거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명시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주요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 통합문화이용권은 2015년을 기점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별카드를 발급함

<표 2-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대상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할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 가족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251만 명) 중 145만 명

4) 지원내용

□ 개인카드 : 연간 5만원 지원(세대 내 발급 매수 제한 없음)

－ 6세 이상 지원대상자 중 신청자 전원 발급

※합산이용: 동일한 세대 내에서 한번에 7매까지 하나의 카드로 합산 이용 가능

※통합문화이용권 전용카드 운영사 : NH농협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 연간 5만원 지원(단, 비인가 시설제외)

□ 사용방법

－ 충전: 지원 금액 소진 시 농협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금액 충전

－ 재충전 : 2014년, 2015년도 발급카드에 2016년 정부지원금 충전 사용 가능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현금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복합 결제가 가능

□ 사용처

	장르구분
문화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화방, 음반판매점, 문화센터, 서점,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책바다), 사진관
여행	-숙박: 호텔, 콘도,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운송수단: 항공(대한항공 제외),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여객선, 렌터카 -관광여행사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 파크 등) 및 스키장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
스포츠관람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경기장 주변) -국제 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현장 결제 뿐 아니라, 온라인마켓에서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 프로그램 결제도 가능

※ 단, 음원, 영화, 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가맹 확대 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음반 및 DVD, CD구입 결제는 가능)

－ 학교, 학원 등 예술교육비, 스포츠강좌 결제는 불가

－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용기간

－ 2016년 2월 15일 ~ 2016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5) 재원 및 예산

(1) 재원

□ 2006년 복권기금의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까지 투입되었음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 2014년 여행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가 통합문화이용권에 통합이 되자 2014년에 복권기금이외에 관광기금, 2015년 관광기금과 체육기금이 투입되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국민체육진흥기금법 제 3장 19조)하는 기금으로서 제22조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중략)… 11.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12.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임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기본법’ 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972.12.29 법률 제240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운영하는 공공재원으로 2005년부터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관광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행 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음

□ 2016년부터 사업의 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의 일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되자 복권기금은 재원에서 제외됨

(문화예술진흥기금)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창작지원·국제교류·문화나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기금임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향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민간기부 활성화

(2) 예산

□ 2016년도 사업예산

- 785억 원(국고 553억 원 지방비232억 원/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 7:3)
- <표 2-2>에서 보듯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006년 복권기금이 투입되면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26억으로 본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꾸준히 예산이 확대 되어옴
- 2015년 메르스 사태 여파로 국민의(특히, 저소득층의) 문화예술향유가 위축되자 정부는 818억 원의 본예산에 150억 원(국비 105억 원과 지방매칭 45억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여 968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2-2> (통합)문화이용권 재원별 예산현황(2005년~2016년)

(단위 :억 원)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26	20	27	42	67	340	487	493	732	968	785
복권기금	20	20	27	42	50	245	343	349	409	427	-
관광기금	-	-	-	-	-	-	-	-	102	106	553*
체육기금	-	-	-	-	-	-	-	-	-	42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	-	-	-	-	
국고(추경)	6	-	-	-	-	-	-	-	-	105*	-
공익사업적립금	-	-	-	-	-	-	-	-	7	-	-
지방비	-	-	-	-	17	95	144	144	214	288*	232

주 1) 2015년도 중반 발생한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감소에 추경예산을 편성함

2) 2016년도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일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성됨

자료: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일부 재구성

6) 통합문화이용권 촉진 프로그램(나눔티켓)

- 나눔 티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미판매 예정좌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무료 또는 할인(50~80%)된 가격으로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임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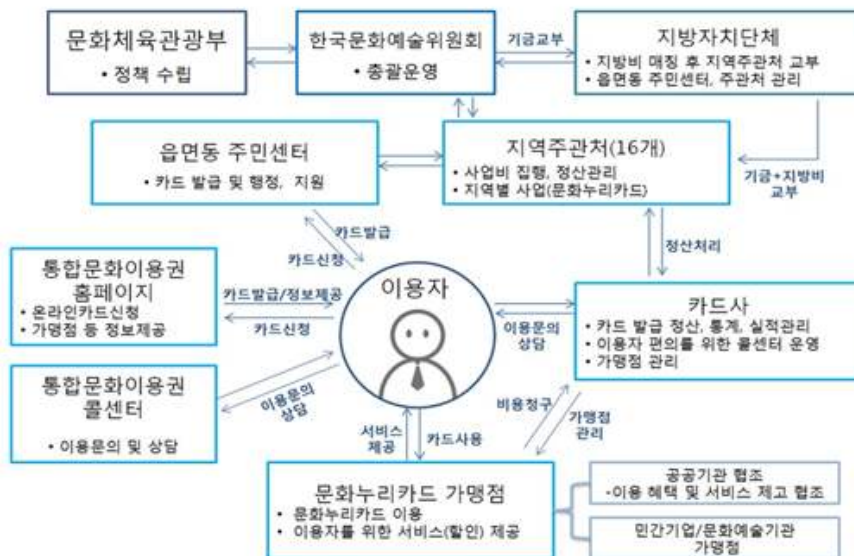
□ 이용대상

	이용대상	이용서비스	
		할인티켓	무료티켓
나눔회원	통합문화이용권소지자	○	○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	×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체계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추진체계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각 지역주관처 등의 추진체계로 진행되고 있음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그림 2-1] 통합문화이용권사업추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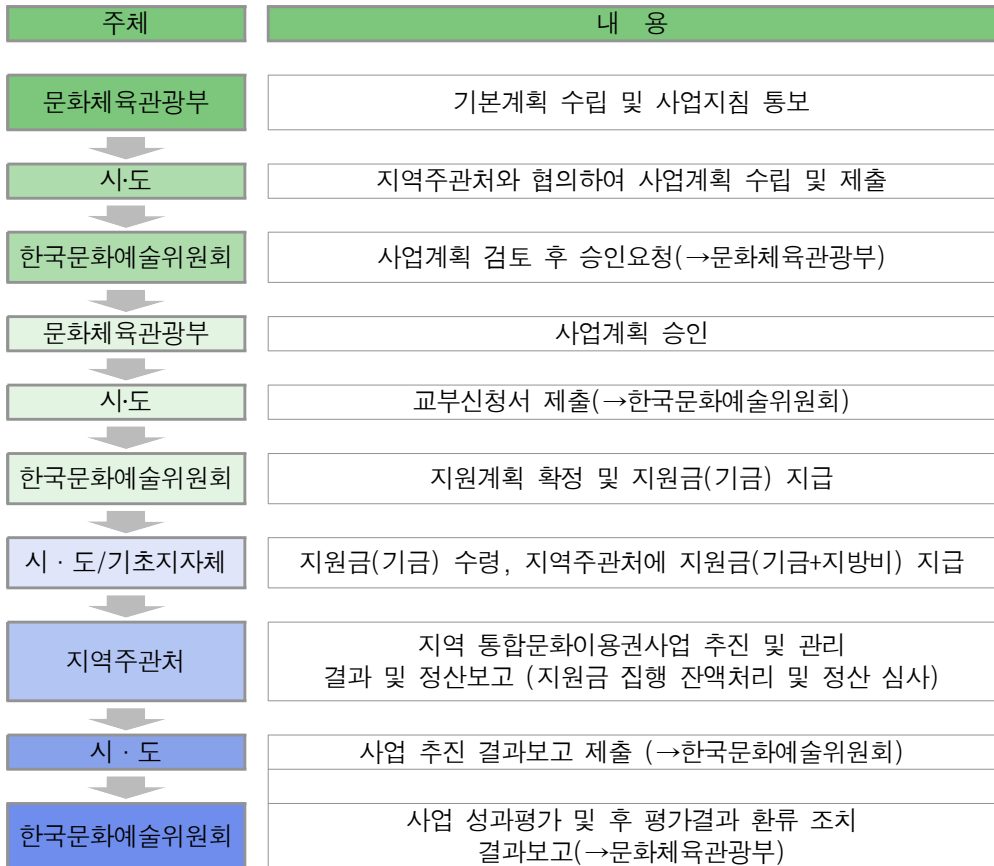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기관의 역할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확대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표 2-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주요기관의 역할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총괄) 세부계획수립, 사업운영총괄 및 점검·평가 (예산총괄) 통합문화이용권사업기금 교부 및 정산 (지원업무)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통합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콜센터)통합문화이용권 이용문의 및 민원상담 (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사업계획) 각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주관처 교부 (운영) 지역별 사업총괄,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카드발급 및 이용률 제고) 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내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지역주관처 교부 (운영) 지역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관내 복지시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관리 감독 지역별 카드 발급 및 이용 홍보 등 서비스 전달
읍·면·동 주민 센터	(카드발급) 카드발급업무 수행 (안내/홍보) 카드 발급 시 카드이용 안내 및 홍보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카드사업)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 자료제출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지역홍보 추진 (카드촉진사업) 카드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카드사(농협)	(카드발급) 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가맹점관리) 카드가맹점 관리 및 전수조사, 사업홍보 등 (콜센터) 전담 콜센터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3)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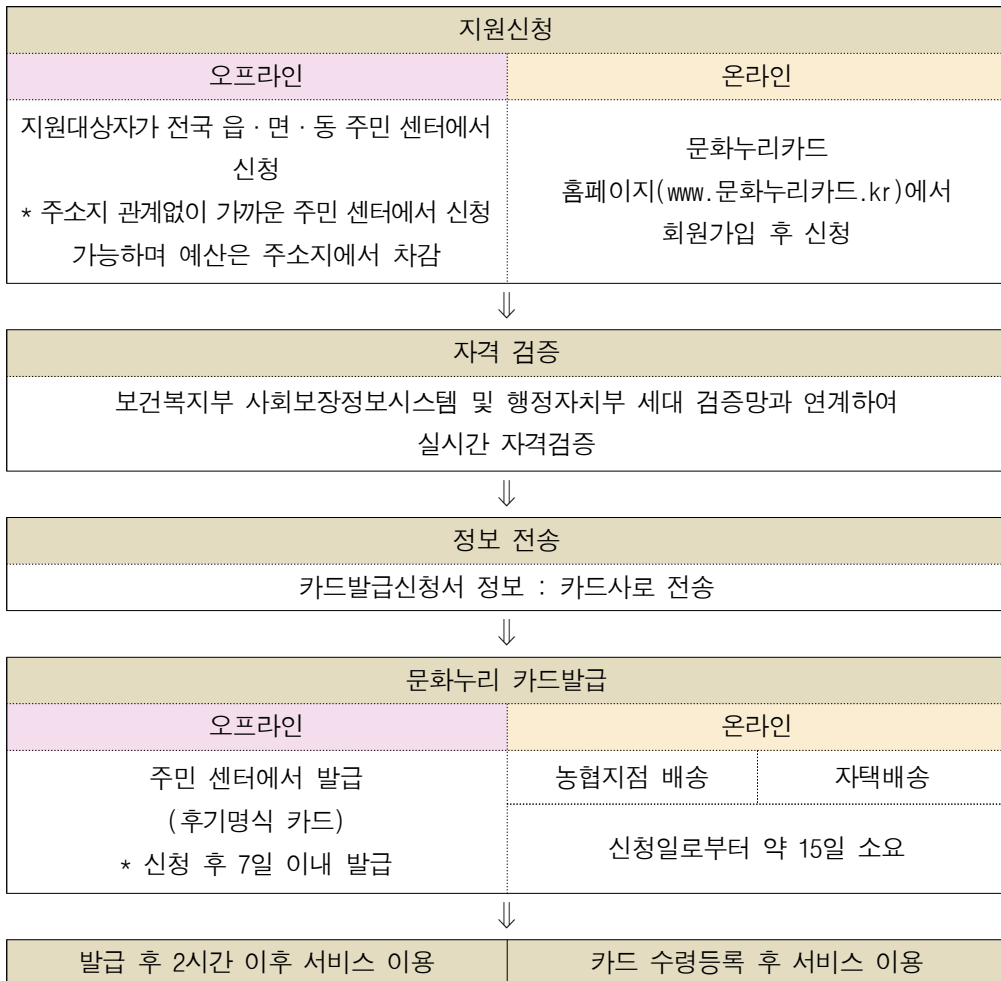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 일부내용보강.

4)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추진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1월~ 2월	사업설명회(전국 3,800여개 주민 센터 담당자 대상 7회)	서울, 전주 등 순회 개최
	상반기 운영 워크숍(17개 시도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발급개시(2월) 권역별 순차 발급/ 이용개시(2월~12월)	
3월 ~ 4월	지역대표 축제 연계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신규 발굴	3월~12월
5월 ~ 6월	상반기 운영 워크숍(17개 시도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5월
7월 ~ 8월	가맹점 전수조사(유선)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10월~12월	하반기 운영 워크숍(11월)	하반기 현장모니터링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종료	12월 31일

5)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절차



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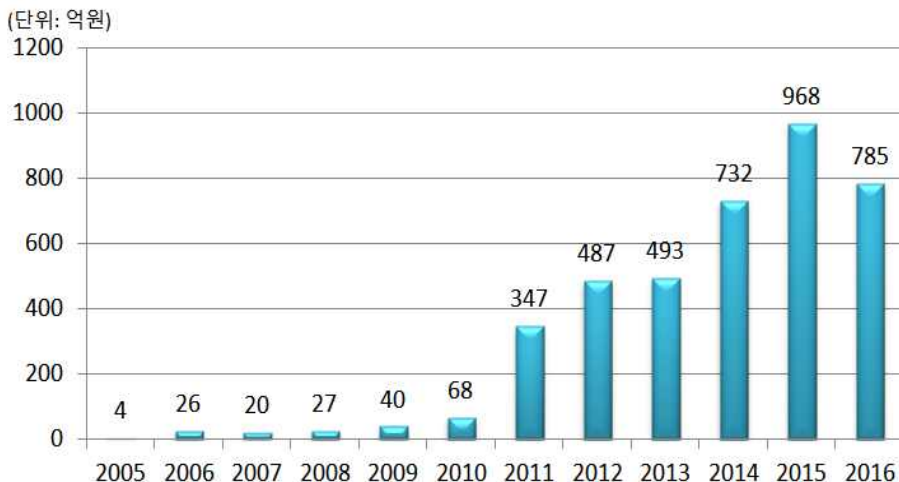
□ 여기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적을 계량과 비계량적 실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계량적 실적은 사업예산과 이용권 발급규모, 가맹점 수 및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 비계량적 실적은 사용자만족도, 문화격차해소 등으로 살펴 봄

1) 계량적 실적

(1) 사업예산 확대

- 2005년 복권기금으로부터 4억 원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이후 2006년 26억 원, 2009년 40억 원, 2010년 68억 원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어 추진됨
- 2011년 예산은 347억 원으로 2010년 대비 510%로 대폭 확대되었고, 이후 꾸준히 큰 증가세를 보임. 2015년 본예산은 818억 원에 추경예산 150억 원이 투입되어 968억 원으로 진행됨. 따라서 본예산을 기준할 때 2016년은 33억 원이 감소하였음
 - 2011년부터 지방 매칭(7:3)이 본격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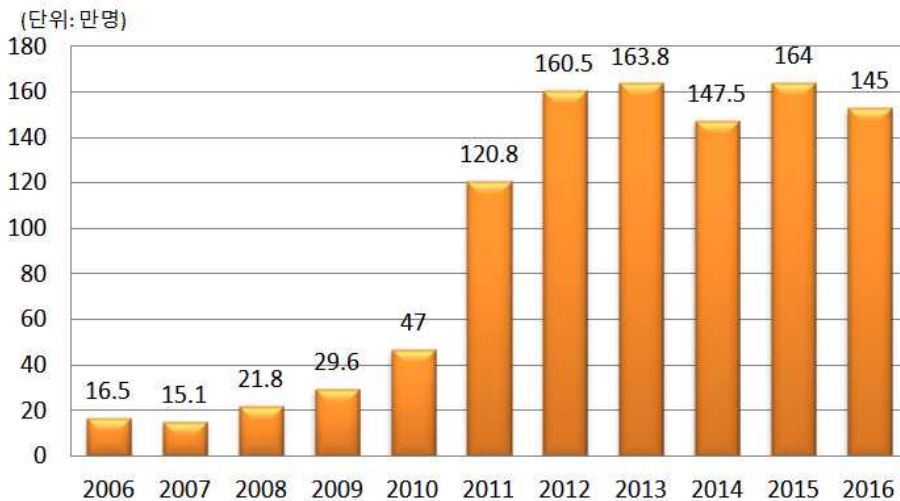
자료: 2014문화예술정책백서, 2016년 성과계획,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그림 2-2](통합)문화이용권 예산 추이(2005년~2016년)

(2) 이용자 규모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통합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총칭) 이용자 추이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이후 이용자 수는 2006년 164,554명, 2007년 151,076명으로 증가. 특히, 2011년은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수도 1,208,685명으로 확대됨
- 이용자 수는 2012년 1,605,115명 이후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2016년 1,450,801명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였음



자료: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2016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3](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인원(2006년~2016년)

(3) 가맹점 분야 확대(2015년~2016년)

- 신규가맹점수는 2015년 7,756개소에서 2016년 8,428개소로 확대됨
- 신규가맹점 분야로 2015년에 사진관, 스포츠관람기념품점, 책바다 및 on line 구매 등이 발굴되었으며 2016년에는 체육용품, 문화센터강좌, 시외버스 등이 발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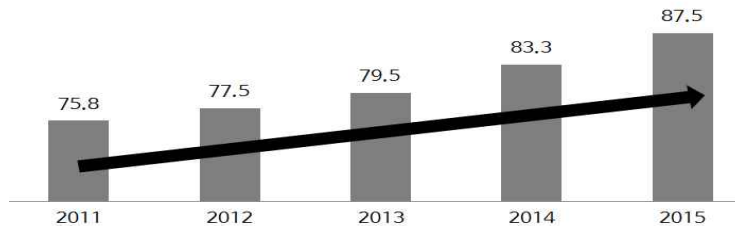
	2015	2016
등록가맹점총수(개소)	43,193	22,715
신규 가맹점수(개소)	7,756	8,428
주요 신규 가맹점 분야	사진관, 스포츠관람, 기념품점 책바다, on line 구매	체육용품, 문화센터강좌 시외버스

2) 비계량적 실적

(1) 사용자 만족도

□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자 만족도 성과 지속적으로 상승세

— 2011년 75.8점, 2012년 77.5점, 2013년 79.5점, 2014년 83.3점, 2015년 87.5점



[그림 2-4]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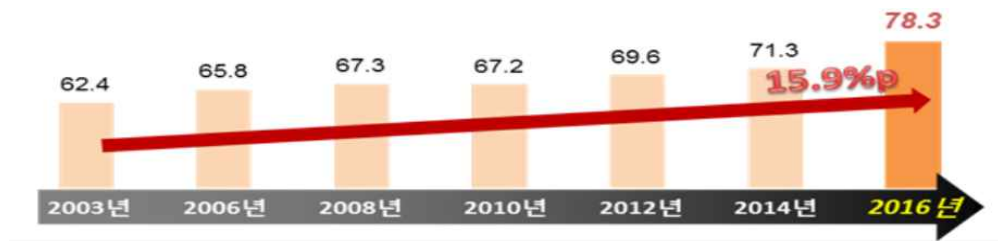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책 사는데 사용해서 우울감도 없어지고 치매도 예방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하고 언제 또 충전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연구 설문조사 중 제안사항에 기입한 사례 중에서-

(2) 문화격차 해소

□ 문화예술 관람률 증가에의 기여

— 문화향유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률은 2003년 62.4% 이후 꾸준히 증가해옴. 이러한 증가세에 통합문화이용권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²⁾.



자료: (2016년 문화향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³⁾)

[그림 2-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단위: %)

2) 통합문화이용권의 원년인 2014년 71.3%를 기준하여 2016년 78.3%로 가장 큰 폭으로 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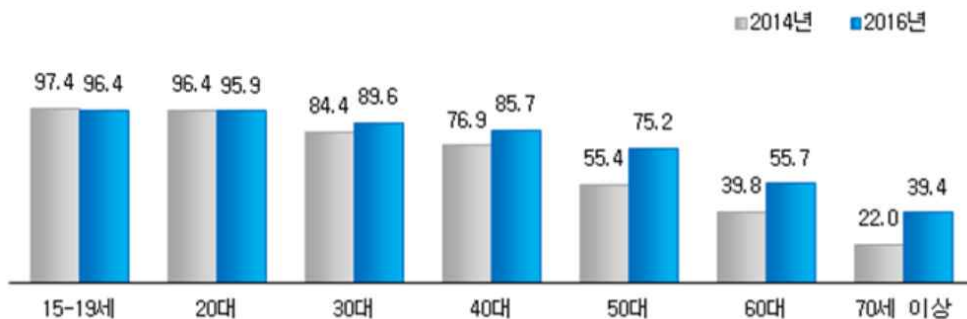
3) 조사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0,716명(1:1 가구 방문면접조사), 조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기간: 2016. 9월1일 ~11월11일

□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격차 완화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 증가함에 따라 문화격차 완화세
- 2008년 일반가구 평균과 비교하여 9배 차이, 2010년 4.5배 차이. 2012년 약 3배, 2014년 약 2.5배 차이로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줄어들고 있음(문화예술정책백서, 2014)

□ 연령별에 따른 문화격차 완화

- 2014년과 비교하여 2016년 50대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 15%, 60대 이상 15.9%, 70대 이상 17.4% 이상으로 상승. 연령별 격차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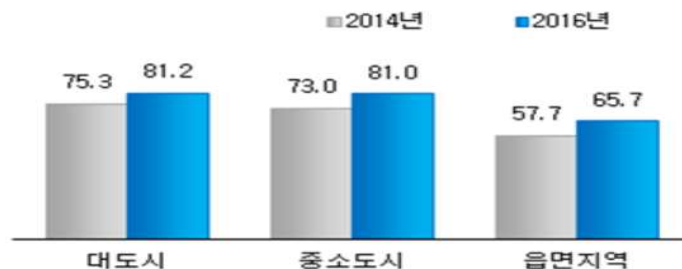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1.12.)

[그림 2-6]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단위: %)

□ 지역격차 완화

- 지역별 문화행사 관람률을 비교하면 2014년 대비 2016년 읍면지역 8%, 중소도시 8%, 대도시 5.9%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서 더 많은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지역격차의 완화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1.12.)

[그림 2-7] 지역별 문화행사 관람률 (단위: %)

(3) 기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014년, 2015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로 선정
 - －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선정)
 - － 대한민국 2015년 12대 문화예술 대표성과 (문화체육관광부)
 - －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예산 70선에 선정 (2014년 기획재정부)
 - － 복권기금 평가 (2013년~2015년도 3개년 연속 ‘우수’)

제3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체계 및 분석방법

1. 평가지표 설정의 기본방향
2. 2016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체계의 설정

1. 평가지표 설정의 기본 방향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평가지표는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효과성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되,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상위평가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설정하였음

1)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

-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평가지표체계는 2014년의 평가지표체계와 마찬가지로 사업목적(계획단계), 사업운영(집행단계), 사업성과 및 환류(성과 및 환류단계)로 구분되어 제안되었으나 사업의 특수성과 지표의 도전성을 감안한 보조지표들이 새로이 추가됨
 - 2014년의 평가지표체계는 통계적 평가(등급화, 점수화에 초점)보다는 컨설팅과 사업 개선을 위한 분석에 초점을 뒀 대부분의 지표가 비계량화로 구성되었는데, 2015년에는 계량적 지표들을 보조지표로써 도입하여 도전적 지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2014년 평가지표와 2015년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와 같음

<표 3-1> 2014년,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2014)	지표 유형	평가지표(2015)	지표 유형
사업 목적 (계 획)	1-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확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
	1-2. 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타당성 • 목표설정의 적절성	○ ○	• 성과지표의 타당성 • 목표설정의 적절성	○ ○
	1-3.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수혜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 • 재원 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 ○ ○	• 수혜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 • 재원 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 예산확보율(보)	○ ○ ○ ●
사업 운영 (집 행)	2-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수행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활용의 적절성	○ ○	• 사업수행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 활용의 적절성 • 사업관리 효율성(보)	○ ○ ●
	2-2.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 • 예산집행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이행노력	○/● ○/● ○/●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이행노력 • 예산집행률(보)	○ ○ ●
	2-3. 사업집행관리의 적절성 • 홍보활동의 적절성 •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의 적절성	○ ○	• 홍보활동의 적절성 •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의 적절성 • VOC반영률(보)	○ ○ ●
사업 성과 및 환류 (성 과 및 환 류)	3-1.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달성도 (이용자 수, 이용자만족도) • 사업효과 • 정책적 타당성 • 우수사례 발굴 노력	○/● ○/● ○/● ○/●	• 사업효과 • 정책적 타당성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성)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성) • 이용자 수(성) • 고객만족도(성) • 충성고객비율(성)	○ ○ ● ● ● ● ●
	3-2. 사업개선 노력도 • 모니터링 및 민원결과에의 사업반영 노력	○	• 모니터링 및 민원결과에의 사업 반영 노력 • 문화향유효과 (Case Management) • 문화향유지수(성)	○ ○ ●

주 1) ○는 비계량 지표, ●는 계량지표를 의미

2) 2015년 평가지표 중 (보)는 보조지표를, (성)은 성과지표를 의미

3) 2015년 평가지표 중 ‘문화향유지수(성)’은 신규 제안 지표

자료: 글로벌경영 연구소(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재구성

2) 복권기금사업 평가지표 체계

-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는 이용자들의 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가 시작되었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나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복권기금 지원 대상 사업들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음(오영민 · 전준오, 2016). 복권기금 성과평가제도는 복권기금을 이용한 사업들이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를 연차별로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사업의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복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는 계획 · 준비, 집행 · 관리, 성과 · 환류 3개 부문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표에 의해 평가된 세부사업의 평가지표별 점수는 종합하여 사업별로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됨
- －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지표 체계는 다음의 <표 3-2>와 같음

<표 3-2>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지표 체계(2015년)

부문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배점
계획 · 준비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5
	1-2. 성과지표가 해당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목표치가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1-3.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집행 · 관리	2-1.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는가?	10
	2-2.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효율적 ·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	10
	2-3. 사업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는 적절하게 가동되었는가?	10
성과 · 환류	3-1. 당초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였는가?	20
	3-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이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향상되었는가?	15
	3-3. 사업평가 결과와 외부지적사항 등을 정리 · 분석하고 환류 하였는가?	10
	3-4.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재고에 기여하였는가?	5

자료: 2015년도 복권기금 성과편람, 오영민 · 전준오(2016)

3)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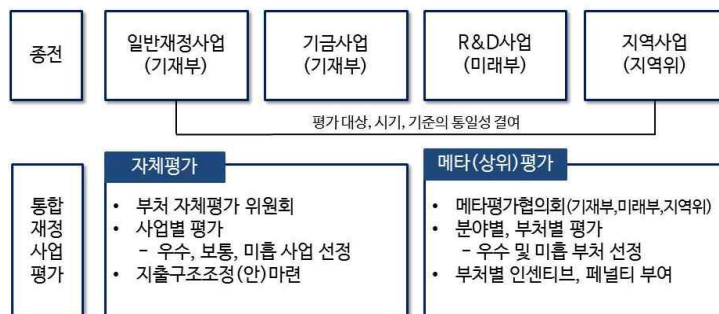
- 성과관리제도란 성과 관리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함.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로 나뉘어져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5)
- 2005년부터 시행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지표는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단계의 11문항이 활용됨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결과에 의해 사업 수행부처는 해당 사업의 성과제고 및 집행 관리를 위한 개선 대책 수립, 사업 통폐합 등의 구조개선 또는 제도 개선 대책 등의 노력을 요구 받게 되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이 부여됨
 -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의한 사업별 평가결과는 사업의 특성, 미흡의 원인 등을 감안하여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대책 등을 추진하게 됨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10%이상의 예산이 삭감됨.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미흡원인 등이 사업비 삭감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함
 - 기관별 평가결과는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으로 환류 됨. 우수부처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처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음 년도 미흡비율 하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며, 미흡 부처는 부처 기본경비 등 삭감, 다음 년도 미흡비율의 상향등의 불이익을 부여받게 됨(기획재정부, 2015)

<표 3-3>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2015년)

구분	평가지표		비고
계획	사업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 계획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관리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개선하고 있는가? 3-정보화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성과/환류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 하였는가?	

자료: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 기획재정부(2015)

-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별로 운영되던 재정사업평가를 단일평가로 통합하여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를 운영을 실시함(그림 3-1참조). 이는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평가 중복으로 인한 부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질적 개선을 위함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01.22.)

[그림 3-1] 통합재정사업평가

-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분야별로 메타(상위)평가가 실시되는 형태로 이뤄짐. 자체평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단, 2016년에는 50%만 평가) 선정한 후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형태의 평가이며 메타평가는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 조정 계획의 적절성 등을 상위기관(기재부 등의 평가부처)이 평가하는 형태임(<표 3-4>참조)

<표 3-4>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사항

	2015년	2016년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재정사업의 1/3(3년 주기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재정사업(1년 주기로 평가)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5단계로 등급화(매우우수~매우미흡)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로 평가(일반재정 기준) 일반재정, R&D, 지역발전사업 분야별 별도의 평가지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3단계로 등급화(우수, 보통, 미흡)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로 간소화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되, 특성화 지표를 활용
메타(상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재정, R&D, 지역발전사업 분야별로 분절적, 칸막이 평가 R&D, 지역발전사업의 경우, 사업별 확인·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메타(상위) 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실시
평가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재정, R&D, 지역사업의 각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실시 미흡 사업별 10% 예산삭감 우수 및 미흡부처에 대한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05.30.)

-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의 평가지표는 관리, 결과의 2단계 4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가점 문항이 추가로 존재함. 평가결과의 산출은 점수를 종합하여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등급화 됨. 평가결과는 부처단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안 마련을 통해 다음 년도 예산에 환류 됨

<표 3-5> 통합재정사업평가 평가지표(2016년 기준)

구분	평가지표	비고
관리	사업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 서비스 개선 성과	

자료: 2016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16)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지표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의 평가지표는 계획(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의 3단계 11개의 지표로 구성됨(<표 3-6>참조)

<표 3-6>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평가지표(2013년 기준)⁴⁾

구분	평가지표	비고
계획	사업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4-3. 우수사례평가	

4) 가장 최신의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보고서는 2014년 사업평가 보고서임. 이 보고서는 2015년 12월에 공개되었으나, 명시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질적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여기에서는 2013년 보고서에 담긴 평가지표를 기재하였음

2. 2016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체계의 설정

1)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지표체계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평가지표체계는 로직모델(Logic Model)을 활용한 이전 연구들의 평가지표체계를 존중하되 상위평가인 ‘복권기금 사업운영 평가’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제도’, ‘문화체육관광부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함
- 평가영역은 계획 단계, 사업의 운영(집행단계), 사업의 성과, 환류(성과 및 환류 단계)로의 4단계로 구분하고 9개의 평가지표 19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함(<표 3-7>참조). 평가결과는 전년도 사업평가와 마찬가지로 통제적 평가 보다는 컨설팅과 사업개선을 위한 분석에 초점을 맞춰 점수 및 등급을 산출하지 않음

<표 3-7>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비고
계획	사업 계획	1-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비계량
		1-2. 사업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 • 재원확보 및 투입의 적정성 	계량/비계량
	성과 계획	1-3. 성과계획(성과목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비계량
운영 (집행)		2-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활용의 적절성 	계량/비계량
		2-2.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이행노력 	계량/비계량
		2-3. 사업집행관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활동의 적절성 	계량/비계량
성과		3-1. 성과목표의 정성적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만족도 • 사업효과성 	비계량
		3-2. 성과목표의 정량적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타당성 • 경제적 파급효과 	계량
환류		3-3. 사업개선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및 민원결과의 사업 반영 노력 • 우수사례 발굴 노력 	계량/비계량

주 1) 평가지표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기술

2) 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기준

(1) 계획단계: 사업계획

1-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확성

□ 사업의 필요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적의 명확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와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었는가?

1-2. 사업내용의 적절성

□ 수혜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수혜대상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혜대상의 선정절차가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정되었는가?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수단)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 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절차 또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통한 지원의 수준이 사업목적 달성에 충분한 수준으로 설계 되었는가?

□ 재원확보 및 투입의 적정성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2) 계획단계: 성과계획

1-3. 성과계획(성과목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적절성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가 사업목적에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관계자들의 역량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가?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가 적절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설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가 과거의 성과를 근거로 선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는가?

(3) 사업의 운영(집행단계)

2-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수행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행주체의 선정이 사업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 졌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행주체의 선정이 투명한 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는가?

□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활용의 적절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행정적 전달체계(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관처-지방자치단체-이용자)와 사업실행전달체계(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관처-사업자 및 문화시설-이용자)가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가?
-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위한 내·외부 인력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가?
- 자원봉사활용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개선을 위한 인력의 교육 및 근무조건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2.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

□ 예산집행률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대비 집행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낭비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 사업이행노력

-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사업이 취소/중단/변경/축소된 근거는 타당한가?

2-3. 사업집행관리의 적절성

□ 홍보활동의 적절성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언론홍보 계획이 구비되어 있는가?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언론홍보가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
- 이용자들이 문화사업 관련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있는가?

(4) 사업성과 단계

3-1. 성과목표의 정성적 달성도

□ 이용자만족도

-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자는 본 사업에 얼마나 만족하였는가?

□ 사업효과성

-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행복감, 문화예술 참여,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자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우울, 외로움, 자살충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가?

3-2. 성과목표의 정량적 달성도

□ 정책적 타당성

- 통합문화이용권은 의도한 효과(성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률, 이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자 수가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수와 가맹 분야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였는가?

□ 경제적 파급효과

-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문화 향유를 위한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문화 향유를 위한 지출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5) 환류단계

3-3. 사업개선노력도

□ 모니터링 및 민원결과의 사업 반영 노력

- 모니터링 결과, 대내외 의견수렴 내용, 민원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민원이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VOC반영률)
-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최종 이용자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권고사항 및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우수사례 발굴 노력

- 우수사례를 개발, 발굴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우수사례를 개발,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표 3-8>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평가지표 및 세부 문항

구분	평가지표	비고
<div>사업 계획</div> <div>계 획</div> <div>성 과 계 획</div>	1-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적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와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었는가? 	비 계 량
	1-2. 사업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수혜대상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혜대상의 선정절차가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정되었는가?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수단)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 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절차 또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통한 지원의 수준이 사업목적 달성에 충분한 수준으로 설계되었는가? • 재원확보 및 투입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계 량 · 비 계 량
	1-3. 성과계획(성과목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가 사업목적에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관계자들의 역량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가?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가 적절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설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목표가 과거의 성과를 근거로 선정되었는가?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는가? 	비 계 량

<표 3-8>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평가지표 및 세부 문항(계속)

구분	평가지표	비고
운영 (집행)	2-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행주체의 선정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 졌는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행주체의 선정이 투명한 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는가?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활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행정적 전달체계(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관처-지방자치단체-이용자)와 사업실행전달체계(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관처-사업자 및 문화시설-이용자)가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가?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위한 내·외부 인력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가? 자원봉사활용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개선을 위한 인력의 교육 및 근무조건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량·비계량
	2-2.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집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대비 집행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예산집행상 낭비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사업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사업이 취소/중단/변경/축소된 근거는 타당한가? 	계량·비계량
	2-3. 사업집행관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활동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언론홍보 계획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언론홍보가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 이용자들이 문화사업 관련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있는가? 	계량·비계량

<표 3-8>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평가지표 및 세부 문항(계속)

구분	평가지표	비고
성과	3-1. 성과목표의 정성적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자는 본 사업에 얼마나 만족하였는가? 사업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행복감, 문화예술 참여,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자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우울, 외로움, 자살충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가? 	비 계 량
	3-2. 성과목표의 정량적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은 의도한 효과(성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률, 이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자 수가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수와 가맹 분야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였는가? 경제적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문화 향유를 위한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자의 문화 향유를 위한 지출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계 량
환류	3-3. 사업개선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및 민원결과와 사업 반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결과, 대내외 의견수렴 내용, 민원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민원이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VOC반영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최종이용자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권고사항 및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수사례 발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사례를 개발, 발굴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수사례를 개발,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계 량 · 비 계 량

제4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현황 분석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 및 집행률
2.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 및 추이 분석
3.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사용자 면접 분석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 및 집행률

1) 2016년 예산현황

□ 사업 총예산은 78,520백만 원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짐

(1) 재원(문화예술진흥기금)⁵⁾

- － 국비 55,270백만 원(카드 사업비 54,250백만 원, 운영비 1,020백만 원)
- － 지방비 23,250백만 원

(단위:백 만원)

사업비 총계	국비		지방비	
	문화예술 진흥기금	비중		비중
77,500	54,250	70	23,250	30

(2) 기능별

- － 사업비 77,500백만 원(국비 54,250, 지방비 23,250)
- － 운영비 1,020백만 원(국비 1,020백만 원)

2)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14년 예산	'15년 예산(A)	'16년 예산(B)	증감(B-A)	%
본예산	73,189	81,754	78,520	-3,234	△ 3.95
추경예산포함	-	96,754	-	-18,234	△ 18.85

주 1) 2015년의 본예산은 817억이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가 위축되자 추경예산(국비 105억과 지방매칭 45억 등 총159억)이 투입되었음

5)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모금이 폐지되면서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됨. 2015년의 기금은 복권기금, 경료경정수익전입, 민간출연금, 이자 및 기타로 조성됨. 2014년 조성 총액은 119,513백만 원이며, 이중 복권기금이 가장 많은 613,000(백만 원)임. 2014년 말 기준 적립액은 약 1,547억 원 임.(문화예술정책백서, 2014) 복권기금이 2016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전입되지 않아 재원의 안전성에 대해 이슈화됨

3) 분기별 집행현황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수립된 월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였음

구분	계(20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76.500	76.500	76.500	76.500	76.500-
집행	64.449	11.036	28.932	44.138	64.449-
잔액	12.051	65,464	47,568	32,362	12,051

※ 예산집행 기타 사항

- 문화누리카드는 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카드 집행 잔액이 남을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미사용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2.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 및 추이 분석

1) 분석개요

- 본 연구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연령별, 지역별, 지역 특성별, 월별 이용액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4년, 2015년, 2016년 3개 년도의 데이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공 받아 분석에 사용함
- 분석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 일반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 본 후 각 주제별 세부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 함
 - － 세부적으로 현황 일반분석에서는 생애주기별 이용액, 지역별 이용액, 장르별 이용액, 월별 이용액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세부 현황 분석에서는 생애주기별 이용액, 지역 특성별(도시/농산어촌) 이용액, 장르별 이용액, 계절별 이용액 추이를 살펴봄
 - － 기본적으로 분석은 2014년, 2015년, 2016년도 3개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지만 지역 특성별 이용액 추이는 2016년도의 데이터만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역 특성별 이용액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다른 사업 연도와 비교하는 것 보다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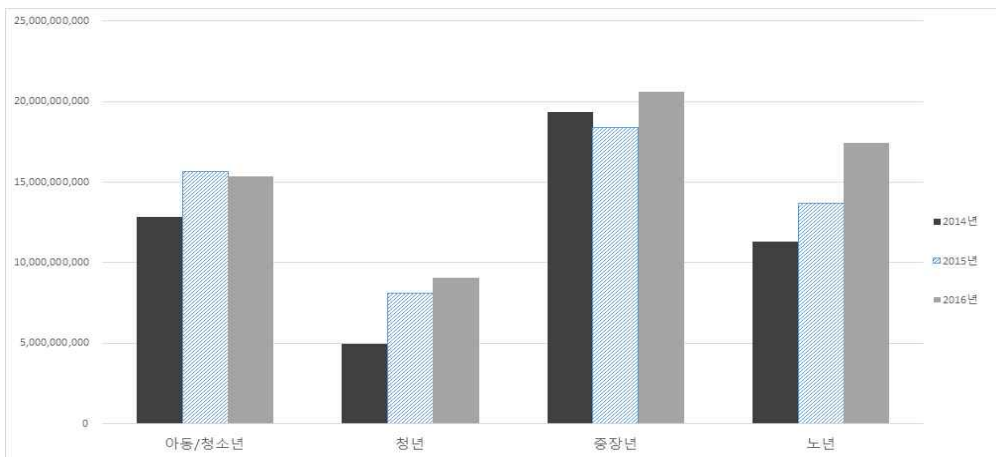
2) 현황 일반분석

- 생애주기별 이용액 현황
 - － 여기서 생애주기란 연령에 따라 겪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연령대의 집합을 말함. 생애주기는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은 10대 이하 연령층을 청년은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을, 중장년은 40대와 50대의 연령층을, 노년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포함함
 - － 생애주기별 이용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도 총 이용액은 49,790,813,880원 2015년 총 이용액은 60,858,918,759원, 2016년 총 이용액은 62,452,171,925원으로 나타남. 특히, 노년(65세 이상)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액 수의 증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졌는데 2014년 11,287,948,683원에서 2015년 13,692,082,217원,

2016년 17,431,637,945원으로 증가하였음

- 노년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 증가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노인 수혜자 증가 혹은 노인들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노년과 더불어 청년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청년은 2014년 4,955,251,480원, 2015년 8,100,605,429원, 2016년 9,083,410,335원으로 나타남
- 노년층과 달리 청년의 인구 증가세가 정체·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성공적 홍보 혹은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2014년	12,857,817,853	4,955,251,480	19,356,906,482	11,287,948,683
2015년	15,634,843,983	8,100,605,429	18,385,553,107	13,692,082,217
2016년	15,353,941,559	9,083,410,335	20,583,182,086	17,431,637,945

[그림 4-1] 연령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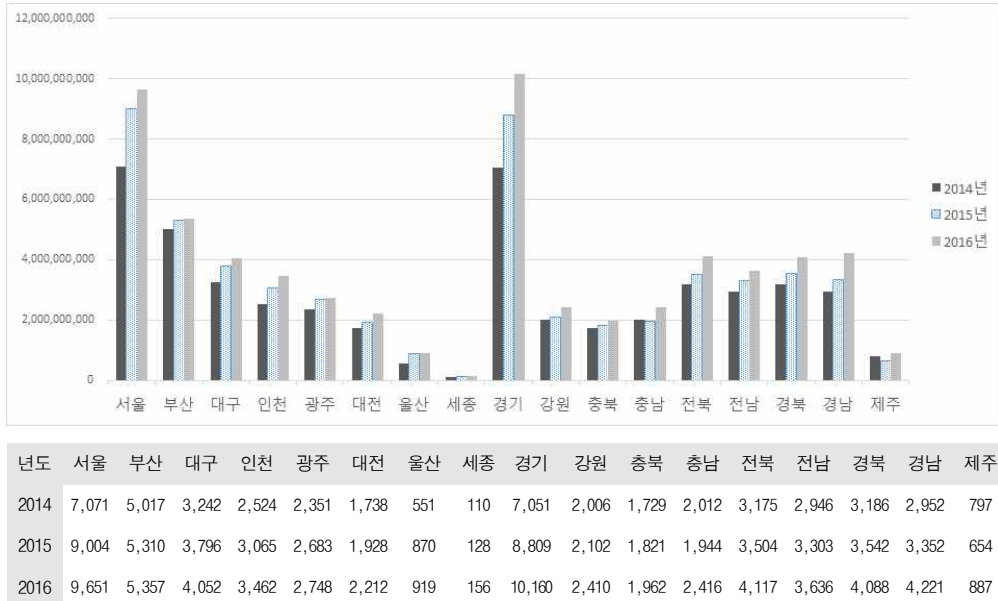
□ 지역별 이용액 현황

- 지역별 이용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경기 지역에서 소진 된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지역별 격차가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역별 성과는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정체 혹은 소폭 성장

(단위: 백만 원)



[그림 4-2]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 2016년도의 지역별 이용액 현황을 다시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1>와 같음. 2016년도 한 해 동안 도시 지역에서 사용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액은 56,313,129,103원이며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용된 금액은 8,135,595,630원임.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환경적 특성상 이용액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고 카드 발급 예산 대비 이용액을 살펴본 결과 농산어촌 지역의 이용률은 91%, 도시 지역의 이용률은 88.7%로 나타남. 농산어촌지역의 발급률이 도시지역보다 2% 낮음을 감안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은 높은 수준

<표 4-1> 도시/농산어촌별 이용액 현황(2016년)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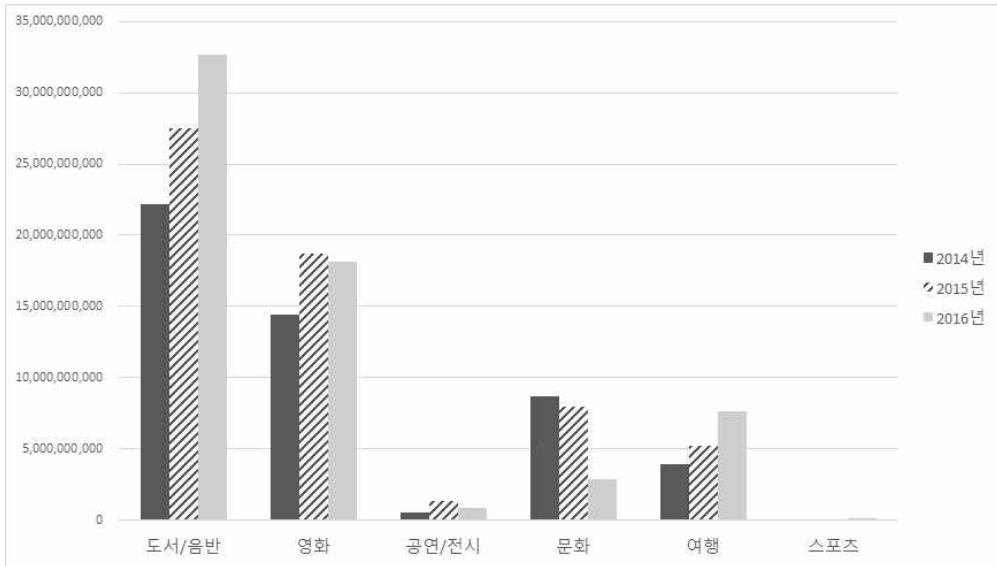
	도시	농산어촌
이용액	56,313,129,103	8,135,595,630
발급대비 이용률	88.7	91.0
발급률	94.9	92.8
예산대비 이용률	84.2	84.6

□ 장르별 이용액 현황

- 각 장르의 구분은 분석결과의 가독성을 위해 유사항목을 합산하여 추이를 살펴봄. 도서, 음반 구입을 한 장르(도서/음반)로, 영화를 한 장르(영화)로, 공연, 전시를 한 장르(공연/전시)로, 문화일반과 문화체험을 한 장르(문화)로, 철도, 고속버스, 항공 등을 한 장르(여행)로 스포츠를 한 장르로 14개의 장르를 6개로 압축하여 분석함
- 장르별 이용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3개년도 모두에서 도서/음반의 이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공연/전시, 스포츠 관람 등에서 이용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액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의 경우 2014년 2015년도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도에는 이용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의 경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⁶⁾

6) 통합문화이용권의 여행 장르에 대한 이용액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행에 포함되어 있는 철도 이용이 2014년 8월부터 가능해졌음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그림 4-3]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 월별 이용액 현황

- 3월, 8월, 12월의 이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각 해의 가장 많은 이용액을 기록한 달은 2014년 12월(67억), 2015년 3월(91억), 2016년 3월(95억)이었음
- 14년에서 16년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이용량이 많은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준편차: 14년 약 18억 → 16년 약 21억)

3) 세부 현황 분석

(1) 생애주기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 이용자의 개인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에 생애주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 각 집단의 구분은 10대 이하를 아동/청소년, 20대와 30대를 청년, 40대와 50대를 중장년, 60세 이상을 노년으로 구분함
- 생애주기별 이용액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 여기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지역별 이용액, 장르별 이용액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봄

①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생애주기별 이용액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 2014년 490억 → 2015년 600억 → 2016년 620억
-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4년에 아동/청소년은 3월에 통합문화이용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중장년, 노년층은 12월에 가장 많은 금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 아동/청소년의 3월 이용액 2,061,833,717원,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12월 이용액은 각각 648,141,270원, 2,662,939,736원, 1,997,763,087원
- 한편, 2015년도에 생애주기별로 통합문화이용권을 가장 많이 이용한 월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3월에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과 중장년은 2014년도와 달리 2015년도에는 3월에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역시 12월에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 2015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의 3월 이용액은 각 3,324,536,719원, 1,352,873,640원, 2,990,646,247원. 노년층의 12월 이용액은 2,269,977,816원
- 2016년도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은 3월에 가장 많은 금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12월에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 2016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의 3월 이용액은 각 3,020,677,290원,

1,463,459,750원, 3,131,994,028원. 노년층의 12월 이용액은 3,057,769,160원

-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은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이용액은 2월과 4월을 제외한 전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장년층의 이용액 역시 2월과 4월을 제외한 전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의 이용액은 2월을 제외한 전월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 2015년 대비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월별 이용액의 증감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2월	-207,167,204	-51,163,399	-179,737,734	-13,752,009
3월	-303,859,429	110,586,110	141,347,781	482,327,782
4월	-275,673,106	-18,828,464	-41,356,089	191,704,917
5월	-240,455,714	18,553,519	24,558,048	239,410,773
6월	91,686,557	153,740,090	339,951,021	395,369,724
7월	129,664,828	155,692,300	318,697,593	281,977,694
8월	87,364,882	89,138,214	245,758,475	343,036,598
9월	-50,365,925	9,205,201	66,704,409	258,669,690
10월	79,471,819	94,399,198	176,700,997	321,012,368
11월	97,760,123	87,975,241	217,487,737	452,006,847
12월	310,670,745	333,506,896	887,516,741	787,791,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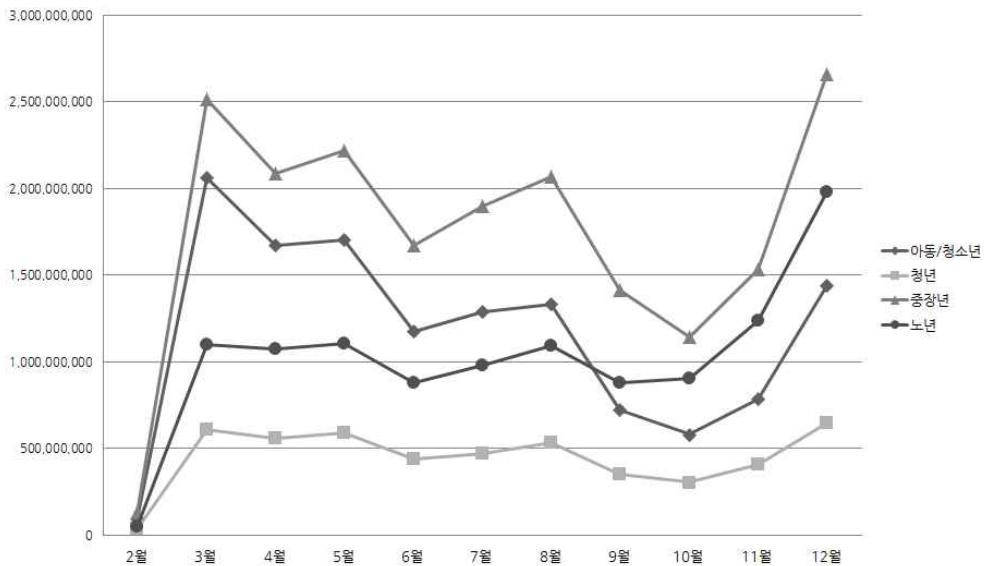
주 1) 표 안의 값은 2016년도 해당 월의 이용액-2015년도 해당 월의 이용액 값임

- 전체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은 M자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청소년과 노년층 간에는 이용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노년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이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3월의 이용액보다 12월 이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3월 이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점차 이용액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임
 - 이는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생애주기별로 계절에 따라 느끼는 통합문화이용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시사

- 가령 청소년의 경우 초기 이용권사업 홍보시점에 일시적으로 이용권을 소모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 연말 이용권의 이용권유 통보를 받고 연말에 사용하거나 비축 후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의 경우 3월 신학기에 맞춰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하는 한편 노인의 경우 사업의 마감을 앞두고 사업 주관처 등의 사용 독려 등에 반응하는 ‘마감효과’의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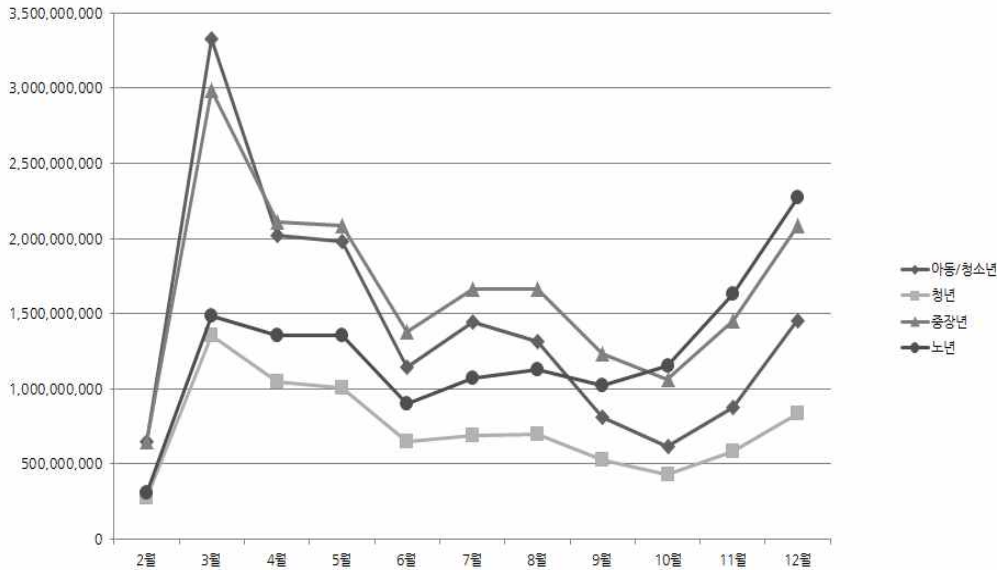
(단위: 천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2월	91,922,490	39,874,360	133,884,424	52,502,260
3월	2,061,833,717	608,494,778	2,513,805,232	1,100,527,938
4월	1,671,227,063	557,923,350	2,086,142,526	1,075,395,701
5월	1,706,613,115	589,455,558	2,216,811,041	1,106,266,733
6월	1,176,299,562	437,484,540	1,672,941,545	877,189,636
7월	1,288,030,152	471,975,125	1,900,045,610	977,912,200
8월	1,330,229,982	536,886,738	2,070,886,146	1,094,339,476
9월	725,089,837	352,999,824	1,416,002,798	877,564,494
10월	581,218,853	304,290,792	1,146,941,058	907,465,969
11월	782,578,956	407,725,145	1,536,506,366	1,241,021,189
12월	1,442,774,126	648,141,270	2,662,939,736	1,977,763,087

[그림 4-3]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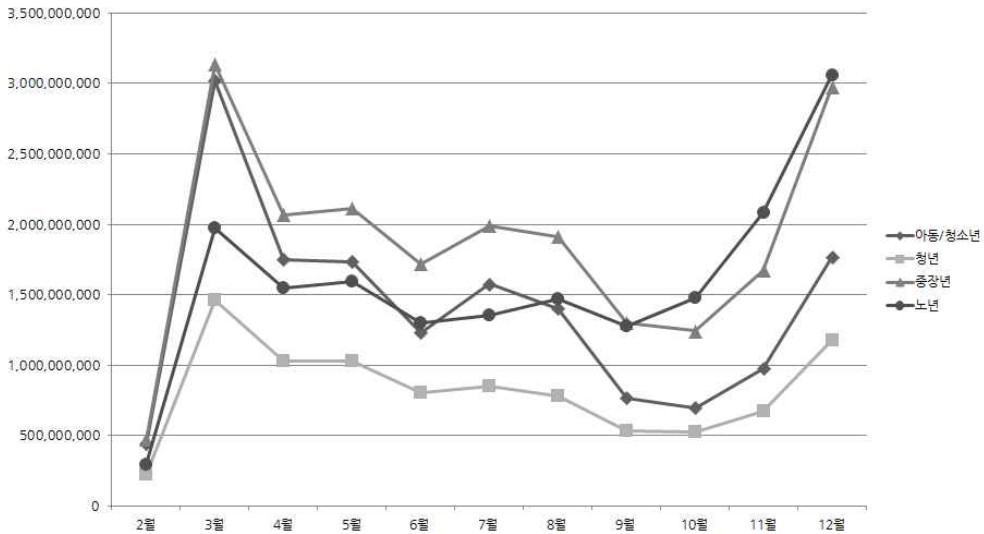
(단위: 천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2월	647,649,289	277,144,425	649,185,080	310,150,169
3월	3,324,536,719	1,352,873,640	2,990,646,247	1,487,815,716
4월	2,021,841,959	1,048,002,586	2,110,811,529	1,355,026,929
5월	1,977,392,197	1,009,339,651	2,086,250,289	1,356,051,661
6월	1,141,138,743	650,511,503	1,376,588,026	903,452,116
7월	1,444,924,409	691,051,958	1,666,960,501	1,073,546,484
8월	1,316,352,641	694,864,438	1,666,541,949	1,130,305,259
9월	811,763,722	525,397,693	1,233,200,458	1,020,829,907
10월	615,603,733	428,344,996	1,064,835,869	1,155,587,794
11월	876,489,160	583,245,432	1,453,598,902	1,629,338,366
12월	1,457,151,411	839,829,107	2,086,934,257	2,269,977,816

[그림 4-5]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현황(2015년)

(단위: 천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2월	440,482,085	225,981,026	469,447,346	296,398,160
3월	3,020,677,290	1,463,459,750	3,131,994,028	1,970,143,498
4월	1,746,168,853	1,029,174,122	2,069,455,440	1,546,731,846
5월	1,736,936,483	1,027,893,170	2,110,808,337	1,595,462,434
6월	1,232,825,300	804,251,593	1,716,539,047	1,298,821,840
7월	1,574,589,237	846,744,258	1,985,658,094	1,355,524,178
8월	1,403,717,523	784,002,652	1,912,300,424	1,473,341,857
9월	761,397,797	534,602,894	1,299,904,867	1,279,499,597
10월	695,075,552	522,744,194	1,241,536,866	1,476,600,162
11월	974,249,283	671,220,673	1,671,086,639	2,081,345,213
12월	1,767,822,156	1,173,336,003	2,974,450,998	3,057,769,160

[그림 4-6]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현황(2016년)



[그림 4-7] 생애주기에 따른 월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②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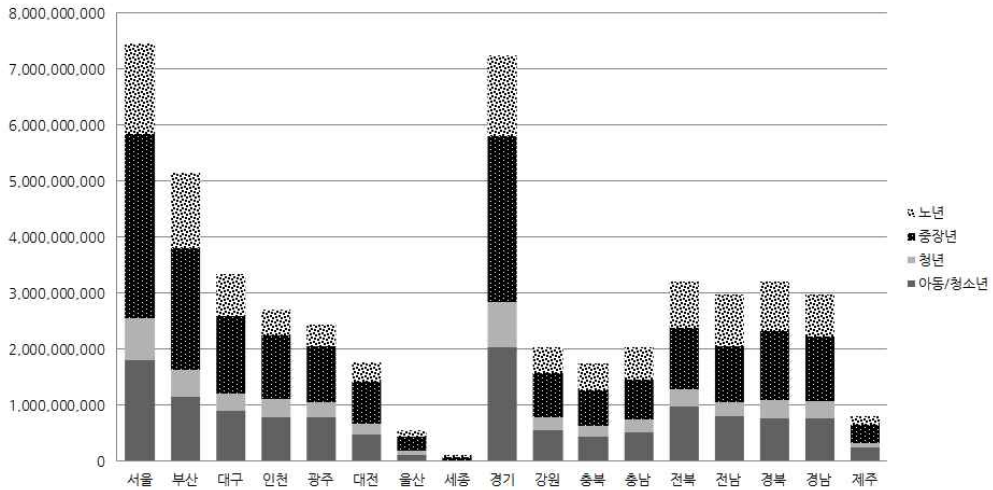
-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3개년도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시사
- 생애주기별 지역 이용액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이용액이 많은 지역은 2014년도 경기, 서울, 부산, 전북, 대구 순에서 2015년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전북 2016년도 경기, 서울, 부산, 전북, 경남, 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이용액이 많은 지역은 2014년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경북 2015년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2016년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중장년층의 이용액이 많은 지역은 2014년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 2015년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2016년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순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의 이용액이 많은 지역은 2014년도 서울, 경기, 부산, 전남, 경북 2015년도 서울, 경기, 부산, 전남, 경북 2016년도 서울, 경기, 부산, 경북, 전남 순으로 나타남
 - － 생애주기별 지역 이용액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청년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은 주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의 광역시에서 이뤄지고 있고 중장년층, 노년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은 광역시 뿐 아니라 경북, 경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생애주기별로 사용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역별 이용액은 아동/청소년층의 경우 세종, 충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 부산 지역에서의 이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부산, 광주 지역에서의 이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2015년 대비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역별 이용액의 증감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울	-312,651,228	7,819,997	10,552,211	142,908,485
부산	-212,181,110	-30,696,121	-100,768,664	-48,855,964
대구	-151,751,662	9,449,673	26,465,292	17,376,755
인천	-59,263,972	38,794,524	74,559,709	59,224,283
광주	-138,526,176	10,747,106	-14,193,708	-7,335,477
대전	-39,810,405	20,184,754	55,209,938	74,703,297
울산	-10,016,620	8,171,882	18,680,958	3,446,412
세종	4,207,991	3,949,092	8,520,185	8,075,510
경기	-15,959,712	177,667,321	419,683,967	424,055,533
강원	-50,278,326	17,571,692	46,987,890	135,344,543
충북	-44,131,098	15,451,040	37,784,287	79,997,092
충남	11,462,384	46,735,001	111,782,364	215,400,631
전북	-36,975,693	73,885,787	144,711,313	236,783,177
전남	-66,264,235	11,107,402	28,510,423	130,567,282
경북	-43,738,068	41,894,243	131,455,497	317,451,004
경남	48,828,938	69,117,770	193,992,357	235,550,524
제주	36,493,534	34,326,367	63,972,353	66,494,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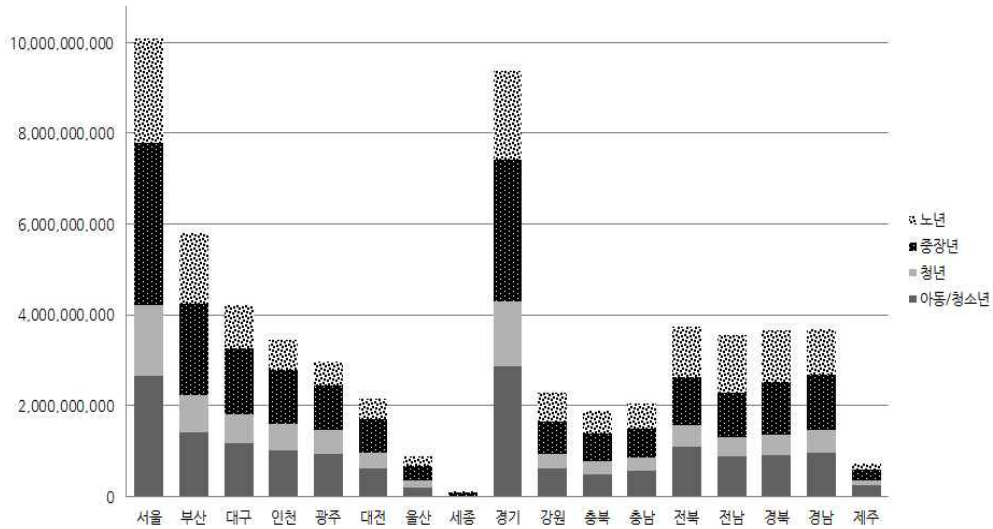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울	1,812,397,129	744,451,323	3,285,513,619	1,625,511,428
부산	1,150,375,217	478,955,007	2,167,987,042	1,350,399,554
대구	900,253,247	307,090,982	1,389,593,852	747,466,646
인천	787,438,407	323,328,164	1,129,531,965	473,803,745
광주	788,067,554	260,473,808	1,011,385,179	377,347,214
대전	486,639,699	179,550,648	753,079,162	344,828,157
울산	118,775,755	74,411,371	241,420,664	118,300,974
세종	26,709,390	12,572,540	41,004,505	31,730,690
경기	2,036,494,433	816,332,835	2,947,192,054	1,458,139,401
강원	563,085,257	213,723,166	788,138,973	468,689,773
충북	431,598,696	194,263,972	632,370,765	489,635,719
충남	515,831,189	224,774,468	723,314,612	564,520,278
전북	986,872,998	305,730,606	1,087,988,022	835,465,451
전남	797,096,887	266,911,870	988,411,762	925,926,819
경북	765,323,840	320,723,630	1,231,045,510	891,102,873
경남	766,825,565	300,847,574	1,168,734,358	739,043,516
제주	252,150,162	77,888,938	315,175,119	159,048,152

[그림 4-8]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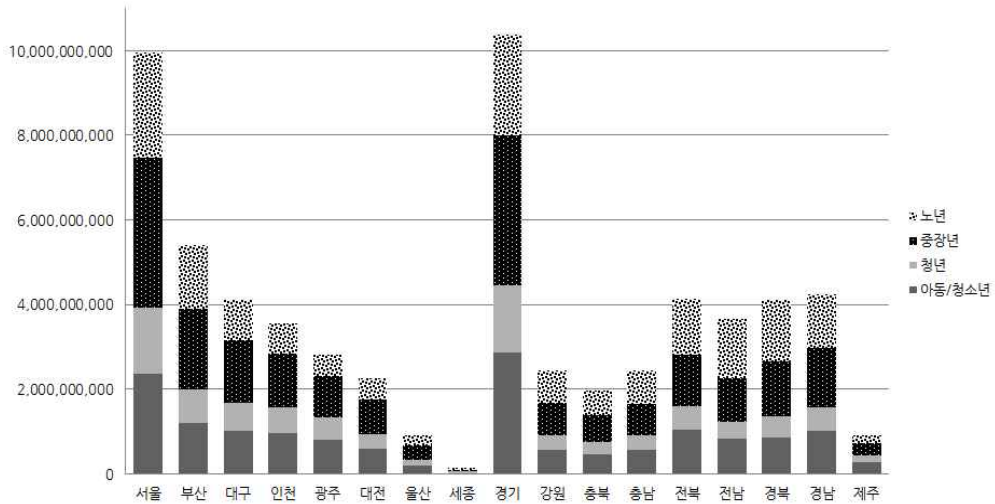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울	2,679,108,754	1,559,211,483	3,547,538,302	2,321,491,782
부산	1,425,591,754	823,307,850	1,992,529,295	1,581,611,053
대구	1,185,143,824	635,377,595	1,466,023,442	946,819,104
인천	1,038,228,416	563,463,548	1,194,483,487	668,878,743
광주	952,866,081	521,348,795	981,470,367	522,920,599
대전	631,392,741	348,088,329	744,418,439	427,721,657
울산	217,062,001	135,594,249	324,805,435	224,030,751
세종	35,742,644	20,492,246	40,651,962	38,162,930
경기	2,887,695,724	1,421,312,141	3,129,357,987	1,939,250,670
강원	634,147,272	313,400,634	722,627,413	633,929,674
충북	510,693,831	278,341,296	599,371,089	511,406,178
충남	569,419,755	287,001,036	639,243,248	563,619,907
전북	1,099,817,333	481,115,704	1,065,866,057	1,095,303,960
전남	906,999,387	398,614,143	984,534,921	1,269,970,700
경북	910,189,113	465,931,504	1,160,327,946	1,148,341,111
경남	986,989,893	485,108,118	1,209,554,355	1,024,236,487
제주	262,021,017	102,515,148	235,971,004	129,115,345

[그림 4-9]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5년)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울	2,366,457,526	1,567,031,480	3,558,090,513	2,464,400,267
부산	1,213,410,644	792,611,729	1,891,760,631	1,532,755,089
대구	1,033,392,162	644,827,268	1,492,488,734	964,195,859
인천	978,964,444	602,258,072	1,269,043,196	728,103,026
광주	814,339,905	532,095,901	967,276,659	515,585,122
대전	591,582,336	368,273,083	799,628,377	502,424,954
울산	207,045,381	143,766,131	343,486,393	227,477,163
세종	39,950,635	24,441,338	49,172,147	46,238,440
경기	2,871,736,012	1,598,979,462	3,549,041,954	2,363,306,203
강원	583,868,946	330,972,326	769,615,303	769,274,217
충북	466,562,733	293,792,336	637,155,376	591,403,270
충남	580,882,139	333,736,037	751,025,612	779,020,538
전북	1,062,841,640	555,001,491	1,210,577,370	1,332,087,137
전남	840,735,152	409,721,545	1,013,045,344	1,400,537,982
경북	866,451,045	507,825,747	1,291,783,443	1,465,792,115
경남	1,035,818,831	554,225,888	1,403,546,712	1,259,787,011
제주	298,514,551	136,841,515	299,943,357	195,609,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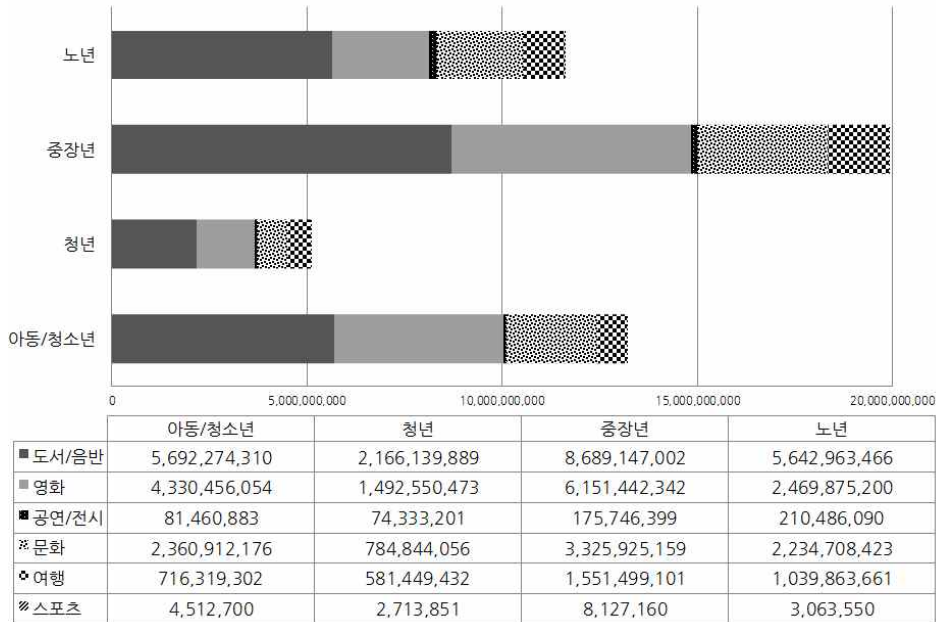
[그림 4-10]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현황(2016년)

③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도서/음반, 영화 관람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6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전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의 약 50%를 도서/음반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합문화이용권 전체 이용액 대비 도서/음반 구입비율: 아동/청소년 53.6%, 청년 47%, 중장년 51.3%, 노년 53.1%
- 한편, 문화의 경우 2014년도에는 전 연령층에서 이용액이 도서/음반, 영화 관람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도에는 도서/음반, 영화 관람, 여행 순으로 이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문화 이용액 변화: 2,360,912,176원 → 2,155,405,970원 → 505,301,429원
 - 청년의 문화 이용액 변화: 784,844,056원 → 968,663,530원 → 434,514,544원
 - 중장년의 문화 이용액 변화: 3,325,925,159원 → 2,530,320,650원 → 992,186,445원
 - 노년의 문화 이용액 변화: 2,234,708,423원 → 2,342,576,297원 → 1,510,481,288원
 - 아동/청소년의 여행 이용액 변화: 716,319,302원 → 898,445,696원 → 1,048,645,446원
 - 청년의 여행 이용액 변화: 581,449,432원 → 806,458,098원 → 1,064,919,719원
 - 중장년의 여행 이용액 변화: 1,551,499,101원 → 1,730,512,882원 → 2,323,651,880원
 - 노년의 여행 이용액 변화: 1,039,863,661원 → 1,825,616,729원 → 2,749,641,42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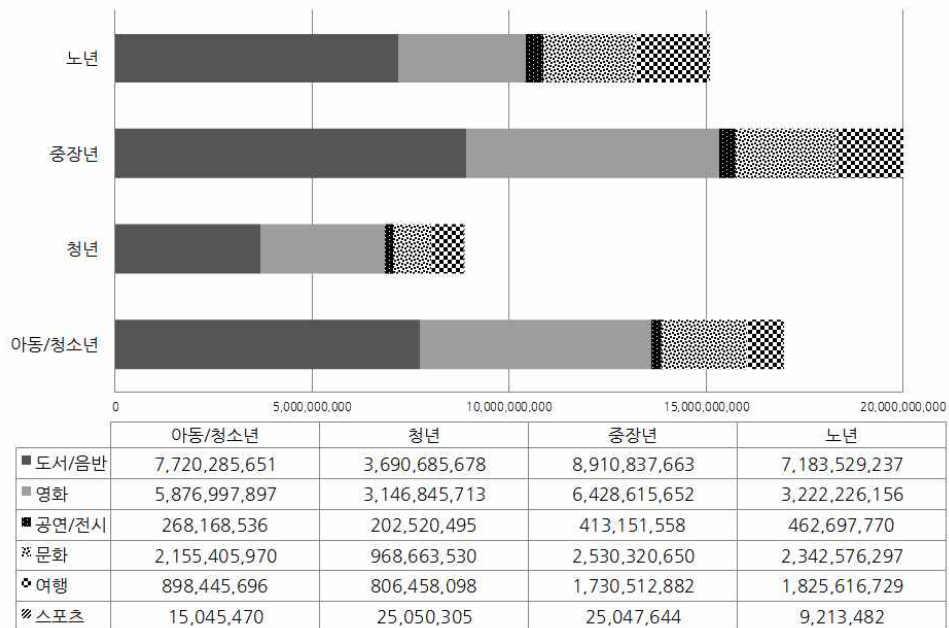
7)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르에는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저, 스포츠의 14가지 장르가 있음. 본 연구는 장르별 이용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유사 장르를 통합하여 도서/음반, 영화, 공연/전시, 문화(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저), 스포츠의 6가지로 일부 장르를 통합하여 분석함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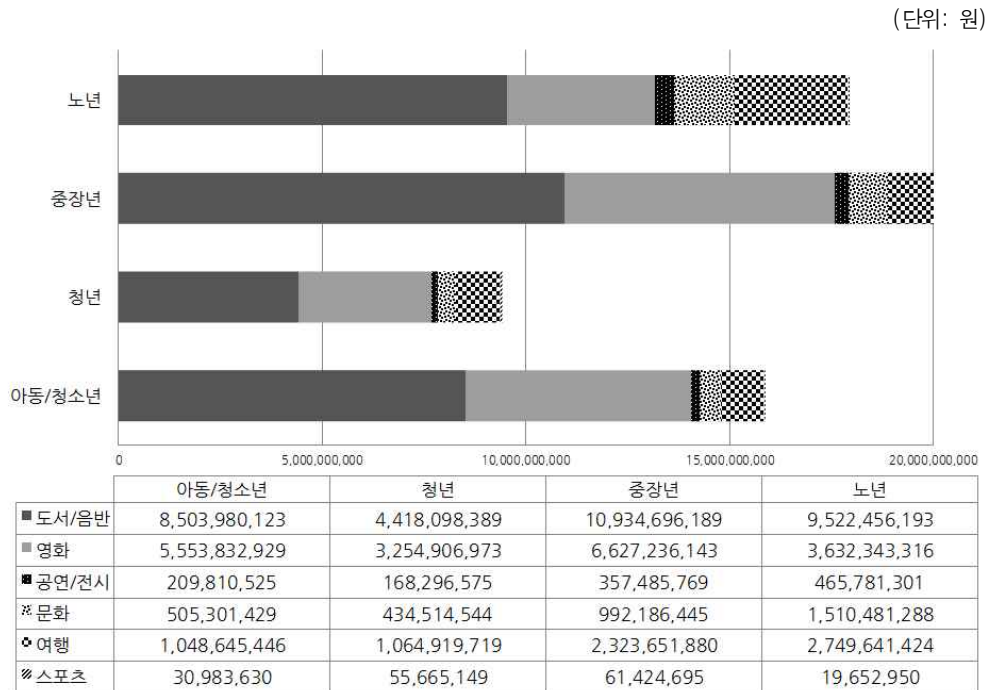


[그림 4-11]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4년)

(단위: 원)



[그림 4-12]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5년)



[그림 4-13] 생애주기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6년)

(2) 지역 특성별 이용액 추이(2016년 2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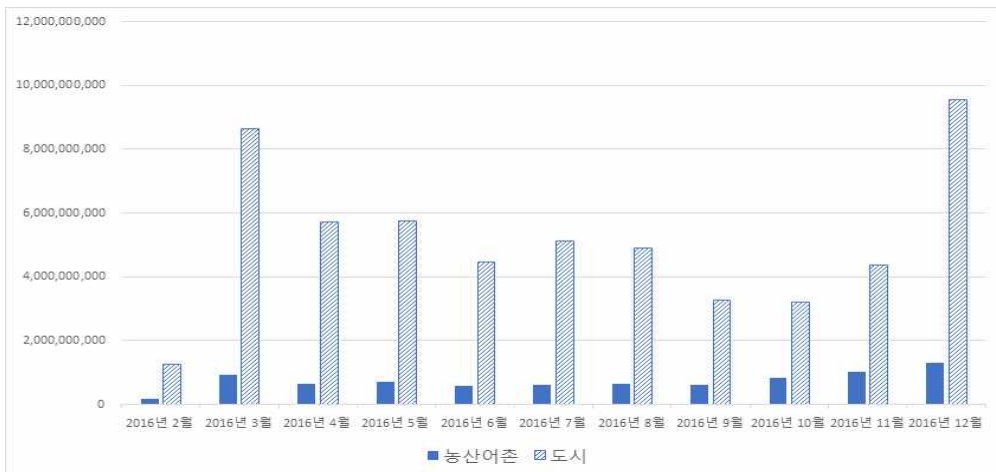
- 도시/농산어촌의 이용액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특성별 이용액 추이를 분석함. 각 집단의 구분은 2016년 기준 시/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농산어촌으로 분류하여 정리함

① 지역 특성에 따른 월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분석결과 농산어촌과 도시 간 이용액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를 각 달에 이용한 이용액 비율로 다시 그래프를 그려 연간 이용량의 특성을 분석함
- 가장 이용률이 높았던 달은 12월로 도시의 경우는 95억 원 가량이 이용되었고, 농산어촌은 약 13억 원이 이용됨. 다음으로 이용액이 많았던 시기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도시는 3월(86억), 농산어촌은 11월(10억)로 나타남
- 또한 농산어촌은 도시보다 매 월별 이용액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르게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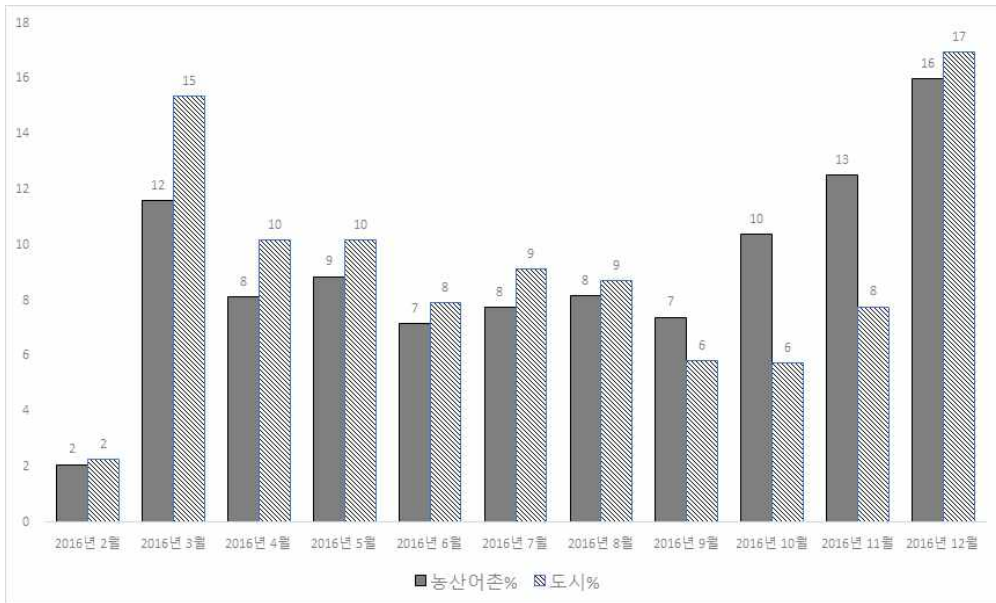
-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농산어촌이 발급률 대비 이용률, 한 해의 이용에 분포 등의 측면에서 도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더해 도시의 문화이용권 이용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용실적이 분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단위: 원, %)

	도시	농산어촌
2월	1,269,181,127	168,723,928
3월	8,653,685,912	944,552,220
4월	5,727,458,039	659,761,796
5월	5,738,767,887	720,735,406
6월	4,466,970,743	582,177,552
7월	5,131,458,318	630,279,295
8월	4,907,490,536	663,596,957
9월	3,271,607,384	601,277,724
10월	3,221,197,796	843,624,163
11월	4,375,963,266	1,019,210,784
12월	9,549,348,095	1,301,655,805
계	56,313,129,103	8,135,595,630

[그림 4-14] 2016년 도시/농산어촌의 월별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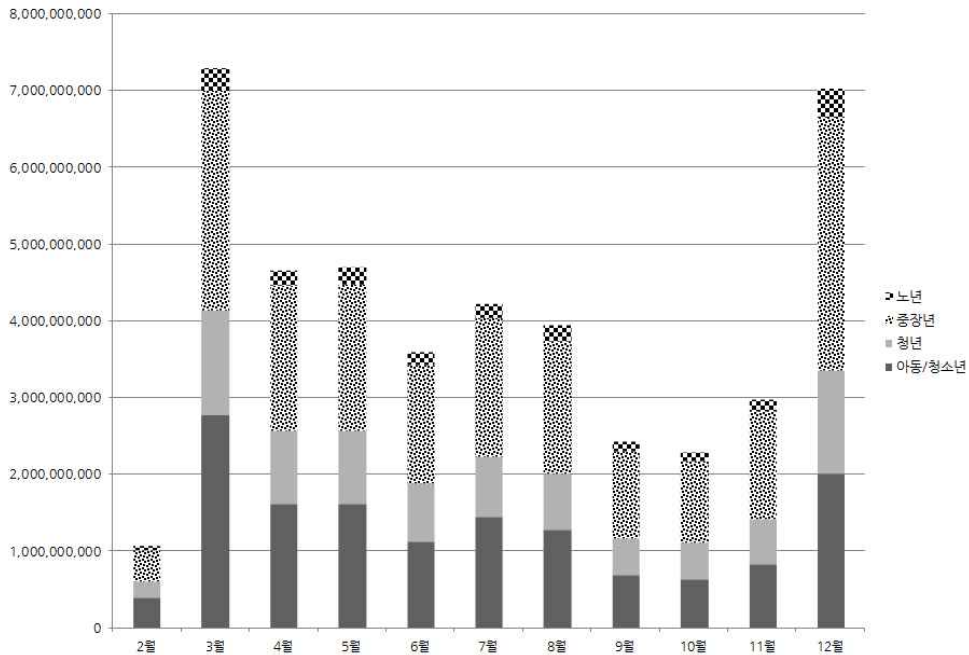


[그림 4-15] 2016년 도시/농산어촌의 월별 이용액 비율

② 지역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월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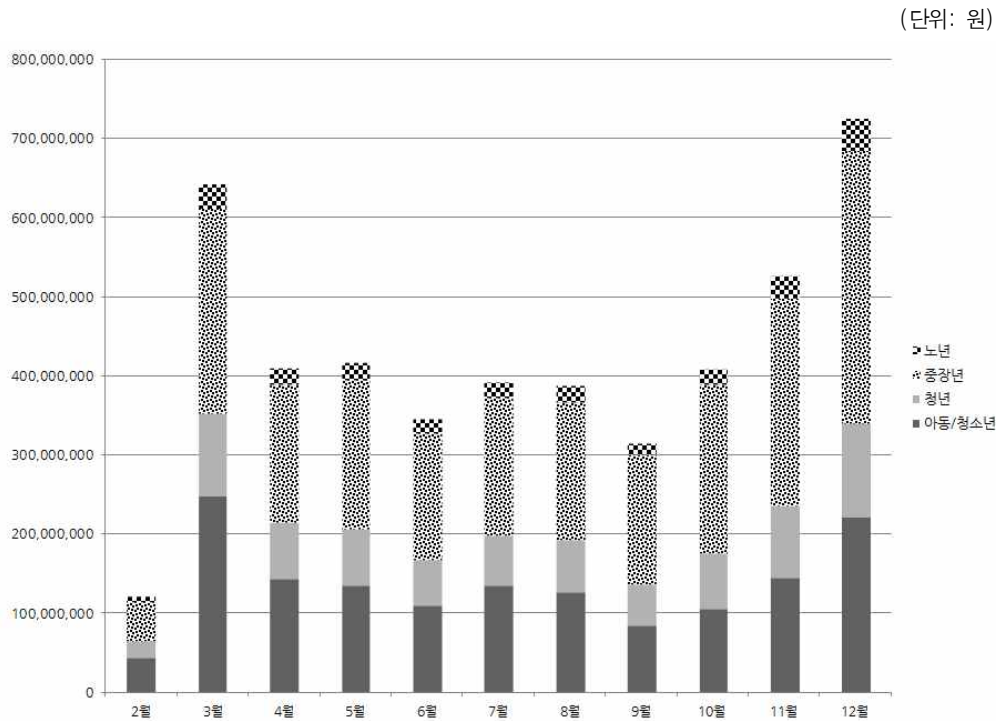
- 지역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월 이용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의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층은 3월, 4월, 5월, 12월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산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3월, 4월, 11월, 12월 농산어촌 지역의 청년은 3월, 5월, 11월, 12월 농산어촌 지역의 중장년은 3월, 10월, 11월, 12월에 농산어촌 지역의 노년층은 3월, 5월, 11월, 12월에 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지역과 달리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가 존재하여 해당 기간에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이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5월에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이 도시 지역보다 높은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의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2월	392,276,280	204,519,466	415,574,963	51,878,870
3월	2,772,644,726	1,359,587,552	2,872,775,546	295,157,069
4월	1,602,891,709	958,386,376	1,894,865,834	196,877,030
5월	1,603,138,771	956,170,705	1,921,581,971	221,931,325
6월	1,124,463,450	745,645,883	1,556,126,031	159,988,456
7월	1,440,466,633	783,843,839	1,810,407,407	193,581,607
8월	1,277,475,978	718,641,222	1,735,866,904	210,246,870
9월	677,771,472	481,794,654	1,136,342,573	124,056,122
10월	633,216,000	471,545,403	1,072,734,787	112,151,319
11월	829,824,665	580,563,240	1,407,877,249	155,551,771
12월	2,002,516,508	1,349,276,043	3,298,248,660	382,038,896

[그림 4-16] 2016년 도시지역 생애주기별 월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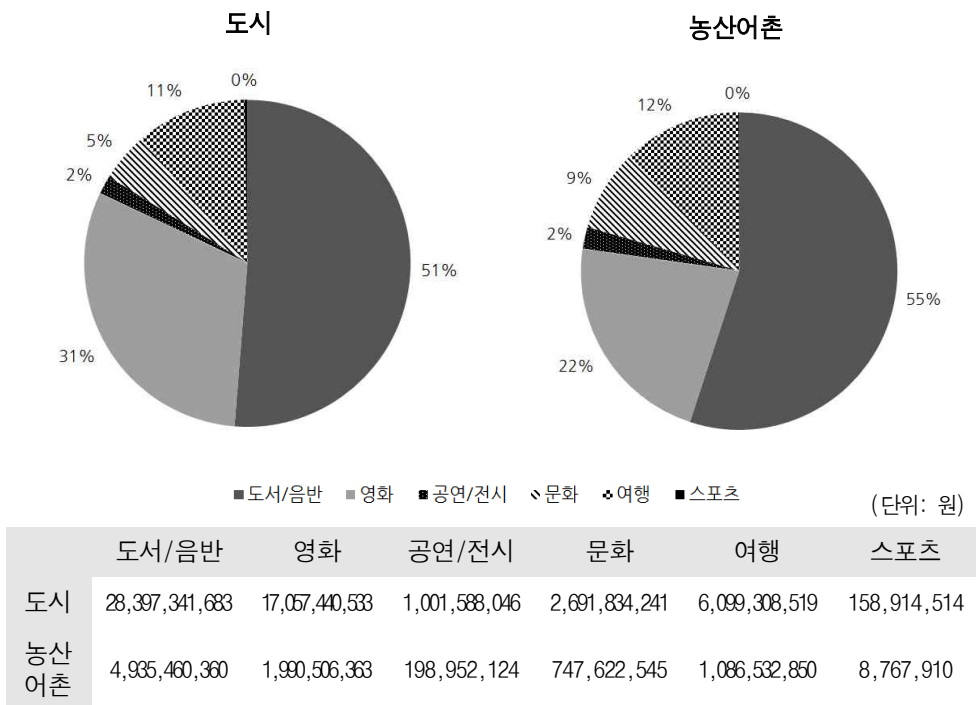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농산 어촌	2월	43,646,765	19,920,600	49,698,773	6,451,220
	3월	248,224,544	103,902,188	259,174,822	32,066,205
	4월	143,241,944	70,584,991	174,584,806	20,687,170
	5월	133,782,112	71,685,965	189,325,366	22,378,300
	6월	108,354,650	58,626,510	160,396,426	17,002,580
	7월	134,238,554	62,911,999	175,166,587	19,286,570
	8월	126,058,445	65,182,930	175,431,750	20,558,900
	9월	83,695,125	52,670,770	163,451,694	14,715,790
	10월	104,326,652	70,948,156	213,468,664	19,115,440
	11월	144,408,218	90,554,843	263,156,690	28,054,550
	12월	221,321,641	117,895,834	346,239,008	40,659,835

[그림 4-17] 2016년 농산어촌지역 생애주기별 월 이용액

③ 지역 특성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지역 특성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와 농산어촌 모두 도서/음반, 영화, 여행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도서/음반 구입의 비중이 도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도시의 경우 도서/음반 구입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비중이 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55%가 도서/음반의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농산어촌 지역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의 대부분이 도서/음반 구입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해당 지역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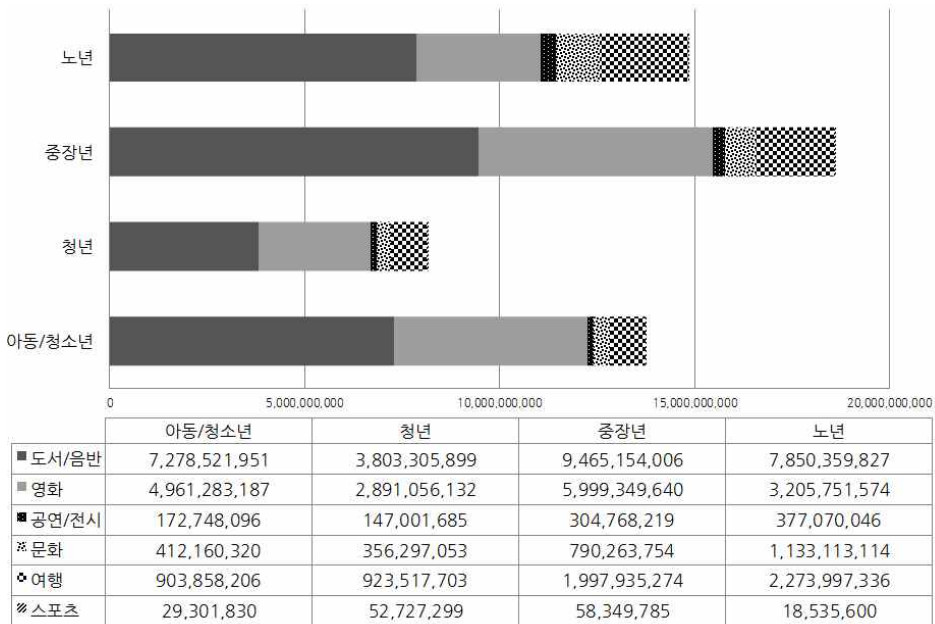


[그림 4-18] 지역 특성에 따른 장르별 이용 현황

④ 지역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장르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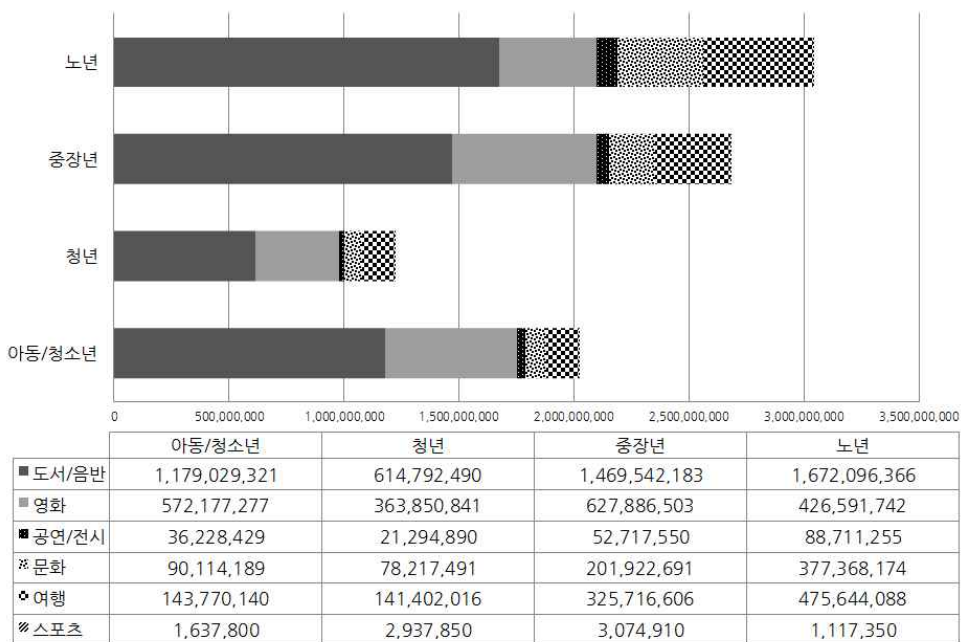
- 지역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장르 이용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통합문화이용권을 도서/음반 구입에 52.90%, 영화 관람에 36.06%, 공연/전시에 1.26%, 문화에 3.0%, 여행에 6.57%, 스포츠에 0.21%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산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도서/음반 구입에 58.28%, 영화 관람에 28.28%, 공연/전시에 1.79%, 문화에 4.45%, 여행에 7.11%, 스포츠에 0.08%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지역 청년은 도서/음반 구입에 46.53%, 영화 관람에 35.37%, 공연/전시에 1.80%, 문화에 4.36%, 여행에 11.30%, 스포츠에 0.65% 농산어촌 지역 청년은 도서/음반 구입에 50.29%, 영화 관람에 29.76%, 공연/전시에 1.74%, 문화에 6.40%, 여행에 11.57%, 스포츠에 0.24%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시 지역 중장년층은 도서/음반 구입에 50.84%, 영화 관람에 32.23%, 공연/전시에 1.64%, 문화에 4.25%, 여행에 10.73%, 스포츠에 0.31%를 농산어촌 지역 중장년층은 도서/음반 구입에 54.82%, 영화에 23.42%, 공연/전시에 1.97%, 문화에 7.53%, 여행에 12.15%, 스포츠에 0.1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지역 노년층은 도서/음반 구입에 52.83%, 영화에 21.57%, 공연/전시에 2.54%, 문화에 7.63%, 여행에 15.30%, 스포츠에 0.12%를 농산어촌지역 노년층은 도서/음반에 54.98%, 영화에 14.03%, 공연/전시에 2.92%, 문화에 12.41%, 여행에 15.64%, 스포츠에 0.04%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인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에서 도서/음반 구입과 영화 관람의 비중이 높으나 특히 농산어촌지역 노년층의 경우 도시지역 노년층 보다 문화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화 관람의 경우 도시와 농산어촌 모두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산어촌 보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영화 관람에 사용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도시 지역에서 전 연령층이 스포츠에 사용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이 농산어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금액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 더 용이함이 확인 됨

(단위: 원)



[그림 4-19] 2016년 도시지역 생애주기별 장르 이용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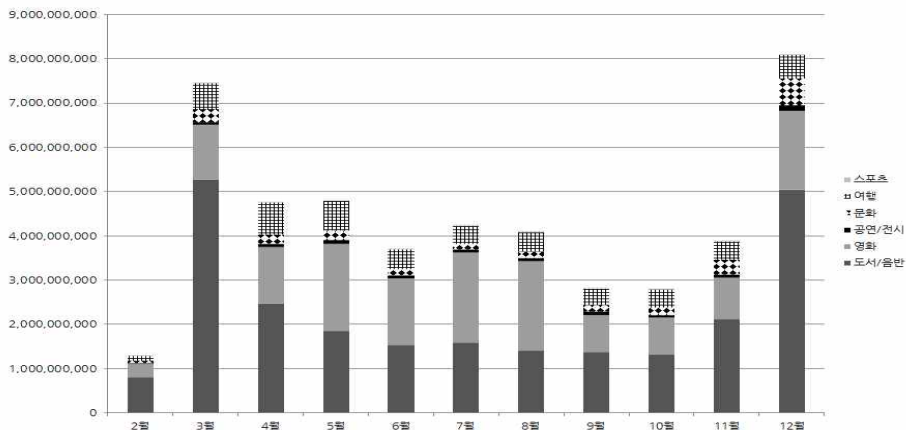


[그림 4-20] 2016년 농산어촌지역 생애주기별 장르 이용액

⑤ 지역 특성에 따른 월별 장르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지역 특성에 따른 월별 장르 이용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에서 도서/음반 이용 비율은 주로 3월과 12월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어촌지역에서 도서/음반의 이용 비율은 월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화 관람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5월, 7월, 8월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7월, 8월 10월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5월에 공연/전시 이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11월, 12월 순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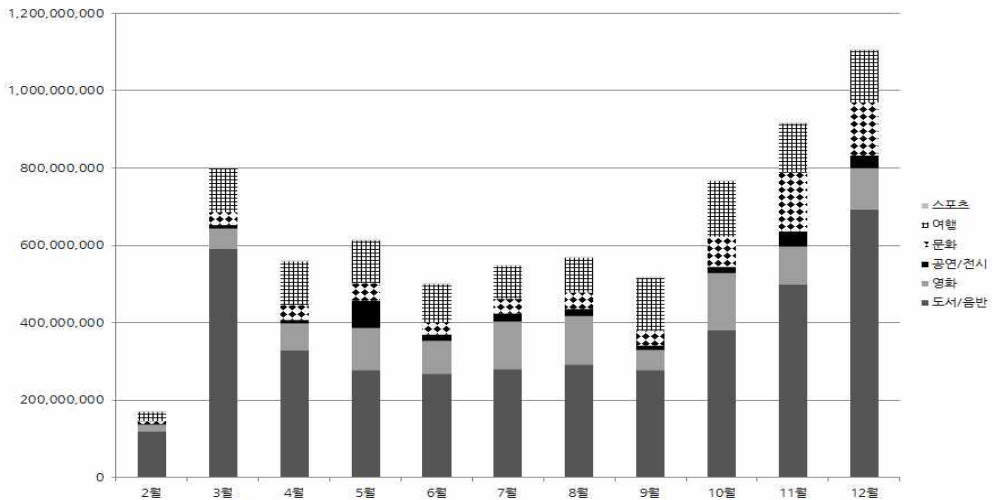
(단위: 원)



	도서/음반	영화	공연/전시	문화	여행	스포츠
2월	791,642,372	298,689,228	18,607,500	47,936,200	107,934,739	2,081,250
3월	5,252,075,495	1,241,581,844	62,698,198	303,738,180	576,684,322	11,115,360
4월	2,448,958,962	1,279,207,283	73,395,971	219,473,633	718,619,649	17,250,670
5월	1,833,941,468	1,975,056,671	87,104,070	209,825,243	662,694,825	16,396,880
6월	1,515,685,612	1,512,300,717	54,963,053	152,627,162	449,072,789	11,174,370
7월	1,552,053,530	2,050,846,595	65,768,740	124,342,015	413,575,299	11,770,910
8월	1,384,248,211	2,032,868,470	72,530,273	138,956,552	435,507,634	8,078,007
9월	1,349,273,267	829,752,763	87,563,640	154,242,723	368,719,930	6,507,480
10월	1,294,313,599	837,532,742	54,595,462	180,589,818	411,826,303	5,177,700
11월	2,104,366,362	925,716,857	80,363,527	331,050,893	413,388,643	6,261,022
12월	5,027,862,823	1,794,279,143	124,242,493	597,968,249	539,675,337	12,559,005

[그림 4-21] 2016년 도시지역 월별 장르 이용액

(단위: 원)



	도서/음반	영화	공연/전시	문화	여행	스포츠
2월	116,299,085	16,742,640	2,710,450	6,664,873	22,923,400	104,000
3월	588,625,085	53,394,682	9,558,325	32,227,900	113,885,180	294,450
4월	327,161,551	67,324,639	11,652,630	36,712,076	113,075,630	619,300
5월	275,694,020	109,139,822	69,131,300	44,642,303	112,387,745	626,100
6월	264,714,408	85,328,485	16,189,150	31,321,925	98,687,240	267,310
7월	277,411,526	123,688,503	20,750,980	37,975,259	84,408,550	471,500
8월	288,387,990	126,437,010	19,822,408	41,384,104	88,809,775	441,150
9월	274,714,604	53,439,570	10,678,080	39,033,320	136,426,540	350,585
10월	378,995,108	146,709,948	17,269,962	78,372,060	143,643,152	85,800
11월	496,644,736	98,035,820	39,979,180	150,608,151	127,872,306	786,400
12월	692,066,110	106,853,234	31,779,690	137,365,346	134,783,190	56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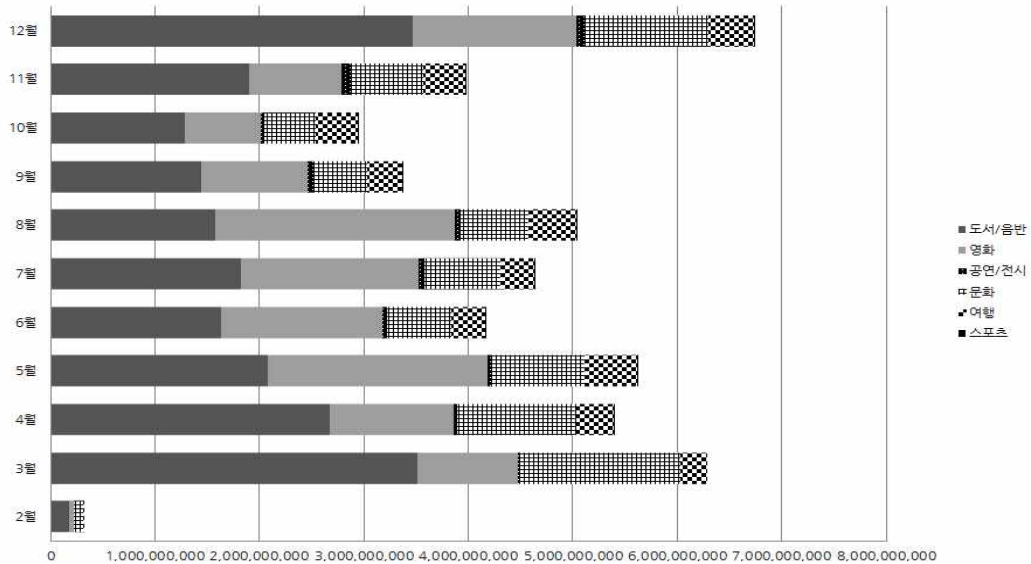
[그림 4-22] 2016년 농산어촌지역 월별 장르 이용액

(3) 장르별 이용액 추이(2014년 ~ 2016년)

① 장르에 따른 월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장르별 추이 그래프는 각 장르별 이용액의 변동 폭이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도서/출판의 경우 모든 년도에 3월과 12월에 이용량이 급격히 집중되는 현상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14년: 3월 35억, 12월 34억, 15년: 3월 53억, 12월 34억, 16년 3월 69억, 12월 55억) 해당 장르의 전체 이용액도 연도별로 증가하는 성향을 보임(14년 221억, 15년 275억, 16년 326억)
- 영화는 주로 5월과 8월에 이용액이 집중되는 성향을 보여 도서/음반의 이용추이와 상반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14년: 5월 21억, 8월 23억, 15년: 5월 26억, 8월 23억, 16년: 5월 25억, 8월 25억)
- 이용액이 하락세를 보이는 분야는 문화관련 장르였음. 문화장르는 14년도 87억 원에 달했던 이용액이 15년에는 80억, 16년에는 28억 원으로 14년 대비 약 68%가량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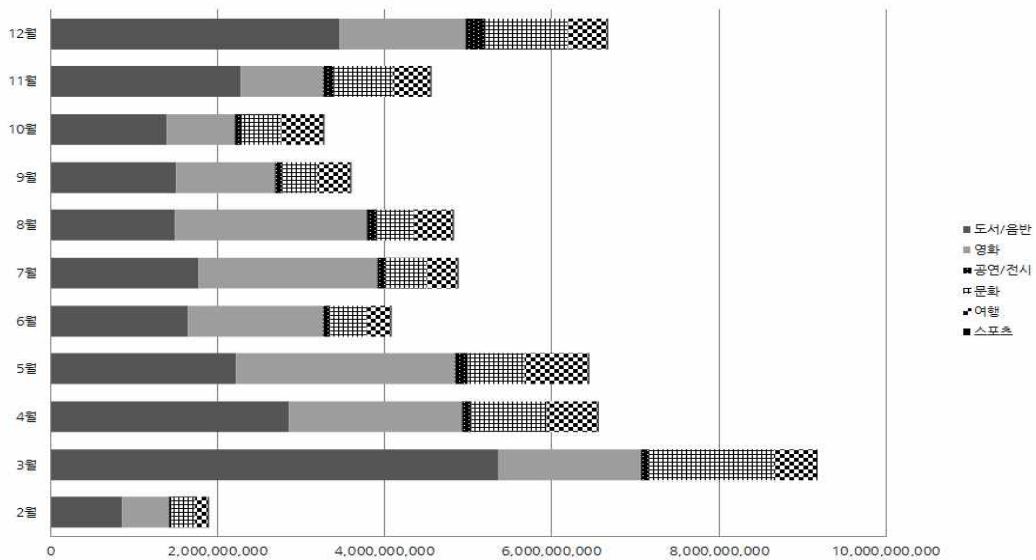
(단위: 원)



	도서/음반	영화	공연/전시	문화	여행	스포츠
2월	179,489,071	43,907,400	1,089,600	85,623,983	8,073,480	0
3월	3,509,386,856	968,903,497	16,515,460	1,533,803,695	256,052,157	0
4월	2,669,330,681	1,189,800,338	34,769,709	1,135,809,571	358,998,741	1,979,600
5월	2,081,345,466	2,100,616,911	52,508,316	881,096,268	500,561,386	3,018,100
6월	1,632,312,950	1,547,312,058	38,379,260	624,828,861	318,876,554	2,205,600
7월	1,818,575,156	1,703,805,189	55,154,772	726,586,799	331,358,671	2,482,500
8월	1,580,644,384	2,295,765,554	46,100,921	651,048,801	455,496,932	3,285,750
9월	1,441,588,458	1,022,603,561	55,267,622	507,400,930	343,400,982	1,395,400
10월	1,287,387,472	727,122,525	37,666,828	492,040,478	394,095,999	1,603,370
11월	1,904,466,738	881,633,864	104,058,284	679,725,784	396,556,810	1,390,176
12월	3,473,760,643	1,556,231,639	93,462,781	1,170,613,799	436,639,507	909,850
계	21,578,287,875	14,037,702,536	534,973,553	8,488,578,969	3,800,111,219	18,270,346

[그림 4-23] 장르별 월 이용액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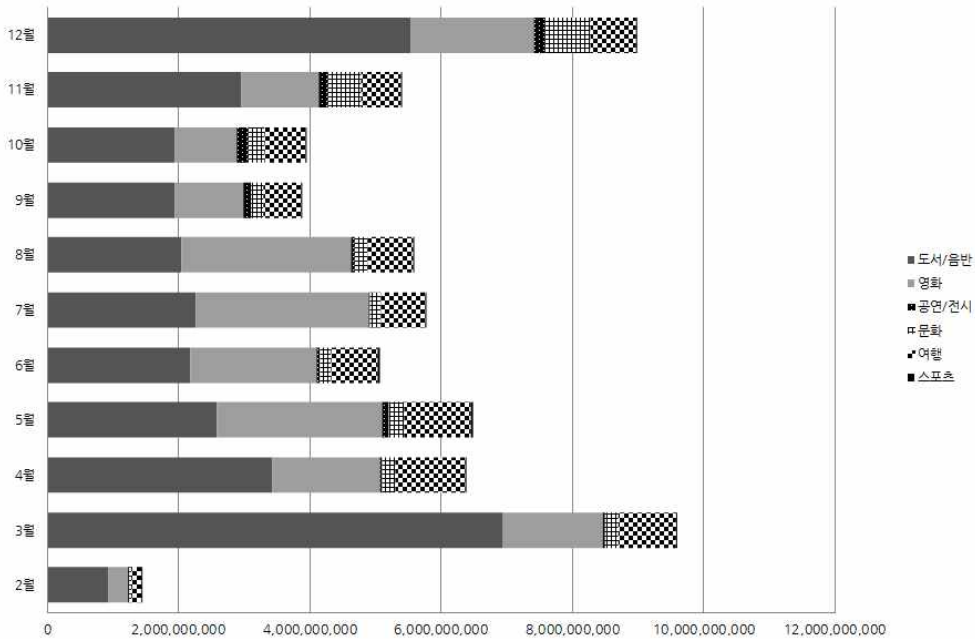
(단위: 원)



	도서/음반	영화	공연/전시	문화	여행	스포츠
2월	863,847,228	554,613,339	23,513,550	289,330,478	152,660,368	164,000
3월	5,360,546,172	1,700,761,782	91,025,380	1,491,455,034	510,734,954	1,349,000
4월	2,852,546,726	2,062,760,841	119,742,665	890,580,253	606,130,558	3,921,960
5월	2,214,499,396	2,617,068,435	157,267,615	681,567,268	748,684,514	9,946,570
6월	1,644,118,161	1,622,339,377	72,742,708	439,249,951	287,247,801	5,992,390
7월	1,768,336,885	2,134,159,017	97,350,160	494,794,620	373,962,450	7,880,220
8월	1,490,561,666	2,290,329,501	131,541,624	436,259,406	452,752,790	6,619,300
9월	1,502,078,614	1,188,909,805	83,168,580	412,732,459	399,432,222	4,870,100
10월	1,392,437,875	816,578,682	80,146,110	471,229,671	495,297,215	8,682,839
11월	2,278,648,114	979,253,138	125,143,725	709,905,706	442,287,657	7,433,520
12월	3,460,495,520	1,499,728,016	245,160,030	986,725,822	452,275,103	9,508,100
계	24,828,116,357	17,466,501,933	1,226,802,147	7,303,830,668	4,921,465,632	66,367,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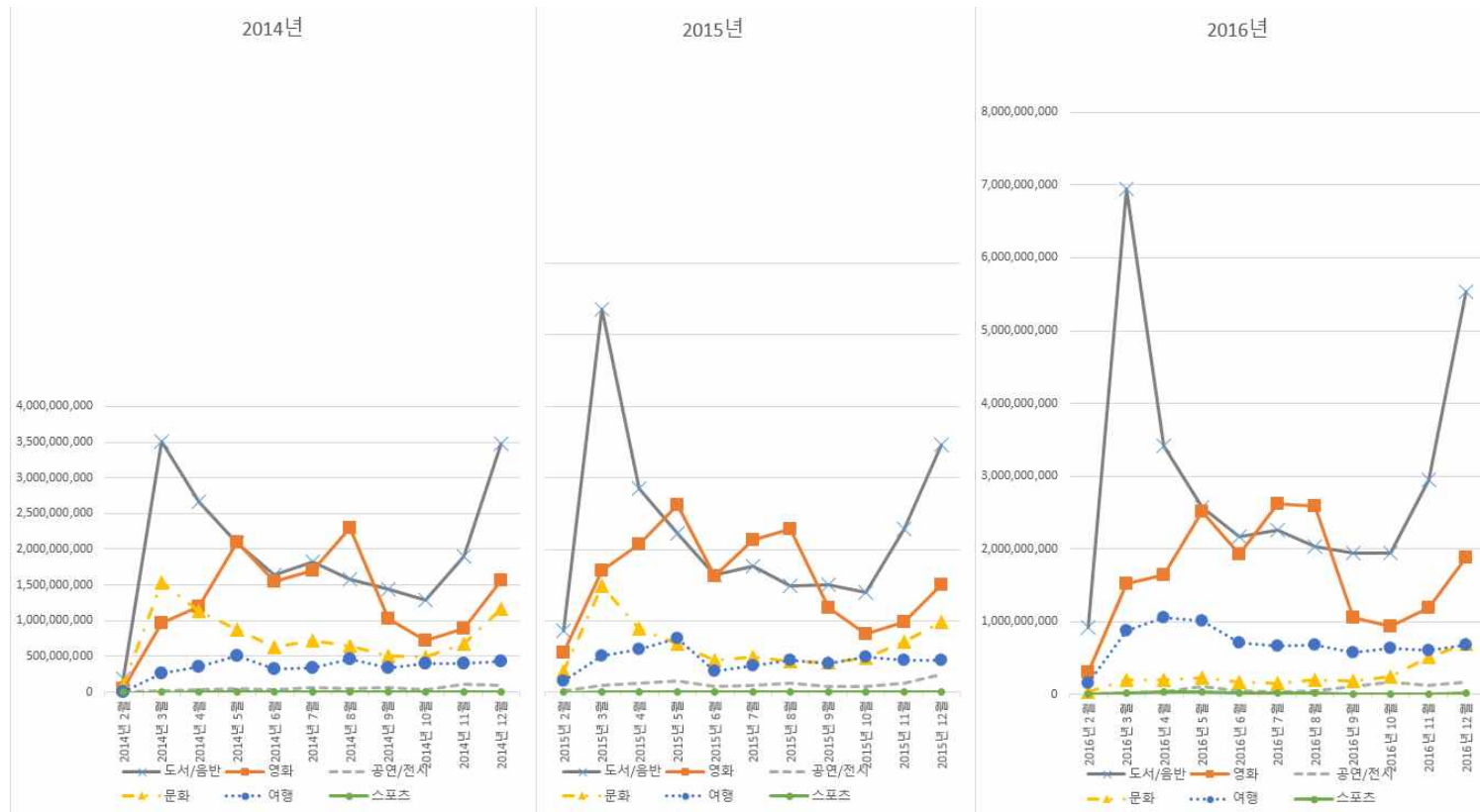
[그림 4-24] 장르별 월 이용액 현황(2015년)

(단위: 원)



	도서/음반	영화	공연/전시	문화	여행	스포츠
2월	923,121,602	311,562,748	5,860,950	36,384,213	151,653,454	2,185,250
3월	6,938,435,749	1,519,753,758	25,814,855	206,410,707	874,818,387	14,954,110
4월	3,422,058,632	1,636,302,349	37,154,611	202,049,234	1,057,567,345	28,963,550
5월	2,578,185,318	2,508,971,139	111,917,410	231,262,757	1,013,226,960	27,536,840
6월	2,175,453,598	1,928,846,120	52,698,210	167,414,861	709,511,741	18,513,250
7월	2,264,974,209	2,621,501,727	28,739,860	162,140,523	667,281,888	17,877,560
8월	2,036,271,547	2,586,744,763	56,792,738	198,474,062	682,009,664	13,069,682
9월	1,935,434,738	1,053,956,598	113,545,680	185,234,968	576,992,816	10,240,355
10월	1,940,940,667	942,648,813	167,878,348	247,329,571	629,348,835	7,810,540
11월	2,946,002,149	1,184,981,383	131,467,605	515,767,366	610,453,413	9,225,892
12월	5,527,675,204	1,875,275,042	168,236,673	700,108,359	686,263,099	14,384,680
계	32,688,553,413	18,170,544,440	900,106,940	2,852,576,621	7,659,127,602	164,761,709

[그림 4-25] 장르별 월 이용액 현황(2016년)



[그림 4-26] 장르별 월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4) 계절별 이용액 추이(2014년 ~ 2016년)

- 각 계절별로 이용액의 특성을 분석함. 계절의 구분은 3월 ~ 5월을 봄, 6월 ~ 8월은 여름, 9월 ~ 11월은 가을, 12월 ~ 2월은 겨울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 단, 겨울의 경우 각 년도에 해당하는 겨울을 포괄하기 위해 2014년 2월, 2014년 12월, 2015년 1월을 겨울에 해당하는 이용액 실적으로 정의내리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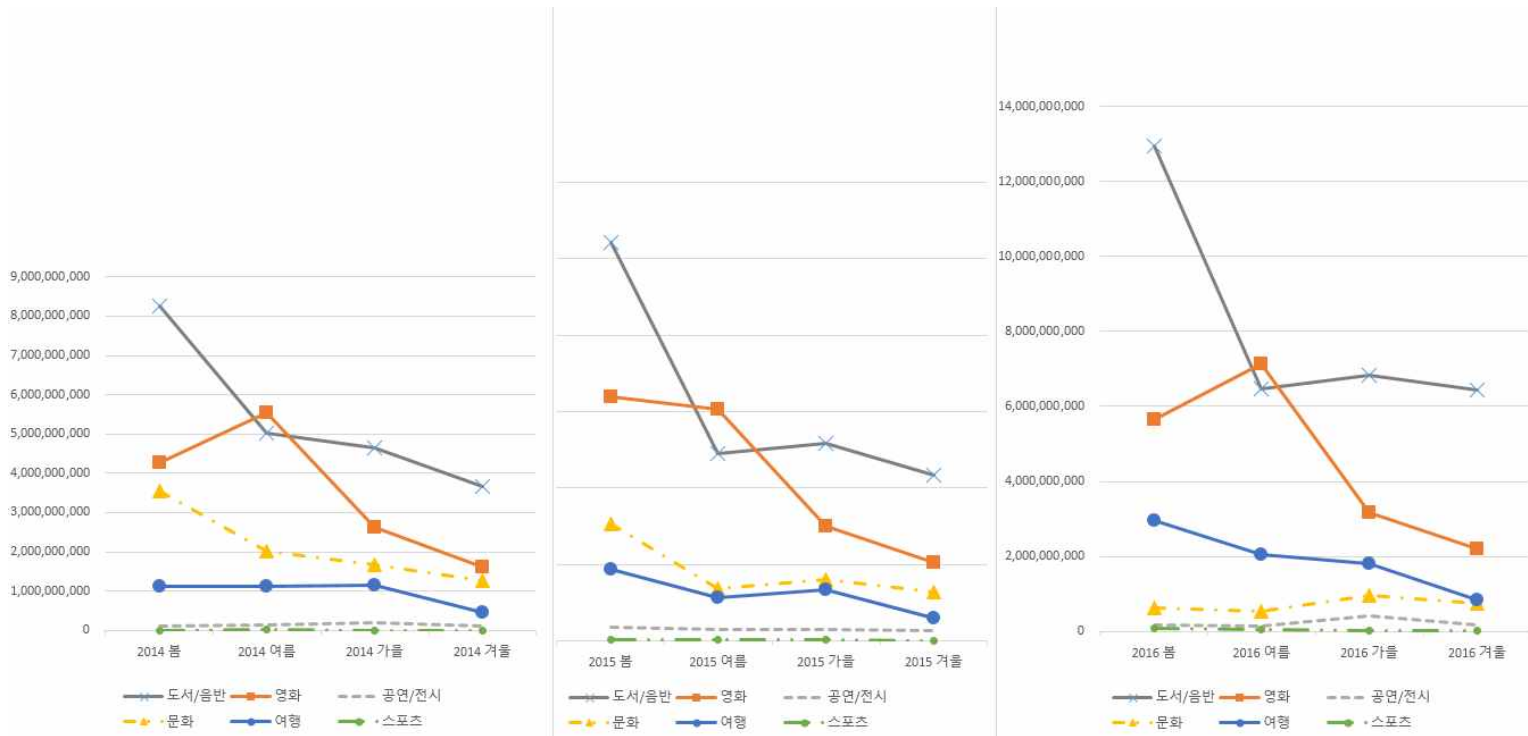
① 계절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월별로 정리되어있는 데이터를 계절로 환산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각 계절변수가 이용액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함
- 계절에 따른 각 장르별 이용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용액이 가장 큰 도서/음반은 봄에 가장 많은 이용액을 보이고 있었음(14년 82억, 15년 104억, 16년 129억). 특히 최근 들어 도서/음반의 이용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겨울 이용액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영화의 경우 주로 여름에 수요가 많았으며 2015년의 경우에는 이용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봄으로 집계됨
- 여행 장르의 이용액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띄고 있으며 가장 큰 이용을 보이는 계절은 2014년은 가을(11억), 2015년은 봄(18억), 2016년 역시 봄(29억)인 것으로 나타남

<표 4-4> 계절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단위: 천원)

		도서/음반	영화	공연/전시	문화	여행	스포츠
2014	봄	8,260,063	4,259,321	103,793	3,550,710	1,115,612	4,998
	여름	5,031,532	5,546,883	139,635	2,002,464	1,105,732	7,974
	가을	4,633,443	2,631,360	196,993	1,679,167	1,134,054	4,389
	겨울	3,653,250	1,600,139	94,552	1,256,238	444,713	910
2015	봄	10,427,592	6,380,591	368,036	3,063,603	1,865,550	15,218
	여름	4,903,017	6,046,828	301,634	1,370,304	1,113,963	20,492
	가을	5,173,165	2,984,742	288,458	1,593,868	1,337,017	20,986
	겨울	4,324,343	2,054,341	268,674	1,276,056	604,935	9,672
2016	봄	12,938,680	5,665,027	174,887	639,723	2,945,613	71,455
	여름	6,476,699	7,137,093	138,231	528,029	2,058,803	49,460
	가을	6,822,378	3,181,587	412,892	948,332	1,816,795	27,277
	겨울	6,450,797	2,186,838	174,098	736,493	837,917	16,570



[그림 4-27] 계절에 따른 장르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② 계절에 따른 생애주기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 계절에 따른 생애주기별 이용액 추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함.
- 매년 추이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년 초에 상당량의 이용권이 소진되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추이는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청소년, 성인)
- 반면에 노인층의 이용액은 연간 큰 변화가 없으나 점차 이용액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4-5> 계절에 따른 생애주기별 이용액 현황(2014년~2016년)

(단위: 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2014	봄	5,439,673,895	1,755,873,686	6,816,758,799	3,282,190,372
	여름	3,794,559,696	1,446,346,403	5,643,873,301	2,949,441,312
	가을	2,088,887,646	1,065,015,761	4,099,450,222	3,026,051,652
	겨울	1,534,696,616	688,015,630	2,796,824,160	2,030,265,347
2015	봄	7,323,770,875	3,410,215,877	7,187,708,065	4,198,894,306
	여름	3,902,415,793	2,036,427,899	4,710,090,476	3,107,303,859
	가을	2,303,856,615	1,536,988,121	3,751,635,229	3,805,756,067
	겨울	2,104,800,700	1,116,973,532	2,736,119,337	2,580,127,985
2016	봄	6,503,782,626	3,520,527,042	7,312,257,805	5,112,337,778
	여름	4,211,132,060	2,434,998,503	5,614,497,565	4,127,687,875
	가을	2,430,722,632	1,728,567,761	4,212,528,372	4,837,444,972
	겨울	2,208,304,241	1,399,317,029	3,443,898,344	3,354,167,320



[그림 4-28] 계절에 따른 생애주기별 이용액 추이(2014년~2016년)

3.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사용자 면접 분석

1) 미소진을 현황

- 통합문화이용권은 법정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바우처 사업임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의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미소진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해마다 미소진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미소진을 현황
 - 미소진율은 2011년 24.3%, 2012년 10.6%, 2013년 9.2%, 2014년 7.5%, 2015년에 4.3% 등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음
 - 2016년에는 11.1%로 미소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이용권 마감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⁸⁾
 - 이용률 측정방법 : 문화누리카드발급자전체
 - 측정산식 : (문화누리카드 이용액 / 실 발급 예산액) × 100
 - 자료출처 : 통합문화이용권시스템

<표 4-6> 미소진율 현황(2011년~2016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용률 (%)	75.7	87.2	92.6	94.7	95.7	88.9
미소진율(%)	24.3	10.6	9.2	7.5	4.3	11.1

자료: 2012-2014년의 이용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5-2016년의 이용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2) 면접개요

□ 면접배경

- 통합문화이용권은 법정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8) 2011년~2015년도에는 금액의 소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마감일을 차년도 초(주로 2월)까지 연장했지만, 2016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마감일을 12월 31일로 제한

하여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바우처 사업임

-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의 연령대, 보조금 잔액현황
 을 조회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내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하고, 평일
 (17:00-20:00), 주말(토, 일 09:00-20:00)에 이용자의 이용 안내 사항 문자로 도움
 서비스 제공, 휴일 도움말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

<잔액소진 활성화 이벤트 사례>

1. 알라딘 특별이벤트 존(문화누리카드 회원용 5천원이하 도서상품존) (2016.11.25~12.31)
2. 2만 원 이하 30대 이하 (6세 이상~29세 이하) 대상으로 문자홍보 (19만 명 문자발송)
3. 5천 원 이상 사용 영수증 인증 샷 공모 후 추첨을 통해 (4천원 가량) 기프티콘 제공

- 각종 이벤트와 문자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미소진의 경우는 해마다 발생하
 였고, 2016년 대도시의 경우 4만 원 이상 미소진자는 37,659명으로 집계됨

□ 면접개요

- (목적) 미소진의 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달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 (일정) 2017년 1월 10일 ~ 12일 (3일 간)
- (면접참여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지의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자 중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24명을 선정. 전화면접 실시

□ 주요 질문

-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이유 및 이용 시 불편한 점
-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보완해야할 점
- 기타 제안사항

3) 면접 결과 분석

□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보완점을 분석

- 면접결과 미소진 사유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령대별로는 확연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여기에서는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보완점을 제안함

<표 4-7>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사유 전화면접 분석

연령	미소진 사유	전달체계 보완점	
30세 이하	이용 경험 부족	· 잔여기간 문자제공 · 홈페이지안내 보강 (정보 제공의 현실화)	홍보
	사용 가능한 시간의 부족		
	사용기간 잊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분실		
31세 ~ 60세	건강 상 이유, 무관심, 사용할 여력 없음	대국민 인식확대	홍보
	원치 않는 카드 발급	신청본인 욕구확인	신청
	사용처 및 사용방법 모름	· 사용방법 및 지역별 사용처 안내 · 가맹점 문자 및 정보지 제공 · 가맹점 발굴 및 확대 · (중장년층) 문자제공/ 큰 글씨 인쇄물 배부	발급
	주변에 문화예술관련 시설 없음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		
	on line 구매 절차 복잡	on line 구매 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콜센터 문의에 어려움	콜 센터 내실화	
61세 이상	이용 경험 없음, 여력 없음	대국민 인식 확대	홍보
	건강 상 이유, 원치 않는 카드 발급	신청본인 욕구확인	신청
	사용처 및 사용방법 모름	· 사용방법 및 지역별 사용처 안내 · 가맹점 발굴 및 확대 · 가맹점 문자 및 정보지 제공 · 문자제공/ 큰 글씨 인쇄물	발급
	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외로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네트워크 활용
	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 (물리적 요인-장애, 독거노인)	활동 도우미 연결	지자체 협력
기타 소수 (공통)	희망 사용처에서 사용 불가 (주유소, 목욕탕, 음식배달)	대국민 인식 확대 (복지카드와의 차별성 안내)	홍보
	액수의 비현실성	할인안내	
	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 (물리적 요인-장애)	활동 도우미 연결	지자체 협력

① 홍보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국민적인 홍보 필요
 - 응답자들이 미소진 사유로 마음의 여유나 흥미가 없거나,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범위를 음식배달, 이발, 주유 등 일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범위에서 활용되기를 원하는 것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목적이나 사용범위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음.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범위와 사용기간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안내
 - 40대 이전의 이용자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함으로 홈페이지를 보강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 전달의 방안 모색 필요
 - 한편, 중장년 및 노년층 이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기에 가독성이 높은 안내지를 발송하는 등의 오프라인 정보 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
 - 사용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잔여 사용기간을 수시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별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전시장) 및 가맹점 위치안내 방안의 모색이 필요

② 신청 및 발급

- 일부 미소진 사유가 욕구의 부재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욕구 파악과 대리 신청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③ 운영관리

- 온라인상의 구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온라인 구매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 및 완화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자세한 결제방법의 안내가 필요할 것
- 콜센터 내실화를 통한 이용문의 및 민원상담의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 도모

④ 지자체협력

- 지리적인 여건, 함께 할 대상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자발적인 향유가 어려운 대상에게 지역 내의 인적자원을 연계 혹은 촉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향유 촉진 프로그램이 활발한 전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 문화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제5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 분석

1. 연구방법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 분석 결과
3. 전문가집단 심층면접 분석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 실시

2) 자료수집 방법

- 사업의 내용 및 방식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자료수집 방법)을 채택함
 -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자율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여 문화·여행·스포츠경기 관람을 함으로 방문형 면접조사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온라인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함
 - － 한편,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노인의 접근성이 낮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방문형 면접조사를 실시함. 추가 면접조사는 전국의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혹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노인 중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카드사용자를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실시함

3) 연구진행

- (1차) 온라인 설문조사
 - － 조사기간: 2016년 12월 1일(목) ~ 12월 21일(수)
 - － 조사기관: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 (2차) 방문형 면접조사
 - － 조사기간: 2017년 1월 2일(월) ~ 1월 13일(금)
 - － 조사기관: 숭실대학교

<표 5-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조사 설계

모집단	표본크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카드사용자	441	온라인 (이메일)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용자
	89	1:1 면접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전체	530		

4) 조사내용

〈표 5-2〉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 조사문항

측정 지표		문항	측정 방법
향유 경험	향유기간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통합문화이용권을 몇 년 동안 사용해 보셨습니까?	비율
	인지경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명목
만족도	세부항목 만족도	1)사업의 대상자는 적절했다. 2)사업에서 제공하는 문화·국내여행·스포츠 관람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안내 받았다. 3)사업을 통해 제공된 문화·국내여행·스포츠 관람 가맹점에 만족한다. 4)사업이용 시 관계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다. 5)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겠다. 6)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 7)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등간 (7점)
향유 행태	향유빈도	지난 1년 간 참여한 프로그램 횟수를 기입하십시오.	비율
	향유의향	각 프로그램별 향후 이용 의향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등간
향유 비용	지난 추가비용	지난 1년간 문화향유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외의 약 얼마정도를 추가로 쓰셨습니까(금액을 직접 기입해 주세요).	비율
	향후 지불의사	향후 1년간 문화향유를 위해 약 얼마정도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금액을 직접 기입해 주세요)	비율
향유 전후 변화	문화향유 전후비교	1)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우울함이 줄어들었다. 3)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4)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자살 충동이 줄어들었다. 5)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활동에 관심이 더 많아 졌다. 6)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예술적 감수성이 더 높아졌다. 7)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자존감이 높아졌다. 8)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언어적·비언어적)표현을 잘하게 되었다. 9)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사람들을 더 믿게 되었다. 10)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다. 11)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게 되었다. 12)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13)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신체가 건강해졌다.	등간 (7점)
향유 어려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목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로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5-3>과 같음

<표 5-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응답자 특성

구분		결과	
		사례수(명)	%
전체		530	100.0
성 별	남자	216	40.8
	여자	314	59.2
연 령	10대 이하	42	7.9
	20대	91	17.2
	30대	76	14.3
	40대	141	26.6
	50대	62	11.7
	60대 이상	118	22.3
거 주 지 역	대도시	340	64.1
	도농복합	143	27.0
	농산어촌	47	8.9
최 종 학 력	무학	19	3.6
	초등학교 졸업	45	8.5
	중학교 졸업	53	10.0
	고등학교 졸업	161	30.4
	대학재학 이상	252	47.5
직 업	학생	116	21.9
	직장인	124	23.4
	자영업자	34	6.4
	퇴직자	32	6.0
	주부	70	13.2
	농어업자	10	1.9
	무직	82	15.5
	기타	62	11.7
가 구 소 득 수 준	기초생활수급	288	54.3
	차상위	200	37.7
	기타	42	7.9
장 애 유 무	있다	113	21.3
	없다	417	78.7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기간 및 인지경로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기간에 따른 인지경로는 다음 <표 5-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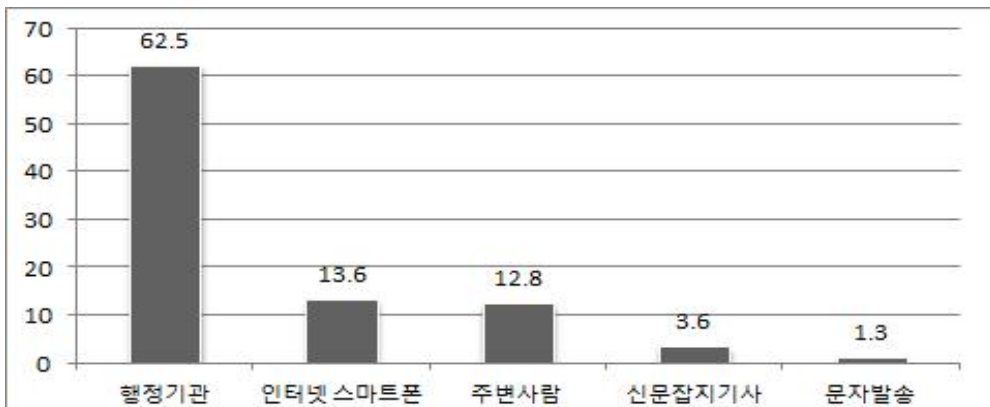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52.6%, 1년 이하 24.0%, 4년 이상 23.4% 순으로 나타남
- 통합문화이용권 참여자의 사업 인지경로는 행정기관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13.6%, 주변사람 12.8%, 신문/잡지/기사 3.6% 순으로 나타남
- 기타(2.1%)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담당자 혹은 기관에서 방문하는 생활지도사 등에 의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혹은 관련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표 5-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기간에 따른 인지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행정 기관	인터넷 스마트폰	주변 사람	신문 잡지 기사	문자 발송	직접 정보 (매일 등)	학교 직장 안내	옥외 광고	기타	전체 (%)
전체	530 (100)	62.5	13.6	12.8	3.6	1.3	1.9	1.1	1.1	2.1	100.0
이용기간	1년 이하	127 (24.0)	59.8	7.9	17.3	2.4	2.4	3.1	1.6	2.4	100.0
	2-3년	276 (52.6)	65.6	14.7	11.5	3.9	0.7	0.7	0.4	0.7	100.0
	4년 이상	124 (23.4)	58.1	16.9	11.3	4.0	1.6	3.2	2.4	0.8	100.0

(단위: %)



[그림 5-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인지경로

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

(1) 이용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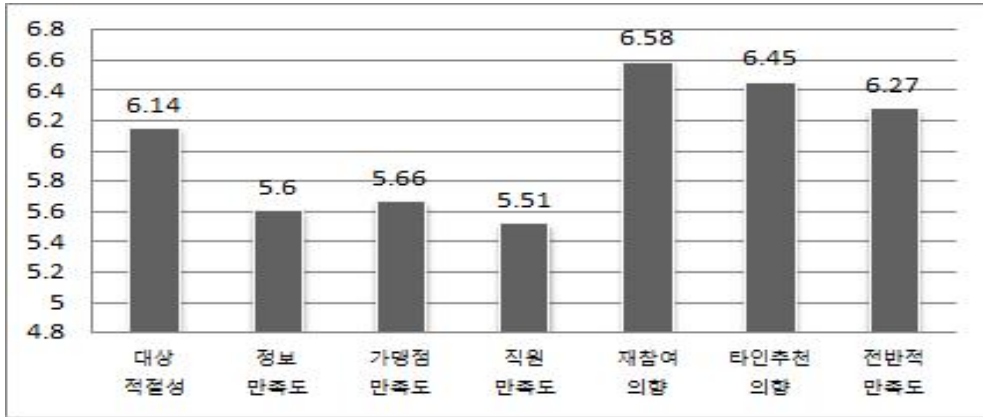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들의 만족도 점수는 다음의 <표 5-5>와 같음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는 7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그 결과 재참여 의향 6.58점, 타인 추천의향 6.45점, 전반적 만족도 6.27, 대상 적절성 6.14점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 시 관계자들의 적절한 도움이 5.51점, 가맹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5.60점, 가맹점(이용처)에 대한 만족도가 5.6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참여자에 대한 직원 혹은 관계자들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5-5>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7점)

만족도	평균
전체(N=530)	6.03
1) 사업의 대상자는 적절했다.	6.14
2) 사업에서 제공하는 문화·국내여행·스포츠 관람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안내 받았다.	5.60
3) 사업을 통해 제공된 문화·국내여행·스포츠 관람 가맹점에 만족한다.	5.66
4) 사업이용 시 관계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다.	5.51
5)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겠다.	6.58
6)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	6.45
7) 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6.27

(단위: 점)



[그림 5-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

(2) 응답자 특성별 이용자 만족도

□ 거주 지역, 연령, 가구 소득수준 등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함

- 응답자 특성 중 거주 지역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6>과 같음. 다만 거주 지역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5-6> 거주 지역별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7점)

		사례 (명)	종합 만족도	대상 적절성	정보 만족도	가맹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재참여 의향	타인 추천 의향	전반적 만족도
전체		530	6.03	6.14	5.60	5.66	5.51	6.58	6.45	6.27
거주 지역	대도시	340	6.00	6.00	6.13	5.55	5.65	5.46	6.58	6.41
	도농 복합	143	6.06	6.06	6.09	5.64	5.69	5.60	6.56	6.53
	농산 어촌	47	6.16	6.16	6.31	5.79	5.70	5.68	6.70	6.55
	F		1.991	1.355	.978	.096	1.173	1.301	2.465	1.251

* p<.05

□ 응답자 특성 중 연령별 이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5-7>와 같음

- 연령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종합만족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사 결과 3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에 비해 종합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세부 문항별 차이에서는 60대 이상과 30대($p<.05$), 60대 이상과 40대($p<.05$)에서 직원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에 비해, 60대 이상이 40대에 비해 사업 이용 시 관계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60대 이상과 40대($p<.05$), 60대 이상과 50대($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40대에 비해, 60대 이상이 50대에 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 연령별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7점)

	사례 (명)	종합 만족도	대상 적절성	정보 만족도	가맹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재참여 의향	타인 추천 의향	전반적 만족도
전체	530	6.03	6.14	5.60	5.66	5.51	6.58	6.45	6.27
연령	10대 이하	42	6.14	6.29	5.48	5.83	5.76	6.76	6.52
	20대	91	6.06	6.29	5.42	5.69	5.42	6.69	6.54
	30대	76	5.90	6.08	5.41	5.55	5.16	6.53	6.36
	40대	141	5.97	6.12	5.62	5.55	5.38	6.53	6.41
	50대	62	5.92	5.90	5.63	5.47	5.48	6.53	6.40
	60대 이상	118	6.19	6.16	5.86	5.89	5.91	6.56	6.50
	F		4.236*	1.964	2.198	2.141	4.613*	2.261	1.052

* $p<.05$

□ 응답자 특성 중 가구 소득수준별 이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8>과 같음

-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종합만족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사

후검사결과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p<.05), 차상위와 기타(p<.05) 집단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에 비해, 차상위가 기타에 비해 종합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세부사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차상위와 기타(p<.05) 집단에서 대상 적절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가 기타에 비해 사업의 대상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정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타와 기초생활수급(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가 기초생활수급에 비해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재참여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과 기타(p<.05), 차상위와 기타(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이 기타에 비해, 차상위가 기타에 비해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타인추천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과 기타(p<.05), 차상위와 기타(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이 기타에 비해, 차상위가 기타에 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차상위와 기타(p<.05)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가 기타에 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8> 가구소득수준별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7점)

	사례 (명)	종합 만족도	대상 적절성	정보 만족도	가맹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재참여 의향	타인 추천 의향	전반적 만족도
전체	530	6.03	6.14	5.60	5.66	5.51	6.58	6.45	6.27
가 구 소 득 수 준	기초 생활수급	288	5.99	6.11	5.48	5.60	5.43	6.59	6.25
	차상위	200	6.13	6.25	5.72	5.77	5.63	6.62	6.36
	기타	42	5.87	5.81	5.86	5.57	5.60	6.33	6.00
	F		5.420*	5.155*	3.744*	1.446	1.629	5.073*	15.473*

* p<.05

4)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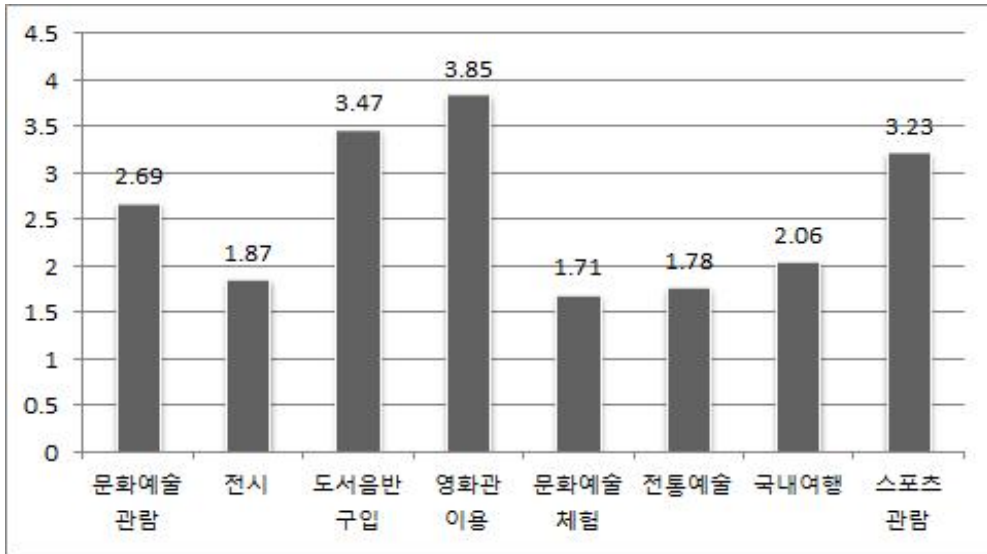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다음의 <표5-9>와 같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중 지난 1년 간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횟수는 영화관 이용, 찾아가는 영화관이 평균 3.85회, 도서 및 음반구입이 평균 3.47회, 스포츠 관람이 3.23회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이 평균 1.71회로 가장 낮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다만 참가자의 이용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참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보제공, 홍보방안과도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5-9>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참여횟수

(단위: 횟수)

구 분	지난 1년간 참여횟수	
	평균	표준편차
1)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지원	2.69	4.39
2) 전시(그림, 서예, 공예, 사진 등)	1.87	1.67
3) 도서 및 음반 구입	3.47	3.43
4) 영화관 이용, 찾아가는 영화관	3.85	4.17
5)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1.71	1.95
6) 전통예술(국악, 사물놀이, 탈춤 등)	1.78	2.19
7) 국내여행(숙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	2.06	2.35
8) 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3.23	4.55

(단위: 횟수)



<그림 5-3>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참여횟수

5)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의 향후 이용의향은 다음의 <표 5-10>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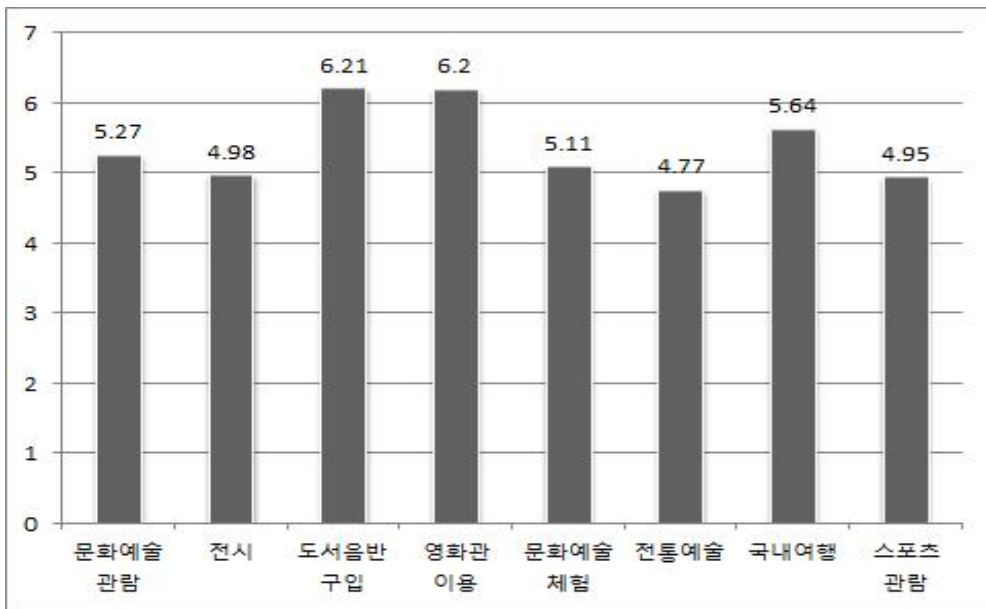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의 향후 이용의향은 도서 및 음반구입 6.21점, 영화관 이용, 찾아가는 영화관 6.20점, 국내여행(숙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이 5.64점,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지원 5.2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예술(국악, 사물놀이, 탈춤 등)이 4.7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방안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국내여행’의 경우 지난 1년간 참여횟수는 2.06회에 그쳤으나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5.6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숙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 국내여행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현황의 장르별 이용현황 분석자료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난 1년간 참여한 프로그램에 비해 향후 이용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5-10>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

(단위: 점/7점)

구 분	향후 이용의향	
	평균	표준편차
1)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지원	5.27	1.57
2) 전시(그림, 서예, 공예, 사진 등)	4.98	1.66
3) 도서 및 음반 구입	6.21	1.19
4) 영화관 이용, 찾아가는 영화관	6.20	1.18
5)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5.11	1.68
6) 전통예술(국악, 사물놀이, 탈춤 등)	4.77	1.68
7) 국내여행(숙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	5.64	1.54
8) 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4.95	1.76

(단위: 점)



[그림 5-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

6) 지난 1년간 문화향유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외 추가 지불여부 및 금액

□ 지난 1년간 문화향유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외 추가 지불여부 및 금액은 다음의 <표 5-11>과 같음

-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외 문화향유를 위한 비용을 추가 지불한 경우가 62.1%로 나타났고,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평균 140,000원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260억 6,300만원(2016년도 전체이용자 145만 명 기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5-11>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 이외 문화향유 추가 지불여부 및 금액

(단위: 만원)

추가 지불여부		추가 지불금액			
항목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00.0	14.04	16.64	1	100
지불한 돈이 전혀 없다	37.9				
추가로 돈을 지불했다	62.1				

7) 향후 1년간 문화향유를 위한 추가 지불의향 및 금액

□ 향후 1년간 문화향유를 위한 추가 지불의향 및 금액은 다음 <표 5-12>와 같음

- 추가 지불 의향에서는 57.7%가 지불의사 혹은 여유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추가 지불 금액은 약 120,000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7년도에도 1,114억 7,640만원(2017년도 전체이용자 추정 161만 명 기준)의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도 추가 지불액이 위에서 제시한 2016년 추가지불액 140,000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추가 사용 의향을 밝히고 있으며, 2016년 실제 추가 사용액에 비해 지불의향이 적게 나타난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예측되며, 실제 사용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있음

<표 5-12> 향후 1년간 문화향유 추가 지불의향 및 금액

(단위: 만원)

향후 지불의향		향후 추가 지불금액			
항목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00.0	11.94	16.00	1	100
지불할 의사 혹은 여유가 있다.	57.7				
지불할 의사 혹은 여유가 없다.	42.3				

8)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는 다음 <표 5-13>과 같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변화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7점 만점에 평균 5.26점으로 응답함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활동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의견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다는 의견이 5.72점으로 나타남
- 반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전과 비교하여 사람들을 더 믿게 되었다가 4.89 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전과 비교하여 신체가 건강해졌다가 5.0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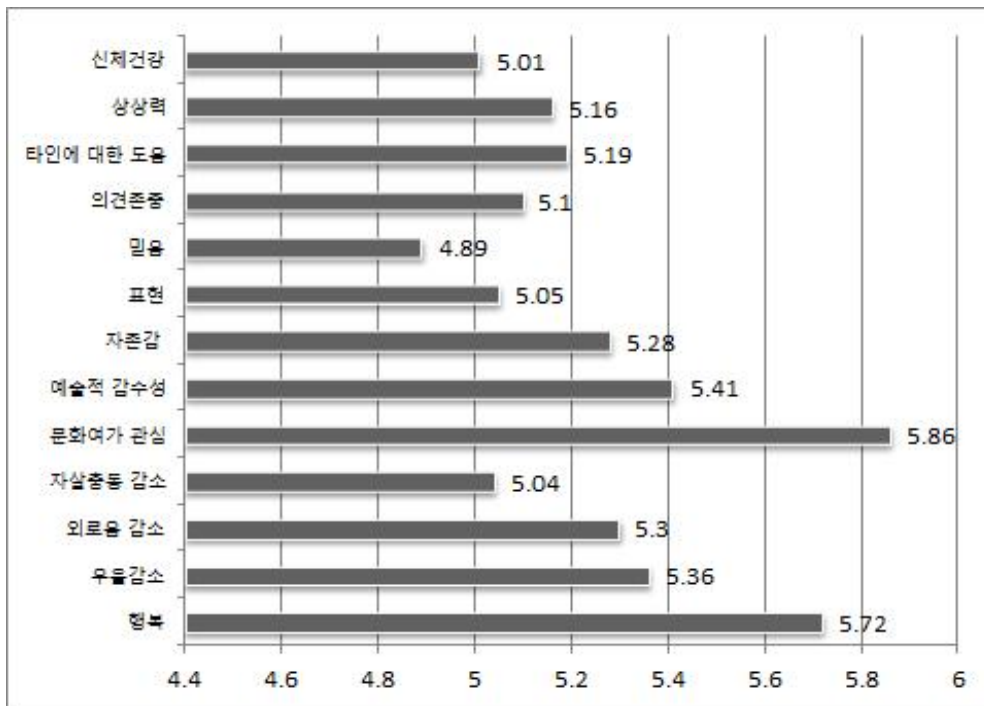
<표 5-1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단위: 점/7점)

구분	사용 후 변화정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1.15
1)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5.72	1.15
2)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우울함이 줄어들었다.	5.36	1.32
3)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5.30	1.35
4)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자살 충동이 줄어들었다.	5.04	1.61

5)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활동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	5.86	1.22
6)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예술적 감수성이 더 높아졌다.	5.41	1.35
7)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자존감이 높아졌다.	5.28	1.41
8)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잘 하게 되었다.	5.05	1.39
9)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사람들을 더 믿게 되었다.	4.89	1.45
10)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다.	5.10	1.40
11)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게 되었다.	5.19	1.37
12)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5.16	1.39
13)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신체가 건강해졌다.	5.01	1.43

(단위: 점)



[그림 5-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2) 응답자특성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 거주 지역, 연령, 가구 소득수준 등 응답자 특성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함
- 응답자 특성 중 거주 지역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14>와 같음
- － 거주 지역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5-14> 거주 지역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단위: 점/ 7점)

	N	종합	행복	우울 감소	외로움 감소	자살 충동 감소	문화 여가 관심	예술적 감수성
전체	530	5.26	5.72	5.36	5.30	5.04	5.86	5.41
거주 지역	대도시	340	5.21	5.70	5.31	5.29	4.97	5.35
	도농복합	143	5.37	5.71	5.43	5.34	5.20	5.54
	농산어촌	47	5.31	5.96	5.43	5.32	5.04	6.09
	F	1.069	1.078	.475	.074	1.009	.889	1.014

	N	자존감	표현	믿음	의견 존중	도움	상상력	신체 건강
전체	530	5.28	5.05	4.89	5.10	5.19	5.16	5.01
거주 지역	대도시	340	5.21	4.98	4.81	5.02	5.14	4.96
	도농복합	143	5.43	5.20	5.08	5.29	5.30	5.25
	농산어촌	47	5.36	5.06	4.89	5.15	5.23	5.17
	F	1.329	1.264	1.780	1.903	.680	.472	1.431

□ 응답자 특성 중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15>와 같음

- 연령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사 결과 30대와 60대 이상($p<.05$), 4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이용자 변화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에 비해, 60대 이상이 40대에 비해 변화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의 세부항목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30대($p<.05$)에 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고, 우울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외로움과 자살충동 감소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사 결과 30대와 60대 이상($p<.05$), 4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에 비해, 60대 이상이 40대에 비해 외로움과 자살충동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와 20대($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대가 30대에 비해 문화여가활동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예술적 감수성의 변화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와 20대($p<.05$), 3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대가 30대에 비해, 60대 이상이 30대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예술적 감수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자존감과 언어적, 비언적 표현의 증가 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와 60대 이상($p<.05$), 4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에 비해, 60대 이상이 40대에 비해 사용 전과 비교하여 자존감과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향상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20대와 60대 이상($p<.05$), 30대와 60대 이상($p<.05$), 4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20대, 30대, 40대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사람들을 더 믿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와 60대 이상($p<.05$), 4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 40대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20대와 60대 이상($p<.05$), 3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20대, 30대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상상력 향상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와 60대 이상($p<.05$), 40대와 60대 이상($p<.05$), 5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 40대, 50대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상상력이 풍부해 진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신체건강 향상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와 60대 이상($p<.05$), 5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 50대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신체가 건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표 5-15> 연령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단위: 점/ 7점)

		N	종합	행복	우울 감소	외로움 감소	자살 총동 감소	문화 여가 관심	예술적 감수성
전체		530	5.26	5.72	5.36	5.30	5.04	5.86	5.41
연령	10대 이하	42	5.36	5.83	5.48	5.21	4.86	6.00	5.60
	20대	91	5.28	5.92	5.47	5.26	5.11	6.14	5.69
	30대	76	4.88	5.39	4.96	4.92	4.76	5.49	4.88
	40대	141	5.16	5.60	5.26	5.23	4.89	5.83	5.28
	50대	62	5.12	5.63	5.23	5.16	4.84	5.74	5.21
	60대 이상	119	5.64	5.94	5.66	5.77	5.49	5.94	5.70
	F		4.868*	3.203*	3.148*	4.458*	2.920*	2.803*	5.087*

		N	자존감	표현	믿음	의견 존중	도움	상상력	신체 건강
전체		530	5.28	5.05	4.89	5.10	5.19	5.16	5.01
연령	10대 이하	42	5.45	5.29	5.14	5.21	5.36	5.21	5.07
	20대	91	5.29	5.07	4.53	5.04	4.92	5.26	4.91
	30대	76	4.89	4.64	4.58	4.68	4.84	4.71	4.66
	40대	141	5.13	4.88	4.76	5.00	5.18	5.05	5.03
	50대	62	5.23	4.95	4.85	4.94	5.21	4.89	4.73
	60대 이상	119	5.67	5.47	5.47	5.58	5.58	5.62	5.42
	F		3.506*	4.245*	6.371*	4.624*	3.778*	5.149*	3.570*

* p<.05

□ 응답자 특성 중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16>과 같음

-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는 세부항목 중 행복감 변화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사 결과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p<.05), 차상위와 기타(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에 비해, 차상위가 기타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6> 가구소득수준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

(단위: 점/ 7점)

		N	종합	행복	우울 감소	외로움 감소	자살 충동 감소	문화 여가 관심	예술적 감수성
전체		530	5.26	5.72	5.36	5.30	5.04	5.86	5.41
가구 소득 수준	기초 생활수급	288	5.25	5.65	5.35	5.29	5.04	5.83	5.40
	차상위	200	5.33	5.92	5.43	5.36	5.04	5.94	5.46
	기타	42	5.01	5.29	5.07	5.12	4.98	5.74	5.19
	F		1.386	6.698*	1.247	.545	.031	.750	.695

		N	자존감	표현	믿음	의견 존중	도움	상상력	신체 건강
전체		530	5.28	5.05	4.89	5.10	5.19	5.16	5.01
가구 소득 수준	기초 생활수급	288	5.24	5.08	4.88	5.11	5.15	5.18	5.02
	차상위	200	5.41	5.07	4.97	5.17	5.30	5.20	5.04
	기타	42	4.93	4.71	4.61	4.74	5.05	4.88	4.83
	F		2.295	1.324	1.047	1.638	.963	1.088	.358

* p<.05

9)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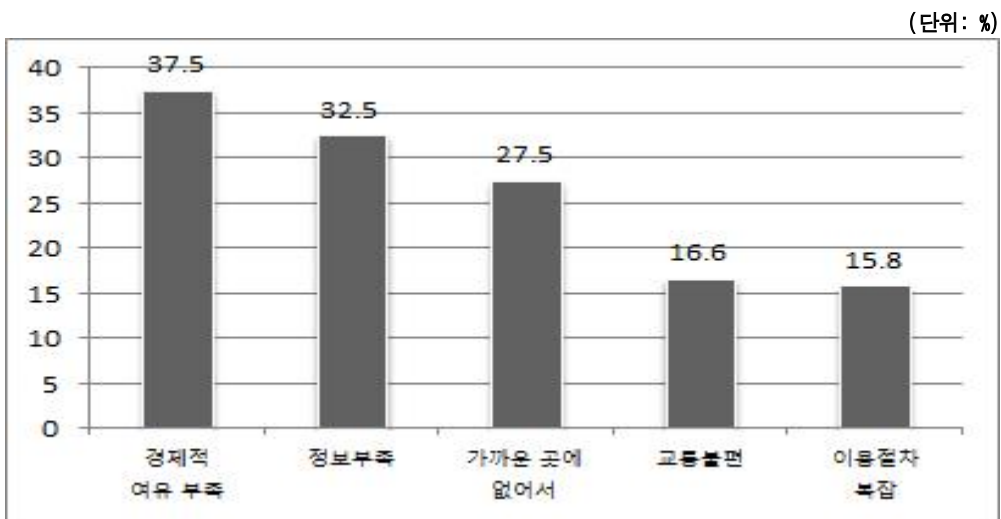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제공되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5-17>과 같음

- 1순위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게 적합한 활동이 언제 어디서에 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이 32.5%로 2순위로 나타남. 이외에도 가까운 곳에 없어서 27.5%, 교통이 불편해서 16.6%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에서는 지원 금액의 확대, 사용절차의 어려움, 홍보 등 정보접근성 부족이 중요한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됨

<표 5-17>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의 어려움(다중응답)

순위	구분	N=530	%
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99	37.5
2	내게 적합한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활동이 어디서 언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72	32.5
3	가까운 곳에 없어서	146	27.5
4	교통이 불편해서	89	16.6
5	참여 및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84	15.8
6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82	15.5
7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66	12.5
8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65	12.3
9	건강이 좋지 않아서	52	9.8
10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활동에 흥미가 없어서	17	3.2

11	참여해보았는데 재미가 없어서	12	2.3
12	기타	57	10.8
	지원 금액이 적어서, 내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역적 제한(농산어촌), 정보부족, 사용처 및 구입물품 제한, 결제절차의 어려움, 가맹점 안내 부정확, 직원의 불친절, 홍보부족으로 충전을 하지 못함, 낙인문제(일반카드와 외형이 같았으면 좋겠다), 시설의 제한(장애인석), 잔액결제의 어려움, 스포츠관람 시 추가비용 방법이 복잡하고, 이로 인해 차별받음, 온라인정보 접근의 어려움, 청소년 비용충전 시 주민 센터 방문 불편, 합산기능 불편		



[그림 5-5]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이유

10) 기타 개선요구(주관식)

- 물가를 반영한 사용금액 책정
(도서구입, 영화 관람은 할 수 있지만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은 불가능)
- 이용제한 및 규제 개선(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
- 잔액조회 방법 개선(어플리케이션 등)
- 홍보부족문제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사용처 및 방법 등 안내)
- 사용처와 품목 확대, 지역격차 개선(지방의 경우 교통이용 시 편의제공 등)
- 온라인 가맹점 확대 및 이용절차 개선
-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방법 및 절차 개선필요
(어르신들의 경우 이용절차의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3. 전문가집단 심층면접 분석

1) 전문가집단 심층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 FGI 목적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기초하여 동사업의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형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 지표, 사업성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발전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 질적인 연구차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

□ FGI 일정

- 일 시: 2017년 1월 6일(금) 16시~19시
- 장 소: 숭실사이버대학교 회의실

□ 연구 참여자

- 연구 참여자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총 7명)

구분	연구 참여자 (지위)
현장 전문가	양** 최고관리자
	정** 중간관리자
	양** 중간관리자
	권** 일선관리자
학계 전문가	양** 연구위원
	서** 사회학과 교수
	최** 소비자학과 교수

□ FGI방법

-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FGI 주제에 대한 관련참고자료를 공유하였음
- 책임연구원 주관으로 약 3시간 동안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심층 논의 진행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결과

- 통합문화이용권의 전문가FGI는 사업운영자의 시각에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달체계, 효과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집하고자 함. 이는 이용자들의 시각과 함께 공급자 측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함

(1) 통합문화이용권의 주요 개념

-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 이는 향후 정책 대상의 범위와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표 5-18>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주요 개념에 관한 논의 내용

중분류	소분류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의 개념	대상자들은 주로 인간의 모든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광의개념으로 문화보다는 여가의 개념에 가깝게 이해함 현장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장르에 스포츠관광 및 여행을 포괄하는 범위로 규정하면서 문화소외계층에게 순수예술은 유도가 중요함을 강조
	사업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고마움을 표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종의 복지카드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여러 범주에서 사용하길 바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순수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으로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상자들과의 갭을 메워야하는 과제가 발생함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아직 문화적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문화적 소외계층은 문화향유의 경험이 매우 적어 이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을 통해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줄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불완전한 법적지위	재원 문제 유발	사업의 정식명칭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지만 현존하는 법적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이용권에 정의 및 지급 및 관리에 대한 언급 정도임. 체육기금이나 관광기금에서 전입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재원의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
	운영 주체 불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년간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와 재원의 문제로 운영주체로서의 불안을 느낌

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관한 인식

□ 문화에 대한 인식

- 사회적 합의는 국민들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기초로 하고 있음. 즉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범주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음
- 문화는 광의로는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부터 협의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진흥법상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하기도 함
-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문화적 소외계층은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꾸준히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을 통해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체로 학생이나 젊은 층에게서 문화는 자아실현 및 자아발전의 매개이나, 노년층은 여가의 일환으로 문화를 이해함. 이에 연령층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의 접근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순수예술의 향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순수 예술은 처음에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맹점 이력을 보면 5만원으로도 공연을 계속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일단 접해서 좋아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처음엔 유명한 공연만 보다가 점점 다양한 공연을 보다가 지역의 공연을 찾게 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순수예술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이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고마움을 표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을 복지카드처럼 인식하고 생필품 구입 등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기를 원함. 이는 미소진자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음식배달, 목욕탕이용, 이발소 등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것),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을 시사함

- 사회복지기관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나 이를 독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적인 업무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하지만 사회복지 계에서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활용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지현장전문가들의 문화예술 이해도 증진을 통해 이들이 본 사업의 중간 매개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전문가들은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이 순수 목적과 부합하는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으로 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② 불완전한 법적지위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정식명칭은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이나, 법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 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
- 법적 근거의 부족은 재원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재원이 체육기금과 관광기금의 일부가 전입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원에 대한 법적 명시가 필요.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복권기금 등의 국고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문화이용권의 운영주체로서 명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초창기부터 사업을 운영해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축하였으나 법적인 지위와 재원의 문제가 명확치 않아 운영주체로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

(2) 사업의 성과

- 사업의 성과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와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지표임.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 목적의 달성을 과제로 보고 있음

<표 5-19>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효과성 및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 내용

중분류	소분류	주요내용
사업의 확대	양적인 확대	-차상위 이하 신청자 전원을 대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은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함 -예산과 사용자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빅데이터 기초마련	다년간 이용형태에 대한 데이터가 모여져 빅데이터로서 연구의 활용가치가 있음
효과성	문화격차 완화	문화격차가 줄어들어 국민의 문화적소양이 향상되면 국가의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문화 즐길 사례	여러 경로를 통해 수혜자들의 자존감이 향상 되고, 문화를 찾아 즐기는 것이 목격됨
평가 체계	패널데이터	이용자들의 이용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연구 필요
	효과성	신청 시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데이터 구축 필요
	평가지표	가맹점 결제건수는 평가지표로서 타당도가 떨어짐

① 사업의 확대

□ 양적인 확대

- 2006년에는 문화적 소외계층을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인 여건상 문화의 향유 기회를 즐기기 어려운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경제적인 여건을 중심으로 사업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해옴.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해오고 있다고 평가함
- 예산 역시 2006년 26억 원으로 시작되어 10년이 지난 2016년 785억 원으로 약 32배 확대되었음
-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대한 양적인 성과로도 큰 의미가 있으나 향후 이에 걸 맞는 질적인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단순히 가맹점을 이용하기 보다는 공연다운 공연, 여행다운 여행, 스포츠다운 스포츠 분야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쓰이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한 여행상품 등이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 이용형태에 대한 사용자 빅데이터 기초 마련

- 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들어 가맹점 결제에 대한 데이터가 모여져 사용자들의 이용형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짐.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패널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점검은 데이터를 근거로 보다 엄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② 효과성

□ 문화격차 완화

- 문화예술은 경험재이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름. 문화예술 인프라에 차이를 보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문화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시골의 책방 같은 가맹점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특히 농산어촌은 가맹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그래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다행이에요.”

□ 문화 향유 사례

- 전문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함

“노숙인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영화안내를 체계적으로 해요. 포스터 붙여놓고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서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유도하니까 소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봉사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가는 날이면 말쑥하게 차려입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온 날들은 확실히 얼굴빛이 밝아지고 혈동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은 수동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연극단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지역의 연극 무대를 찾아다니며 공연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③ 평가지표

□ 사용자 스스로 효과성을 응답하는 절차 필요

- 질적인 평가부분에서 통합문화이용권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기에 이러한 효과성이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더불어 대상자 스스로의 변화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매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전후에 사업의 효과성을 응답하게 한다면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

“카드는 사용액과 이용형태 등 하드데이터만 나오잖아요. 보통 효과로 얘기하는 자존감이나 행복 이런 것이 데이터로 쌓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마다 신청 받을 때 그것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추적해야지 문화예술 향유의 질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요.”

□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과제

“복지대상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용을 한다면 정서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거든요. 이러한 성과가 많이 제시되고 실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용권이 사용되게끔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아요.”

□ 가맹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 확대한 가맹점 분야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가맹점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

“가맹점 분야를 늘리는 것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입니다. 온천관광을 허용하니까 동네 목욕탕이야기도 나옵니다. 2017년에는 재가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TV다시보기도 허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전달체계상의 주요 논점

- 통합문화이용권 전달체계 과정을 홍보 및 교육, 신청 및 발급, 이용형태 및 사용촉진 등으로 구분함

① 홍보 및 교육

<표 5-20> 홍보 및 신청과 발급에 대한 주요논점

중분류	소분류	주요내용	
홍보	정부	사업전반에 관한 TV 광고 등 대중매체에 정기적으로 홍보	
	지자체	지역의 대중매체나 지역기업 등을 활용	
	운영기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
		가맹점	지역의 가맹점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들에게 문자 및 인쇄물제공
교육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교육 프로그램 보급	
	매개인력 교육	복지기관의 전문 인력에게 문화예술의 접근방식 및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신청 및 발급	대상자 확대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에게 한시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신청제한	전문가들은 신청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다음해에 신청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함. 하지만 일부는 문화적 배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음을 경고함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특히, 당사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므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나 미소진자 축소에 대한 전달체계상의 대안은 홍보나 교육에 있음

-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문화복지 인력들이 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복지기관들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조언함

“점점 베이비부머 세대나 노인의 욕구가 문화예술 쪽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그냥 복지 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화여가의 매개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예위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접근을 하면 관심들을 많이 가질 거 같거든요. 노인에게 적합한 문화예술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신청과 발급

□ 대상자 확대

- 2016년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문화예술을 향유가 어려운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실제의 문화소외계층으로 지리적인 이유가 큼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포괄 하여함을 강조함.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한시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사회적인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킴. 이는 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함

“실업자가 된 경우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잖아요. 실업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립되고 어려운 것들이 많고, 제가 최근에 청년 1인 가구 실업자 인터뷰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기도하고, 굉장히 문화적인 갈망이 커요. 이 경우에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분류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정말 문화적 갈망이 큰 집단이고, 그만큼 위험이 큰 집단이거든요. 그런 집단들이 뭔가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사회적 필요성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미소진자 신청 제한

- 발급을 받아놓고 이용하지 않은 대상이 다음해에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 이러한 미소진 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행정적인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문화가 더욱 선별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여기에 대한 민원도 폭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작년에 전혀 소진하지 않았는데도 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발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오히려 이럴 경우 발급을 제한해서 그 다음에도 ‘내가 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주는구나, 내년에 쓰려면 올해는 써야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예술 애호가를 위한 정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사업은 예술을 못 누리지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장려하게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선별적인 사업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패네티를 주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썼으면 적어도 다음 년도에는 안주고 일

년 지나면 풀어준다 이렇게 해야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신청에 대한 책임의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이용형태 및 사용촉진

중분류	소분류	주요내용
장르	도서 및 영화	한때는 90%까지 육박했으나, 2016년에는 70%정도가 이용함
	공연관람 및 전시	공연관람이나 전시의 비율은 매우 낮음
	관광	관광은 매우 부진함
	체육	체육구단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용이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체육용품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함
	한계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제대로 없는 지역이나 가맹점수가 작은 경우 소비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음 on line상의 구매는 중장년층과 노인층에서 절차상의 복잡함을 호소
대상별	중고등학생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음. 다만 입시문제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	혼자 문화향유를 즐길 수 여건이 어려운 경우 많음. 지자체의 봉사자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있음
	노인	장롱카드가 가장 많은 계층임. 한자이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경험이 없어서 혼자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사용이 어려움. 이들을 연계하는 촉진프로그램이 필요함
이용 촉진	농산어촌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가맹점도 별로 없어서 문화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함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의 합동평가에 통합문화이용권 실적이 포함되면서 이용이나 발급이 상승함
	촉진 프로그램	더누리 문화사업이 폐지되면서 장애인, 노인층의 이용률이 낮아짐
	콜센터	이용권 발급에 관한 농협콜센터와 이용전반에 관한 도움을 주는 문예위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음 콜센터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음

□ 장르

-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문화이용권사용은 대부분 순수예술로 쓰였음

“초창기에는 홈페이지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올려놓고 포인트로 그것을 신청하게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공연, 전시 관람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의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이 이슈화되었고, 2011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 제공되면서 순수한 문화예술부분이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 범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코 도서와 영화로 두 분야의 사용 비중이 90% 까지 육박한 해도 있었으나 2016년은 70%수준임. 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다양한 범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동시에 가맹 분야가 보다 넓어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

“가맹점에 대한 발굴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 여가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방되었습니다. 온천, 시외버스, 음원다운 그리고 TV 다시보기 등에 서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on line상의 거래에 대한 개방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의 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

“우리나라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방이 없는 시군도 굉장히 많거든요. 더욱이 가맹점 문제 특히 섬 지역은 쓸 수 없는 거죠. 큰 과제중 하나인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범주에 뭘 확장해야할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on line상의 거래를 개방했는데, 아무래도 노년층이 사용하기에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 관광 및 체육관련 상품개발이 필요

“지역의 특화된 여행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여행사 보다 지역기획자 문화기획자랑 연계 주는 게 현재로서 대개 지역 활성화도 가져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웃마을을 돌아보는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프로구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체육관련 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사용을 체육용품으로 확대해서 지금은 농구화, 축구화, 축구공 등 체육용품의 구입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는데, 아직 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용자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 대상별

- 대학생이하의 학생들은 사용함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금액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토로함. 한편,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시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기 초에 참고도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금액적인 면에서 좀 더 지원할 것을 언급함

“이것이 딜레마예요. 학생 때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여 문화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당장 참고도서가 더 급한 게 현실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고 효과도 가장 큰 대상이 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 금액적인 면에서 좀 더 지원하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 장애인과 노인층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임으로 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혼자 스스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관람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등을 하고 이해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가면 정말 좋아들 하십니다. 실은 그런 게 기획사업의 역할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 이용촉진

- 지자체 합동평가항목에 통합문화이용권이 편입되면서 지자체와 협력이 촉진됨. 저소득층을 위한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이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발급되기 때문에, 통합문화이용권의 홍보와 이용촉진 역시 지자체의 관심과 업무추진성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문화적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합동평가에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발급율과 소진율에 대한 평가가 계속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함

“2012년도부터는 사실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지자체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용이나 발급이 상당히 많이 촉진 된 부분이 있습니다.”

- 대중에게 문화소양교육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강

좌를 결재 할 수 있음

“문화는 경험재라는 속성으로 인해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나 전시 등의 정보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호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교육강좌를 듣고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공연관람을 함께 다니고 하는 사례가 더 많죠.”

(4)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발전방안

□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제한점과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함

제한점		발전방안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이용권 (불완전한 법적지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법에 따른 완전한 지위확보가 우선 (재원, 대상포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권기금의 복원은 매우 중요함
문화예술소양에 관한 대중교육		지자체 및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복지차원의 사업이라는 인식 확산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범위(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
	수요자 맞춤형 홍보	수요자의 연령,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 홈페이지와 정보지제공으로 이원화
촉진사업		자발적인 향유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촉진사업(구, 기획사업)을 전개
지자체와의 협력		지자체장의 관심 중요, 지자체합동평가 유지
관광과 체육에 대한 상품개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 상품을 개발
가맹점관리 시스템 개발 및 연계		가맹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나 통합문화이용권사 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별로 공지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동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성과 지표 개발 및 제안, 이용자 형태분석, 이용자 만족도 분석은 2014년, 2015년에 수행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문헌고찰과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함
 - － 또한, 미소진 사용자 전화면접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전문가집단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정성적 논의 과정을 추가함

1)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성과(2014년~2016년)

(1) 이용자 만족도

- 본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7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그 결과 7점 만점에 종합만족도는 6.03(86.1점)으로 나타남
 - －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카드 형태로 사용된 시점인 2011년 75.8점에 비해 11.7점 상승한 것으로 만족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성과임(2012년 77.5점, 2013년 79.5점, 2014년 83.6점, 2015년 85.4점)
- 세부적으로 만족도는 재참여 의향 6.58점, 타인추천의향 6.45점, 전반적 만족도 6.27, 대상 적절성 6.14점 순으로 나타남.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 시 관계자들의 적절한 도움이 5.51점, 가맹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5.60점, 가맹점(이용처)에 대한 만족도 5.66점 순으로 조사됨
- 60대 이상이 30대에 비해 종합만족도를 비롯해 40대와 50대에 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60대 이상과 30대($p<.05$), 60대 이상과 40대($p<.05$)에서 직원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와 40대에 비해, 사업 이용 시 관계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 받은 것으로 풀이됨
- 이러한 만족도는 향후 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과 관련이 있음
 - － 본 연구의 설문조사 7점 만점기준으로 도서 및 음반구입 6.21점, 영화관 이용,

찾아가는 영화관 6.20점, 국내여행(숙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이 5.64점, 문화 예술프로그램 관람지원 5.2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예술(국악, 사물놀이, 탈춤 등)이 4.78점의 순으로 집계됨

- ‘국내여행’의 경우 지난 1년간 참여횟수는 2.06회에 그쳤으나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5.6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숙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 국내여행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지난 1년간 참여한 프로그램에 비해 향후 이용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2) 문화 격차

- 2014년도 총 이용액은 49,790,813,880원 2015년 총 이용액은 60,858,918,759원, 2016년 총 이용액은 62,452,171,925원으로 나타남. 이는 예산액과 이용자규모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음
- 2014년, 2015년, 2016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함. 생애주기의 분류는 10대까지를 아동/청소년으로, 20대와 30대를 청년, 40대와 50대를 중장년, 60대 이상을 노년으로 분류하고, 지역은 도시와 농산어촌으로 구분함

□ 연령별 격차

- 노년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 증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짐. 2014년 11,287,948,683원에서 2015년 13,692,082,217원, 2016년 17,431,637,945원으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2016년 문화향유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60대 이상 문화예술행사관람 경험이 2014년 39.8%, 2016년 55.7%로 15.9% 증가하였고, 70대 이상 경험이 2015년 22.0%에서 2016년 39.4%로 17.4%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
- 청년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청년 이용액은 2014년 4,955,251,480원, 2015년 8,100,605,429원, 2016년 9,083,410,335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의 꾸준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의 증가세는 청년 인구 증가의 정체를 감안한다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의 효과로 분석됨
- 연령별 이용액은 2016년 기준 중장년층 20,583,182,086원, 노년층 17,431,637,945원, 아동 및 청소년층 15,353,941,559원, 청년층 9,083,410,335원 순으로 나타났는

데 아동청소년(6세-19세)의 인구비율이 가장 낮음을 감안하면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이 고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로써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에서 문화향유의 세대 간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 가능

□ 지역별 격차

- 도시 지역에서 사용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액은 56,313,129,103원이며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용된 금액은 8,135,595,630원임. 농산어촌 지역의 이용률은 카드 발급 예산 대비 91%, 도시 지역의 이용률은 88.7%이며,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문화향유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지역 간 문화 향유에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각각 65.7%, 81.0%로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4년 대비 8% 증가한 반면 대도시는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농산어촌 및 읍면지역에서의 문화향유 증가가 도시민들의 향유 증가 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지역별 문화예술 관람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3) 이용효과(사후변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7점 만점 기준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활동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의견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5.72점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사 결과 30대, 40대와 60대 이상($p<.05$)에서 이용자 변화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30대와 40대에 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고, 우울함과 외로움 및 자살충동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 후 변화정도는 세부항목 중 행복감 변화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사 결과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p<.05$), 차상위와 기타($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에 비해 사용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4) 경제적 파급효과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복지분야의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바우처사업으로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관련 산업을 진작시키는 부수적인 기능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 설문 조사에서 응답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외의 지불한 추가 비용에 주목하고, 이를 경제적 파급효과로 봄
 - (계산식) 해당년도 전체이용자 × 추가 지불한 경우 × 지불한 평균 금액
- 본 연구 설문 결과 지난 1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외 문화향유를 위한 비용을 추가 지불한 경우가 62.1%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평균 140,000원임
 - (계산식) 2016년도 전체이용자(145만명) × 추가 지불한 경우(62.1%) × 지불한 평균 금액(140,000원)
 - (파급효과 추계) 지난 1년간 1,260억 6,3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향후 1년간 문화향유를 위한 추가 지불 의향에서는 57.7%가 지불의사 혹은 여유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추가 지불 금액은 평균 120,000원으로 나타남. 2017년도 대상자 161만 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할 수 있음
 - (계산식) 2017년도 대상자(161만명) × 추가 지불의사(57.7%) × 추가 지불의향 평균 금액(120,000원)
 - (파급효과 추계) 2017년도 1,114억 7,640만원
- 2017년도 추가 지불액이 2016년 추가지불액 140,000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추가 사용 의향을 밝히고 있으며, 2016년 실제 추가 사용액에 비해 지불의향이 적게 나타난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예측되며, 실제 사용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과제

(1) 통합문화이용권 미소진 및 사용이 어려운 이유

- 2016년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게 적합한 활동이 언제 어디서에 하는지에 모른다는 정보 부족이 32.5%,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점)가까운 곳에 없어서 27.5%,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까지의)교통이 불편해서 16.6%, 기타(지원

금액의 확대, 사용절차의 어려움)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사유에 미소진자 면접 결과 조사된 미소진 사유를 더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전화면접과 설문조사의 내용을 개인적 이유, 운영상 이유, 환경적 이유로 분류하였음
 - (개인적 이유) 경제적인 부담(액수적음), 건강상의 이유(장애, 연령, 질환 등), 시간 및 마음의 여유 없음, 사용기간 잊음, 단순분실, 취향 안 맞음, 사용경험 없음, 혼자라서 어려움, 장애와 독거노인(도우미필요)
 - (운영 상 이유) 정보부족, 인터넷 사용 거의 안함, 카드사용처 및 사용방법 모름 (어려움), on line 절차 복잡, 콜 센터 연결 잘 안됨, 원하지 않은 발급
 - (환경적 이유) 주변에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가맹점 없음. 교통 불편

(2) 쏠림현상

- 쏠림현상은 (통합)문화이용권이 바우처카드로 제공된 시점인 2011년부터 이슈화 되어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임. 특히 도서/음반, 영화로의 장르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계절 및 월별 쏠림현상은 발급과 마감효과로 인해 3월과 12월에 집중되고 있음
- 계절 및 월별
 - 봄은 발급시기인 동시에 신학기로 이용액이 가장 많은 계절 중 하나임. 특히, 관광 장르에서 이용액이 증가하며, 도서/출판의 경우 모든 년도에 3월과 12월에 이용량이 급격히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봄에는 활동량이 많은 계층인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3월 이후 이용액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노년의 경우 마감을 앞둔 12월에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관공서의 문자독려 등에 반응한 마감효과의 작용으로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통합문화이용권의 자발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장르별
 - 이용액을 기준으로 하면 도서 42.3%, 영화 28.9%, 문화일반 17.2%, 여행관련 6%로 나타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반면 자주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화 38.3%,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22.9%, 도서음반구입 20.4%, 여행관광 6.7%, 문화일반 10.4%, 스포츠 경기 관람 1.5% (정무성 외, 2014) 순으로 조사됨. 같은 맥락에

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영화관 이용, 찾아가는 영화관이 평균 3.85회, 도서 및 음반구입이 평균 3.47회, 스포츠 관람이 3.23회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이 평균 1.71회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용액이 가장 큰 도서/음반은 봄에 많이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화의 경우 주로 여름에 수요가 많았음
- 한편, 문화장르 이용액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2014년도 87억 원에 달했던 문화 장르 이용액이 2015년에는 80억, 2016년에는 28억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68% 가량 감소하였음. 문화관련 분야가 급속도로 감소한 이유로 자발적인 문화 향유가 어려운 대상에게 공연관람 및 전시, 문화체험위주의 사업을 수행했던 기획 사업이 2016년에 폐지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3)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과제

□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함

과제	주요내용
법적지위 확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이 정식 명칭임.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에는 문화이용권의 정의와 지자체의 의무 및 전담기관 만이 언급되어있어 법적근거가 미약함. 이는 재원과 운영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재원 불확실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재원이었던 복권기금이 제외되어 재원의 안전성이 불확실함
급여의 불충분성	현재 5만원으로는 도서와 영화는 가능하지만 공연 및 스포츠관람, 여행 등은 불충분한 수준임
문화예술 사각지대계층	문화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자격제한으로 인해 실업자 등 문화예술 사각지대 계층을 포괄하지 못함
홍보의 다각화	(대국민 인식개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복지분야의 바우처 사업이라는 인식부족으로 복지카드로 여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구매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드러남
	(정보제공) 중장년 층 이상의 연령에서 가맹점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잘 모름
교육	(대중교육)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혼자서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매개인력) 자발적인 문화적 향유가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떻게 문화예술을 접하게 할지 방법을 모름
사용처 관리 (가맹점)	(인프라부족) 지역 내에 문화예술시설이나 가맹점이 없어서 사용 못함
	(가맹점 분야 확대) 문화예술 밖의 범위에서 가맹점을 개발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함
	(가맹점 관리)휴폐업 및 개발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함
쓸림현상	(장르)도서 및 영화가 약 70%이며, 공연전시와 스포츠관람 및 여행의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이러한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월별) 발급과 마감효과로 인하여 3월과 12월에서 쓸림현상이 심함
	(여행) 여행을 하기에는 5만원의 통합이용권의 액수가 적음
매개인력활용	자발적인 문화적 향유가 어려운 계층으로 장애인과 노인층은 매개인력의 도움이 필요함
모니터링	(콜센터)연결이 잘 안됨
지자체 네트워크	(발급)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발급이 되어 미소진하는 경우 발생
	(정보제공) 신청 시에 사용방법이나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함

2. 제언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역량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4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음. 2014년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의 통합으로 등장한 통합문화이용권은 다양한 장르를 통합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함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이용권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째로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과를 달성한 주목 받고 있는 문화복지분야의 바우처 사업임. 충분한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도 점점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는 더욱 의미가 있음

1)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

- 문화가 궁극적으로 정서를 순화하고, 감수성을 함양해 보다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21세기 들어 문화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 되어옴. 뿐 아니라 삶의 질과 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확산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정무성, 2016)
- 통합문화이용권은 국민의 ‘문화권’ 보장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기본권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함으로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통합문화이용권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음
- 하지만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문화 소외계층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

게 또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함

-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향유의 사각지대 계층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들을 꼽을 수 있음. 실직 상태로 환경 및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향유는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충분한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되는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용자들이 존재함. 미소진 사용자 면접 및 FGI를 통해 일부 이용자들이 여전히 통합문화이용권을 복지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이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문화향유의 적정범위에 대한 기준선 및 3개의 장르(문화, 스포츠 관람, 여행) 균형 추구 여부 등의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문화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문화권의 기준선,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장르별 균형과 재원 문제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데이터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2) 법적지위 및 재원의 안정성 확보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함.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강구)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적시하였고, 제15조 4(문화이용권 의 지급 및 관리)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상기의 법적인 근거는 문화이용권사업이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작된 2004년 시점에 제정된 것임. 2014년 사업의 정식명칭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으로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음. 법적 근거는 사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 있으며, 재원의 확보

및 전달기관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함. 이에 통합문화이용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의 도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입법제안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한편 재원의 안정성을 위한 복권기금 복원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함
 -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4.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
 - 복권기금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확대에 대한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가장 포괄적이며 적합한 사업임(FGI).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문제가 재기되는 상황에서 복권기금의 복원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부처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3)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촉진사업 재도입의 필요성

- 촉진사업(구 기획사업) 재도입의 필요성
 - 과거에 비해 도서/영화 장르의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매해 이용액의 70%이상이 도서/영화 장르에서 소진되고 있음. 한편, 공연 및 관람, 여행 및 스포츠관람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문화 장르의 경우에는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장르의 쏠림 현상은 문화이용권사업 카드제로 전환된 2011년 시점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공연이나 관람 등에 드는 비용적인 문제와 경험의 부재를 인한 어려움과 자발적인 향유가 어려운 상황 등에 기인함
 -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17개 주관처의 기획사업 프로그램과 문화복지 전문 인력의 활동으로 일정부분 해소가 되었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재도입 혹은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표 6-1>에서 보듯이 2014년의 기획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이 43.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일반 33.9%, 여행 12.1%, 통합 6.1%, 전시 1.6%, 스포츠 0.7%임. 참고로 2012년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은 공연 및 전시가 46.6%이고, 전통은 11.7%임(2012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표 6-1>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2014년)

(단위:건)

장르	공연	전시	영화	문화일반	여행	스포츠	통합	계
프로그램 수	3,272	123	170	2,572	919	55	467	7,578
비율(%)	43.3	1.6	2.3	33.9	12.1	0.7	6.1	100

자료: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특히,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더 큼
- 도시와 농산어촌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격차는 문화 인프라의 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촉진사업(구 기획사업, 문화더누리사업)을 선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계와 문화계를 연결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4) 운영시스템 점검 및 전달체계 연계

- 생애주기에 따른 정보 획득 경로가 다름에 따라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대상) 홍보 시 신청절차, 사용방법,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 고려한 가맹점 추천.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 안내. 가독성이 높은 인쇄물 등을 제공
 - (청소년 대상) 카드신청기간, 사용기간 등 잊지 않도록 문자 및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활용한 안내 제공
- 신청 시에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아주 간단한 5~6가지의 설문문항에 정보제공방법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후 효과성 등을 체크하도록 하여 향후 데이터로 활용함
- 미소진 잔액 축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발급을 받아놓고 전혀 이용하지 않은 대상이 다음해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미소진되는 카드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욕구 중심의 대상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임

- 하지만 전문가면접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문화가 선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 5만원으로 공연이나 전시 및 스포츠험람, 여행을 하기에는 불충분함. 미소진과 사용이 어려운 부분으로 매년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충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고, 기타의 의견에서도 금액의 부족 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음
- 미소진과 이용액의 불충분에 대한 대안으로 신청 및 발급비용을 1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이를 충전금액에 포함에 시키는 것을 제안함(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본인부담금 1만원과 이용액 6만원을 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액 충전은 7만원이 됨)
- 문화예술은 경험재로서 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면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따름. 복지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대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대중 교육이 유용할 것
- 지역의 가맹점의 휴폐업 및 신규가입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카드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상대적으로 온라인 및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제한적인 계층에게는 별도의 안내가 필요할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시에 선호하는 정보제공방법을 표기할 수 있도록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 전수조사는 일 년에 두 차례 이루어지나 시스템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하고 이것을 지자체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별로 공지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함
- 지자체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와 사회복지사 및 관련전문가를 문화매개 인력 육성 및 협력유도하기 위해 현재 나눔티켓의 이음회원의 혜택을 통합문화이용권 소지자와 동일하게 무료와 할인티켓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복지의 대상자이기도 함. 대부분의 복지신청이 지자체의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
- 대부분의 복지대상자들은 사회복지기관들의 현장 전문가들과 접근이 용이하며, 복지기관 현장 전문가들도 복지의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으로 문화복지 매개인력으로 활동하려면 교육이 필요.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교육 및 대상별 문화예술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워크숍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관광과 체육에 대한 상품개발

- 관광과 체육의 이용실적은 매우 낮은 편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와 관광, 관광과 체육 등을 연계하는 기획사업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1.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2. 글로벌경영연구소(20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기획재정부(2015),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2~2014 회계연도 평가)
4. 기획재정부(2015),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개선
5. 기획재정부(2016), 2016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2016.5.30. 보도자료
6.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unhwanuricard.kr
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 문화예술 관람률(78.3%)은 지속 상승, 2003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 증가, 2017.01.12. 보도자료
8.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9.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 성과관리시행계획
10.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통합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11.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
12.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문화예술정책백서
13.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문화정책백서
14.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문화정책백서
15. 문화체육관광부(2006), 2006문화정책백서
16. 문화체육관광부(2005), 2005문화정책백서
17. 문화체육관광부(2004), 2004문화정책백서
18. 복권기금 문화나눔 홈페이지 www.lotteryarts.or.kr
19. 양혜원 외(2015),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 이영욱(2005), 문화재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 등 개발 연구, 문화재청
21. 이종환(2014),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문화체육관광부.
22. 정무성(2016), 고령사회의 도래와 문화정책의 역할, 「고령사회와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23. 정무성 외(201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4. 정무성 외(2012), 문화여가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KDI
25. 조성현 외(2012),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 한국개발연구원(2006),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27. 한국행정연구원(2016),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과 성과관리에서의 자율성 확대, ISSUEpaper:동권(9)

부 록

통합문화이용권 설문지

2016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2016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숭실대학교입니다.

본 설문은 201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사업의 발전방안을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통계처리 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문 의 :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연구실 02-828-7212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745호

2016년 11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 무 성 교수

본 설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귀하의 일반사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2) 출생 년도	_____년
3) 거주지역	①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② 도농복합 <input type="checkbox"/> ③ 농산어촌 <input type="checkbox"/>
4) 최종학력	① 무학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 이상 <input type="checkbox"/>
5) 직업	① 학생 <input type="checkbox"/> ②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④ 퇴직자 <input type="checkbox"/> ⑤ 주부 <input type="checkbox"/> ⑥ 농어업자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6) 가구 경제소득수준	① 기초생활수급 <input type="checkbox"/> ②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input type="checkbox"/>
7) 장애유무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input type="checkbox"/>

1. 귀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통합)문화이용권을 몇 년 동안 사용해 보셨습니까?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모두 포함)
 _____년 동안

2. 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행정기관(시청, 읍사무소) _____ ② 인터넷 및 스마트폰 _____ ③ 직접 정보(이메일 등) _____
 ④ 신문, 잡지 또는 기사 _____ ⑤ 옥외광고 _____ ⑥ 주변사람(친구, 동료 등) _____
 ⑦ 학교 또는 직장의 안내 _____ ⑧ 문자 발송 _____ ⑨ 기타() _____

3.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사업의 대상자는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사업에서 제공하는 문화·국내여행·스포츠 관람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안내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사업을 통해 제공된 문화·국내여행·스포츠 관람 가맹점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사업 이용 시 관계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의 통합문화이용권 프로그램 중 귀하가 지난 1년 간 참여한 프로그램의 횟수를 기입하시고 각 프로그램별 향후 이용 의향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구 분		참여 횟수	참여의향						
			전혀 원하지 않음	원하지 않음	약간 원하지 않음	보통	약간 참여를 원함	참여를 원함	매우 참여를 원함
4-1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지원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전시 (그림, 서예, 공예, 사진 등)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도서 및 음반 구입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영화관 이용, 찾아가는 영화관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6	전통예술 (국악, 사물놀이, 탈춤 등)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7	국내여행 (숙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8	스포츠 관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____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귀하는 지난 1년간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활동 향유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외에 약 얼마정도를 추가로 쓰셨습니까? (금액을 직접 기입해 주세요)

- _____ ①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활동 향유를 위해 추가로 지불한 돈이 전혀 없다.
 _____ ②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활동 향유를 위해 추가로 돈을 지불했다.
 (약 _____만 _____천원)

6. 귀하는 향후 1년간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를 위해 약 얼마정도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금액을 직접 기입해 주세요)

- _____ ① 지불할 의사 혹은 여유가 있고, _____만 원 정도 지불할 수 있다
 _____ ② 지불할 의사 혹은 여유가 없다

7. 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후에 달라지셨습니까? 각 문항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현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2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우울함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3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4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자살 충동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5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활동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6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예술적 감수성이 더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7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자존감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8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언어적·비언어적)표현을 잘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9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사람들을 더 믿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0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1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전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2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3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전과 비교하여 신체가 건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충전 및 합산기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둘 다 안다 ② 충전기능만 알고 있었다 ③ 합산기능만 알고 있었다 ④ 둘 다 모른다

9. 귀하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주시시오

- ☐ ① 내게 적합한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활동이 어디서 언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 ☐ ② 문화,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활동에 흥미가 없어서
- ☐ ③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 ☐ ④ 참여 및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 ☐ ⑤ 교통이 불편해서
- ☐ ⑥ 건강이 좋지 않아서
- ☐ ⑦ 참여해보았는데 재미가 없어서
- ☐ ⑧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 ☐ ⑨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 ⑩ 가까운 곳에 없어서
- ☐ ⑪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 ⑫ 기타 ()

**10.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하여 제안할 것이 있으시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확대, 사용개선 등)**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

2017년 01월 인쇄

2017년 01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전화 061-900-2100

팩스 061-900-2363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